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돌과, 둘이 셋과 하리니”(눅 12:52)

**셋과 돌, 돌과 셋**

**힘 있는 천사들**

*The Mighty Ang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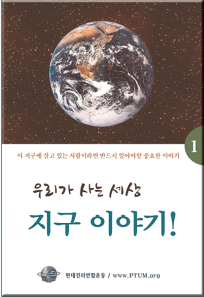
현대진리연합운동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계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완전한 품성)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소망, 762)



현대진리연합운동  
PRESENT TRUTH UNIFICATION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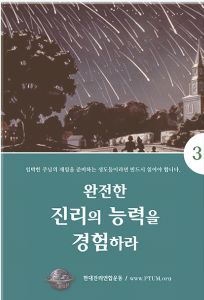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이 지구의 통치자로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소책자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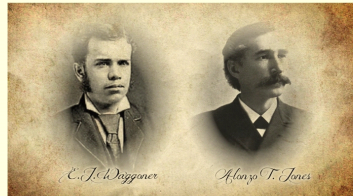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쟁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참여할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하여 전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 소책자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재림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깨닫고 경험해야 할 기별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소책자를 통해서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그너 형제가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 개념들을 끌어내었을 때에  
그것은 나와 내 남편 사이에 대화를 제외하고는  
그 주제에 대하여 내가 들었던  
어느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최초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그것(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을 제시하였을 때에  
나의 심장의  
모든 섬유질마다 아멘이라고 말하였다.”  
(원고 5, 1889년)



셋과 둘, 둘과 셋

# 힘 있는 천사들

# 목차

## 서문 \_9

### 제1장 : 다섯 식구 한 가족의 분쟁 \_13

한 집안 다섯 식구 \_14

계시록 18장 천사가 사업을 시작함 \_18

말씀의 적용 \_20

#### 1) 첫 번째 불화와 분쟁 \_22

첫째 천사의 기별 \_23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라! \_25

확실한 증언 \_26

죄를 가리어주지 않음 \_27

죄 있는 상태로 구원하지 않으심 \_28

경건한 두려움 \_28

10년 후에 재림하시는 기별임 \_30

불화와 분쟁이 일어남 \_31

#### 2) 두 번째 불화와 분쟁 \_34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됨 \_34

불화의 원인과 결과 \_35

밤중소리(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_35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_37

미래를 감추심 \_38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_40

- 세상과 자신을 포기하라 \_42
-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_43
- 지성소의 문을 여심 \_44
- 3개월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별 \_46

### 3) 세 번째 불화와 분쟁 \_47

-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늘 성소 \_49
- 셋째 천사의 기별 \_50
- 선과 악의 대쟁투 \_50
- 기별의 핵심 \_51
- 지성소의 믿음 \_52
- 완전한 진리 \_53
- 예수의 믿음 \_54
- 안식일 준수의 개혁 \_55
-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_59
- 거룩한 설교단 \_61
- 아론의 싹 난 지팡이 \_62
- 영혼의 달 - 견고한 토대 \_65
- 대속죄일은 하루 \_67

### 4) 네 번째 불화와 분쟁 \_68

- 넷째 천사의 기별 \_68
- 넷째 천사가 내려옴 \_69
- 1888년 교회의 위험 \_70
- 1888년 교회의 상태 \_72
- 기별이 거절당함 \_73
- 불화와 분쟁, 흔들림 \_74
- 넷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_75
- 믿음의 실상 \_77
- 셋째 천사를 돕는 천사 \_79

### 5) 다섯 번째 불화와 분쟁 \_81

- 다섯째 천사의 음성 \_81
- 화잇 선지자의 계시 \_82

계시록 18장 천사의 오해 \_83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 \_84  
다섯째 천사 \_85  
복음의 반복 \_87  
시의적절(時宜適切)한 때 \_88  
다섯 천사의 연합 \_89  
현대진리 \_91  
늦은 비를 위한 준비 \_92  
예비하신 큰 선물 \_93  
매우 소중한 기별 \_94  
값없는 선물 \_95  
예복은 준비되어 있음 \_96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_97  
친히 이루심 \_99

## 제2장 :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_103

### 1) 열 처녀의 비유와 비상사태 \_103

미련한 처녀들 \_104  
기름 파는 자들 \_106  
비상사태를 위하여 \_107  
비상사태가 가까이 옴 \_109

### 2) 다섯 번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심 \_112

주인의 품성 \_113  
다시 배워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_115  
이 비유의 핵심 - 다섯 번의 일꾼을 부르심 \_117  
열한 시의 추수꾼들 \_117

## 제3장 :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천사들 \_121

### 1) 죄악의 잔은 얼마나 찻을까? \_121

거룩한 제도들 \_121  
죄악을 측정함 \_122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 \_125  
선교방향을 올바르게 잡자 \_127  
십사만사천인의 복음 \_129  
사단의 계략 \_129  
확실한 진리 \_130  
신속한 예언의 성취 \_132

## 2) 베드로가 그물로 잡은 153마리의 큰 진리 \_135

첫 번째 경험(이른 비에 대한 계시) \_136  
두 번째 경험(늦은 비에 대한 계시) \_137  
큰 진리를 나타내심 \_138  
일백 원 세 마리의 암호를 풀어라 \_139  
구원받은 두 무리 \_139  
'153'의 수효가 가리키는 진리 \_142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라 \_144  
천연계를 통한 진리의 연상법(緣想法) \_146

## 3) 다섯째 인의 비밀 \_151

중요한 진리 \_151  
지체되고 있는 중요한 예언 \_153  
죽임을 당한 영혼들 / 죽임을 받은 영혼들 \_154  
다섯째 인의 비밀이 풀어짐 \_156

## 4) 십사만사천인의 소명(召命) \_158

제사장(레위) 직분의 근원 \_159  
레위인이 장자권을 얻음 \_159  
레위인의 실체, 십사만사천인 \_161

## 5) 십사만사천인의 사명(使命) \_162

실례들 \_163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_164  
재앙이 미치지 않음 \_167  
사단의 기만 \_168

## 부록

### 십사만사천인에 관련된 질의응답 \_171

**질문 1 :**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며, 어떤 천사가 인을 치는가? \_171

**질문 2 :** 성령의 인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은 어떻게 다른가? \_172

**질문 3 :** 십사만사천인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무리인가? \_173

**질문 4 :** 십사만사천인의 숫자는 상징수인가 실제수인가? \_175

**부가적인 질문 :**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상징이니 열두 지파에서 나오는 십사만사천인도 상징으로 보아야 맞지 않는가? \_176

**질문 5 :** 십사만사천인의 수효에는 죽은 자들도 포함되는가? \_178

**질문 6 :** 십사만사천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이 아닌가? 왜 죽은 자들이 포함된다고 말하는가? \_180

**질문 7 :** 십사만사천인들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가? \_182

**질문 8 :** 십사만사천인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는 침묵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가? \_183

**질문 9 :**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은 썩지 않을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그들에게 야곱의 환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_184

**질문 10 :** 1844년 이후 짐승의 표가 되는 일요일을 지키는 백성들 중에는 구원 얻을 무리는 없는가? \_186

**질문 11 :** 죽은 자들도 십사만사천인에 포함된다는 직접적인 증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_187

**질문 12 :**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오직 십사만사천인 외에는 구원 받을 자가 없을 것인가? \_190

**\*\* 참고 도표 및 자료 \*\***

계 18:1, 계 18:4, 초기문집 277 비교 \_19

다섯(셋과 둘) 천사의 기별에 관한 연구 \_101

열 처녀 비유와 관련된 비유들 \_111

성소의 평면도 \_143

다섯 천사의 기별과 무관치 않은 표상, 비유, 역사 연구 \_150

십사만사천인과 셀 수 없는 무리의 비교 \_174

목시록연구 7장 일부 (왕대아 저) \_194

다섯 천사의 기별에 의한 사업의 범위와 큰 외침의 실상 \_197

마지막 사건들 \_198

# 서문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요 21:25)

이 말씀을 유의해보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필수불가결한 말씀들로만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말씀이라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유와 표상, 역사와 예언, 특정한 단어와 숫자 등 어느 하나라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비록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언어와 문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 고귀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옛날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말씀을 탐구하는 일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였다. 그 결과로, 귀중한 진리들은 모호하게 되어버렸고 율법의 원칙(정신)들은 무시를 당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 계실 때 랍비교육을 거절하셨다. 그분은 천연계를 통한 새로운 방법과 수단으로 성경을 이해하시고 또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연구할 때에 말씀 자체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학문적인 성서해석에 의존하거나 교회의 권위로 제정된 원칙과 유전들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의 학설과 이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할 수 없다. 철학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지식의 보고를 열어젖히고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 학설과 이단을 교회 안에 끌어들인 것은 바로 이러한 설명이다. 사람들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성경절을 해석하기 위하여 몹시 애를 써 왔으나 이러한 그들의 노력은 오히려 저희가 밝히려고 하는 성경절을 더욱 모호하게 만든 일이 너무도 많았다.”(실물, 110)

오늘날 마지막 세대들도 이와 같은 위험 속에 처해 있다. 인간의 지혜와 교회의 권위로 제정된 이론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기에 가능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고 윌리엄 밀러도 그랬다. 세상 끝에도 그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쟁투, 595)

본 편집자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어떤 인간적인 이론이나 교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셋과 둘, 둘과 셋 / 힘 있는 천사들”이란 표제의 작은 책을 편집하였다.

셋과 둘, 둘과 셋, 곧 누가복음 12장 51-5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소개되고 있는 한 집안 다섯 식구의 불화와 분쟁을 소재로 하고,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가 외치는 기별과 접목하여 이 책의 표제로 정하였다. 예수님의 비유와 계시록의 예언을 접목하여 현대진리로 승화시켜 보았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역시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적용하여 현대진리의 토대를 확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비유와 예언을 현대진리와 함께 연계하여 연구하는 일은 일반적인 사고개념을 깨뜨리는 새로운 시도가 될는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먼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시도가 어떤 새로운 진리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진리의 토대를 더욱 든든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열심과 방법으로 말씀을 연구해보자. 오래된 누룩에는 생명력이 없듯이 무관심과 이론화 되어버린 지식(말씀)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편집자는 일반화 되어버린 예수님의 비유와 상징, 표적들을 계시 및 예언들과 접목하여 현대진리로 승화(昇華)시켜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합 2:3)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으나, 생각보다 주님의 재림은 너무 지체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재림성도들이라면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을 역시 비유와 표적에서 그리고 예언에서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방법과 시도가 혹시 독자들의 마음에 공감을 얻지 못할는지 모르겠으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펴놓는다.

옛 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친구약 성경과 예언의 신은 진귀한 보화로 가득 찬 보고(寶庫)와 같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구약과 신약, 예언의 신의 모든 말씀들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현대진리로 승화되어 나타나야 보배가 될 것이다. 율법과 복음, 표상과 비유, 역사와 예언들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보화들이 모두 하나로 꿰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보배가 아니겠는가? 구약의 옛 진리들이 신약의 아름다운 복음과 조화를 이루고 예언의 신에서 전개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 곧 구속의 경륜이라는 실로 꿰어져 모든 말씀이 조화되어 현대진리로 나타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배일 것이다.

아무쪼록 육천년간 진행되어온 구속의 계획을 종결하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현대진리를 연구해 보자. 진실과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책을 접하는 모든 재림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린다.

**편집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신 29:29)

## 제1장

# 다섯 식구 한 가족의 분쟁

성경과 예언의 신에는 구속사업을 마침에 있어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천사들은 모두 힘 있는 천사들로 소개하고 있으며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로 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와 음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의 손길을 빌려 성경 마지막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제 이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비유의 말씀을 접목하여 새롭게 현대진리를 증거해 보고자 한다.

4복음서의 저자 중에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매우 의미심장한 비유를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돌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눅 12:51-53)

예수님께서서는 다섯 식구가 있는 한 집안을 소재로 삼으셔서 당신의 사명이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오셨음을 말씀하셨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딸, 분명 다섯 식구이다. 그런데 셋과 돌, 돌과 셋이 나뉘어 불화와 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신 비유이다. 왜 셋과 돌이 나뉘어졌으며, 왜 사랑해야 할 한 집안 식구가 분쟁하는가? 셋은 누구며 둘은 누구인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읽은 사람들 중에는 셋과 둘, 둘과 셋에 관한 숫자에 관하여 한번쯤은 의구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셋과 둘, 둘과 셋을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단순히 신앙생활에 따르는 불화와 분쟁만을 설명하시기 위한 비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셋과 둘, 둘과 셋, 분명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숫자이거나 큰 진리를 풀어주는 암호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다면,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가 아니겠는가!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오בות하게 살아가야 할 다섯 식구가 사랑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있는 이 가족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한 집안의 다섯 식구는 분쟁의 대상자들이 아니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약 셋과 둘, 둘과 셋의 비밀 암호가 풀리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이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바로 불화와 분쟁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요 11:52)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한 집에 다섯 식구, 셋과 둘, 둘과 셋의 비유는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시키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기록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셋과 둘, 둘과 셋의 다섯 식구의 비밀을 연구해보자.

## 한 집안 다섯 식구

“기록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성취되기 위하여 모두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한 집안 다섯 식구를 찾아가 그들을 연합시키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비유 가운데 나오는 셋과 둘, 둘과 셋, 한 집안 다섯 식구를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다섯 식구 중 우선적으로 세 식구를 먼저 찾아보기로 하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공중을 날아가는 것으로 표상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발견하게 된다. 이 기별은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기별 중에서 가장 엄숙한 기별들이다. 그러나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하늘 천사들의 음성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성을 통하여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은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들로 상징된다.

“나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경험을 맛볼 수 있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임으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없다.”(2기별, 387)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다섯 식구 중 세 식구를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에게 적용하여 보자. 조금은 비약적인 적용이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과거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역사에서 수많은 불화와 분쟁이 교회와 가정에서 발생했던 역사를 기억할 것이다. 그런 불화와 분쟁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연합된 백성들이 바로 오늘날 재림성도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성도들은 나라와 족속이 다르고 백성과 방언과 피부가 달라도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혈육으로 맺어진 어떤 형제들보다도 차원이 다른 더 긴밀한 가족애를 느끼게 한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진리가 모두를 한 가족처럼 연합시켜 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다섯 식구 중 세 식구는 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태어난 재림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결코 무리한 적용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은 단정하지 말고 나머지 두 식구를 찾아보자.

요한은 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의 계시를 본 이후, 이어서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계시를 계시록 18장에서 보았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계 18:1)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초기, 277)

요한은 셋째 천사의 계시를 본 이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계시록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또한 화잇 선지자도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계시를 기록하였다. 두 선지자는 똑같은 내용의 계시를 보신 것이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동떨어진 기별이 아니라 연관성이 있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독자들은 계시록 18장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기를 바란다. 예리한 영적 안목을 가진 성경 탐구자라면, 계시록 18장에서 한 천사가 아닌 두 천사에 의하여 기별이 전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 천사에 의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된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계 18:2)

다른 천사(1절)가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기별을 외치고 있다. 마치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과 유사한 기별을 외치는 천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 둘째 천사는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

“천사들[계 18:4]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초기, 277 [편집자주])

이 문단은 앞에서 인용한 문단(계 18:2) 후에 나오는 계시로서, 성경절(계 18:4)이 직접 인용되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앞 문단에서는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힘센 천사가 날아오는 장면을 보았고, 지금 인용하는 문단에서는 셋째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내려왔던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또 일단의 천사들이 날아오는 장면

을 보고 있다. 이 천사들이 날아왔을 때,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라는 음성이 발해졌다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계시록 18장 천사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이 두 선지자(요한과 화잇)의 말씀으로 명확해진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들을 자세히 읽고 연구한다면, 이처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사 28:23; 34:16)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에 유의한다면, 분명 계시록 18장에서 두 천사의 음성(기별)을 발견하게 된다.

특별히 화잇 선지자는 셋째 천사와 계시록 18장 천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에서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에서 두 천사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곧 이 땅에서의 구속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다섯 천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에 언급된 두 천사는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계시록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들이기에 그렇다.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51-53절에 언급된 한 집안의 다섯 식구의 구성원을 완성시켜보자.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 의한 세 식구와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에 의한 두 식구를 합하면 비유 가운데 나오는 셋과 둘, 둘과 셋, 한 집안 다섯 식구가 완성된다.

이들이 한 집안임을 부인하지 못한다. 모두는 동일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 같이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며, 다 같이 예수 재림을 고대하는 무리들이기에 분명 한 집안일 수밖에 없다.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내려왔기에 분명 한 집안의 한 식구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으나,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화와 분쟁의 요소가 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예언이 너무나도 적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다섯 식구가 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다섯 식구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연구해 보자.

이제부터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와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2절의 천사는 넷째 천사로,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라고 외치는 다른 음성(4절)은 다섯째 천사로 구분하여 부르기로 약속하자.

이제는 이 약속에 의하여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 이어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넷째, 다섯째 천사로 순번지어 부르기로 하겠다. 다시 정리해보면, 넷째는 셋째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내려왔고, 다섯째는 넷째를 돕기 위하여 날아왔다. 그렇다면, 다섯 천사는 화목하고 사랑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 계시록 18장 천사가 사업을 시작함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뜻미지근해진 당신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힘센 천사, 곧 계시록 18장 천사들을 내려 보내셨음을 깨닫게 된다. 1888년을 기점으로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으로 화잇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다.

당시 E. J. 와그너와 A. T. 존스 목사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화잇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계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1기별, 362 [편집자주])

계시록 18장 천사로 묘사된 기별자인 E. J. 와그너와 A. T. 존스 목사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계 18장 천사의 기별)은 당시 재림교회에 큰 불화와 분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때로부터 1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도 이 주제는 교회의 안팎에서 불화와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리하여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51-53절의 비유에 나오는 한 집안의 셋과 둘, 둘과 셋의 불화와 분쟁이 있으리라는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

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세 식구들과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믿는 형제들이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과 불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다섯 식구의 불화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마지막 다섯 천사의 기별과 예언을 가리키는 비유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눅 12:52, 53)

셋과 둘은 연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기별을 받아들여 능력과 힘을 얻어야한다는 말이다. 그때에 이 땅에는 늦은 비가 내릴 것이며 큰 소리로 그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 땅을 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중대한 연구주제는 계시록 18장 천사들과 연합하는

	<b>계 18:1</b>	<b>초기문집 277</b>
<b>성구</b>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b>해설</b>	셋째 천사 이후 다른 천사(넷째 천사)가 내려옴	넷째(힘센)천사가 셋째 천사와 연합하기 위해 내려옴
	<b>계 18:4</b>	<b>초기문집 277</b>
<b>성구</b>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b>해설</b>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외치는 천사(넷째)가 아닌 다른 천사(다섯째)의 음성임	천사들(다섯째 천사들)이 힘센 천사(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 내려옴
<b>결론</b>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내려왔고 다섯째 천사는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다. 세 천사(셋)와 두 천사(둘)의 협력으로 구속사업이 마치게 된다.	

일이다.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이다.”(리뷰, 1889. 11. 5.)

## 말씀의 적용

단순한 예수님의 비유에서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천사들과 연계시켜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비약적인 적용이며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아닌가? 라고 혹자는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서문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날 인간들의 과학은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약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과학자들에 의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납을 이용하여 금을 만들고, 숯 껍질이 탄소를 이용하여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냄새 나는 메탄가스, 알코올과 같은 가스를 합성 융합하여 다이아몬드 및 다양한 보석들을 모두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융합기술이야말로 참으로 비약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에 의한 산물들이다.

이처럼 인간의 과학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비약적인 생각(영감)과 정교한 기술(끼워 맞춤; 융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오늘날 4차 산업(반도체)의 기술혁명을 이룩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가공할 힘을 가진 핵폭탄도 바로 이 융합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물며, 영이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융합시키고 접목하여 귀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연구가 왜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와 그분이 친히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을 융합하고 접목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일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성경을 신약과 융합시키고 접목하는 일에 실패한 백성들이다. 그 결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모두 묵은 누룩이 되어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았다.

현대 이스라엘에게는 구약과 신약, 거기에 더하여 대언의 영, 곧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시대야말로 구약과 신약, 예언의 신의 말씀을 융합하고 접목하는 연구가 비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율법과 복음, 표상과 상징, 역사와 예언, 비유와 실체들이 모두 융합되어 현대진리를 증거하는데 활용해야 할 의무가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주어졌다고 믿는다.

인간들은 보잘 것 없는 물질들을 융합시키고 접목시켜 놀라운 기기들을 만들고 가공할 힘을 가진 핵폭탄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창조의 능력과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융합시키고 접목하여 죽음의 잠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려는 시도를 왜 하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계 14, 18장 천사)의 예언과 접목하여 증거하는 일을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라고 가볍게 취급해 버릴 것인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기록하셨거나, 친히 말씀하셨고, 친히 계시하셨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이다. 그러므로 말씀들을 융합하고 접목시켜 연구한다면, 당연히 옛 계명은 새 계명으로, 옛 진리는 현대진리의 빛으로 새롭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있다.

문제는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몇몇 학자들과 목회자들의 말만 의존하는 것이며, 목회자들은 명목상의 신자들의 취향을 맞추기 위해 성경상의 명료하고 중요한 진리들을 연구하여 가르치지 않고, 깊은 물이 아닌 얇은 개울물에서만 마시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금은 비약적인 적용과 끼워 맞추기와 같은 느낌이 들는지 모르나,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사 28:10) 겸손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성경 66권이 모두 새롭게 되어 능력 있는 현대진리의 빛을 깨닫게 되리라 확신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되는 말씀 연구에 참여한다면, 분명 마지막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힘 있는 현대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는다.

## 1) 첫 번째 불화와 분쟁

불화와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선악과를 먹기 전 에덴동산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죄를 짓자마자 불화가 생겨났다. 하와를 사랑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선악과를 함께 먹었던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라고 대답했다. 아담은 여자가 유혹해서 먹었다고 대답했다. 아내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내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정신이 아담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무엇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평화를 사라지게 하고 불화를 가져왔는가?

“죄는 불화를 가져왔으며 …”(부조, 58)

죄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불화를 가져왔으나, 마귀 사단과는 화평이 이루어졌다. 죄는 하나님과는 불화하게 하지만, 사단과는 화평을 이루게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과 사단과의 화평을 깨뜨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죄는 하나님과는 불화하게 하지만, 사단과는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죄인들과 사단과의 평화를 깨뜨리셔야 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업의 일부였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 10:34)고 하셨다. 평화의 왕자 되시는 그는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리뷰, 1900.1.16.)

셋과 둘, 둘과 셋, 다섯 식구의 불화와 분쟁의 원인도 역시 죄 때문이다.

## 첫째 천사의 기별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불화를 끝내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째 천사의 기별과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깨닫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도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첫째 천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기별(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로 나타났었다. 먼저 성경말씀을 읽어보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6, 7)

첫째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중심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었고 임박한 심판의 시간과 함께 모든 인생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음성을 외치고 있다. 이 첫째 천사의 역사적인 성취는 1844년 당시에 정점을 이루었던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그 예언은 성취되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1833-1844년)은 다니엘 8장 14절의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단 8:14)는 말씀에서 성소의 정결을 실제적인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일어난 세계적인 재림운동을 말한다. 윌리엄 밀러는 2,300주야의 모든 기간적 예언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역사들을 확인하면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3월 22일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영원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 기별을 받아들인 영혼들의 마음과 생애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관심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초기, 232, 233)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죽는 사람이 임종시에 몇 시간 동안 세상 사물을 초월하여 명상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았다.”(쟁투, 373)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천사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천사의 기별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만약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는다면, 알고 있는 죄를 하나라도 용납하고 있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하는 그의 공언이 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소망, 555, 556)

1844년 당시 이들의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일과 심령의 순결을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던 것이다.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은 순결한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죄를 찾을 수는 없는가? 혹시라도 부정직하게 살아온 생애는 없으며 이웃들과의 거래관계는 깨끗한가? 만약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를 숨겨두고 있다면 아직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침례를 받은 지가 수십 년이 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아직도 첫째 천사의 기별도 받은 자가 아니다. 오늘도 공중을 날아가고 있는 첫째 천사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천사의 경험이 없는 영혼들은 사단의 공격의 표적이 될 것이며, 죄의 투쟁에서 승리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과연 나는 첫째 천사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 한다.

## 영원한 복음을 경험하라!

1844년 3월 22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별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경험은 모든 재림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경험이었다. 1844년 당시 재림성도들의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그때 당시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들의 감동적인 호소는 일반 강단에서 전해지는 평화와 안전을 보증하는 설교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증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확신을 가져다주었다. 신앙인이라고 공언하던 사람들이 거짓된 안일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 속화(俗化), 불신, 자존심, 이기심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하늘에 두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그들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하였다. … 어디서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 사람들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우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였다.” (쟁투, 369)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죄인들의 마음은 움직였고, 영원한 복음은 죄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회개를 불러 일으켰다. 영원한 복음의 능력은 통회와 자복으로 나타난 것이다.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은 어떤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와 자복, 죄에 대한 혐오와 증오심은 얼마나 간절한가? “만물보다 거저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렘 17:9) 자신의 마음임을 깨닫고 마음의 청결과 순결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죄에 대한 혐오와 증오심이 없는 회개와 마음의 청결과 순결을 갈망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복음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은 복음들이 마치 영원한 복음인양 전해지고 있으

며, 진정한 마음의 통회와 자복이 없이 구원의 기쁨만을 주려는 복음이 세상에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가 전한 영원한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다. 이 복음이 첫째 천사가 전하는 핵심 기별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기별임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는 물론이요 현재도 마찬가지다. 첫째 천사는 지금도 공중을 날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첫째, 둘째]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초기, 256 [편집자주])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그 기별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그 기별들을 받아들여야 한다.”**(초기, 188)

“나는 세 단계로 되어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에 일점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始終)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초기, 258)

마지막 선지자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을 말하고 있는가? 구원 얻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경험인 것이다.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기 때문이다.

## 확실한 증언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잠 28:13). 이런 행위는 복음의 능력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무기력하며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딤후 1:15).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히 하지 아니한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정로, 37, 38)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피난처로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실물, 158)

“변명으로 우리의 죄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요일 1:9). 당신의 율법에 공의로우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미 7:18).”(보훈, 116)

## 죄를 가리어주지 않음

“완전한 복종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없으므로 저들은 영혼 안에 화평과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무엇임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저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며 저들은 하늘 왕국에 접근한 듯이 보이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거의 구원받을 뻔했다는 말은 거의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1기별, 399, 400)

“우리 모두가 죄와 범법 행위를 떠나서 하늘의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수 있으나, 그분의 의는 약간의 악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씻어 정결케 하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 열려진 샘이 있으며 모든 흠을 거기서 정결케 할 수 있다.”(영문시조, 1889. 7. 29.)

## 죄 있는 상태로 구원하지 않으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구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영께서 마음가운데 거하시면 죄가 마음에 있을 수가 없다.”(리뷰, 1886. 3. 16.)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전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소망, 311)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요일 5:18)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죄에서 떠나라도록 구원하고자 돌아가셨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자아를 부정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길의 잘못을 버려야 한다.”(4증언, 251)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 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소망, 313)

## 경건한 두려움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계 14:7)는 기별이 들어 있다. 그 이유로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고 천사는 외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은 다시금 강조하여 말하지만, 경험이 요구되는 기별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대를 일컬어 겁이 없는 세대라고 말한다.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말이 나온 동기는 건방지고 안하무인격이며, 그리고 예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오늘날 마지막 세대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오늘날 사회적 도덕성의 가치는 땅에 떨어졌고, 어른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과 예의는 고사하고라도 이미 수많은 가정

들에서는 아버지와 가장으로서의 위치마저도 그 자격을 파탄당한지 벌써 오래되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딤후 3:1, 2)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범죄하기에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쟁투, 436)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 준다.”(쟁투, 435)

지금 하늘에서 우리들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법정에서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비록 세상 법정이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두렵고 엄숙하여 피고인은 물론이요, 모든 참관인들조차 압도당한다. 검사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호, 재판장의 선고 등 피고인에게는 어느 한 마디 흘려버릴 수 없는 엄숙하고도 두려운 말들일 것이다. 그리고 법정에서 있는 피고인은 한 마디의 말과 행동, 표정, 옷차림, 얼굴 모습 등 어느 것 하나 경솔히 하지 못할 것은 그것은 피고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야 할 피고가 짙은 화장과 익살스런 유행의 옷차림으로 출석한다면, 그리고 함부로 농담 섞인 말투로 대답한다면, 판사로부터 어찌 자비의 선고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1844년부터 하늘 법정에는 피고인 자리에 우리들의 이름이 적힌 소송사건이 계류 중임을 재림성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의에 의하여 우리의 생애들은 조사 받고 있으며 한 마디의 말과 행동은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밖에 없는 것처럼 조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다면,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첫째 천사는 이 엄숙한 사실을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다.

“1844년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하셨다.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이 엄숙한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대한가! 우리들 각자의 심판 문제는 하늘 법정에서 미결 상태에 놓여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

아야 한다.”(1기별, 125)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심판은 얼마동안 계속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시기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라고 하신다. 그대가 그대의 사업 차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척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가 가사에 종사하고 있을 때,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를 척량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대의 말과 행동이 하늘 책에 사진으로 찍히고 있음을 기억하라 …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굳게 서는 사람은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원고 4, 1888년)

## 10년 후에 재림하시는 기별임

윌리엄 밀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힘있게 전파하기 시작한 시기는 1833년 그가 속해있던 침례교회로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음으로써이다. 그전부터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미 전해지고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밀러의 개인적인 노력과 사업이었던 반면, 1833년부터는 그 기별이 교회적이며 조직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10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10년밖에 남아있지 않은 세상에 어떤 소망과 야망을 가질 것인가? 그러므로 이 기별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애의 계획과 목적과 동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하였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세상에 대한 모든 애정은 사라졌다. 이제 10년 후에는 세상은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들의 마음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도 권세에 대한 욕망도 모두 사라졌다. 쾌락도 그들에게는 별로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고 세상의 명예도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다. 모든 사업

과 경영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삶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었다. 10년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었기 때문이다. 재림성도들이여, 첫째 천사의 기별은 10년 후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이었음을 기억하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영혼들은 마치 세상이 10년 밖에는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영혼들은 아직 첫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의 재림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첫째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경험은 우리들의 필수적인 경험이 되어야 한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약 4:4)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

## 불화와 분쟁이 일어남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기별은 비록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정하는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섭리, 곧 모든 목적은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비유, 다섯 식구의 불화와 분쟁의 비유에서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마르틴 루터의 개혁운동을 필두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개신교회들에게 많은 불화와 분쟁(눅 12:51-53)을 유발하게 되었다.

윌리엄 밀러를 통하여 전해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과 연합하여 타락의 길로 가고 있던 당시의 교회들에게는 매우 못마땅한 기별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자들은 그 기별 속에 들어있는 하

나님의 큰 섭리를 깨달을 수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연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고 진리로 인해 고민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에, 첫째 천사의 재림운동에서 다만 시기를 정하는 오류만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일은 잘못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 기별자들의 실수가 간과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초기, 246)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계획과 섭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마땅히 준비해야 할 마음의 순결과 정결, 곧 회개의 경험을 말한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언적 사건을 해석하는 일에 생긴 과오를 간과하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분은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 데 생긴 과오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 두셨다. 그리하여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던 자들은 이 과오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시기를 반대하는 최고의 학자들도 역시 그것을 들추어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낙망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셨다.”(초기, 235)

그들은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중보사업,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임재하시는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진실한 백성들은 엄청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이야말로 오빌의 금을 얻는 경험이었다.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생애를 하여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였다.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그 부모에게로 돌아갔다. 자존심과 장벽은 없어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쟁투, 369)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일에 실패하고 말

았다. 그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일어난 불화와 분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한 경험(철저한 회개)은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 경험을 잃어버리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되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게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등한히 함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리고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앞으로도 여전히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없는 곳마다 불화와 분쟁은 일어날 것이며, 셋과 둘, 둘과 셋, 다섯 식구의 불화와 분쟁의 비유는 첫째 천사의 기별로부터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 2) 두 번째 불화와 분쟁

###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됨

다섯 식구의 두 번째 불화는 1844년 여름에 일어났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연결된 둘째 천사의 재림운동(밤중소리)이 바로 그것이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죄를 회개하기를 거절했던 무리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과 심각한 불화를 가져왔다.

1844년 3월 22일 주님께서 오신다는 윌리엄 밀러의 1차 재림운동은 실망으로 끝날 것 같았으나,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조자들은 다시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는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성의 중건령이 B.C. 457년 봄이 아닌 가을에 내려졌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10월 22일임을 발견한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게 되었고, 다시 재림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확신만큼이나 두 번째 재림운동은 많은 교회들로부터 반대를 받았고 불화와 분쟁은 최고조에 달했다. 급기야 이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교회와 동행할 수 없는 심각한 불화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여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이리하여 누가복음 12장 52절에 예언된 두 번째의 불화는 말씀 그대로 적나라하게 성취되었다.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재림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그 문제에 관하여 일체의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부터 그들은 강단에서 그 문제를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일까지도 금하고, 심지어 교회의 기도회 같은 데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일까지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쟁투, 375)

## 불화의 원인과 결과

불화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는 첫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신 재림의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룻의 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죄와 의, 의인과 죄인들을 구별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었다.

“노아와 룻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부조, 166)

불화의 결과로, 개신교회들은 신실한 무리들을 출교시킴으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고 바벨론이 되었다는 선고를 받게 된다. 이 경고가 둘째 천사가 외치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계 14:8) 라는 기별이었다.

교회는 신실한 백성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보존되는 것인데, 교회가 이들을 배척하고 출교시키는 행위는 곧 영적으로 교회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요, 배도하고 타락하여 무너진 바벨론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실한 교인들을 출교시킨 개신교회들은 둘째 천사에 의하여 무너지는 바벨론의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 밤중소리(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실망으로 끝난 후, 다시 성경연구를 통하여 자신들의 과오가 수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고, 마침내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그 날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844년 10월 22일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로 확신한 그들은 한정되고 짧은 기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의 초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기별을 전파했다. 이들의 믿음과 노력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였었다.

첫째 천사의 재림운동에서는 영광적인 기쁨과 희열 가운데서 재림기별을 전했으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전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주님의 재림의 시기는 그들의 마음을 너무도 엄숙하게 만들었으며, 영광적인 기쁨과 환희에 도취되는 것보다 오히려 엄숙한 두려움과 거룩한 의무감으로 그들은 압도당했다.

“거기에는 영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그들은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께 드렸다.”(쟁투, 400, 401)

“영광적인 환희는 없었다. 그런 일은 미래에 속한 것으로 하늘과 땅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하여질 그 때를 위하여 남겨 두었다. 또한 즐거운 환호성(歡呼聲)도 없었다. 그것 역시 하늘에서 환호성을 올릴 때를 위하여 남겨 두었기 때문이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늘의 찬양대, 곧 천사들의 무리와 연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의견의 충돌이 없었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 있었다.”(쟁투, 401)

불과 3개월 동안에 이 엄숙한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과 열심에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였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도와 짧은 기간 안에 재림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것은 바로 늦은 비의 전형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첫째 천사의 경험은 칭의와 거듭남의 경험으로 비유될 수 있었고, 거기에는 기쁨과 희열이 넘쳤고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가운데 기별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가운데는 그런 기쁨과 희열보다는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는 말씀을 성취시키는 성화의 경험으로 백성들은 인도함을 받았다.

이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의 생애를 경험하였다.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험과 죄와 죄인들에게서 분리된 그들의 거룩한 생애는 오늘날 성화의 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본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서는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성취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 계획은 1844년 이 지구의 마지막 때에 당신의 진실된 백성들을 세상을 사랑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분리시키는 일이었다. 서서히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었다.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것들은 아주 적절한 때에 주어졌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일을 성취시켰다.**”(초기, 245)

“그 때에 나는 조롱당하던 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외치는 한 음성을 들었다. 이 외침에 따라서 수많은 무리가 그들을 두른 줄을 끊어 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무리들을 떠나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과 연합하여 기꺼이 그들의 외침에 동참하였다. …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위를 가리킬 때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자유롭게 풀려 나오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마침내 그들은 그들을 두르고 있던 줄을 끊어 버렸다.”(초기, 242)

진실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세상을 사랑하는 육적인 신자들로부터 분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경영하셨다. 1844년 10월 22일부터 이 세상은 말세가 된 것이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으므로, 그분께서는 계획하신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인임을 큰소리로 선포했으나 거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실패하였다. … 천사들은 **시온의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죄인들과 세상을 사랑하는 위선자들과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초기, 246, 247)

“나는 예수께서 그의 오심을 거절하고 경멸하는 자들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고 천사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정한 자들에게서 이끌어내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초기, 249, 250)

마지막 하나님의 날, 시련의 시기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과 위선자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서는 하나의 **큰 개혁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의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써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三重)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즉시 인자가 와서 땅의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쟁투, 311)

## 미래를 감추심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전하던 기별자들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과연 것처럼 철저한 회개의 경험과 개혁이 백성들에게 일어났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무지를 간과하셨는데, 이것은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이었고, 신실한 무리들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재림의 확신하였으나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초기, 246)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초기, 250)

주님께서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도 하늘에서 마쳐야 할 구속사업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사업이었다.

그러므로 1844년 10월 22일,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보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인 쉼키나가 있는 곳

이다.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였는데, 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과 두 번의 실망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죄와 죄인에게서 분리시켜 “그리스도의 의”, 곧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그들을 끌어 올리셨는데, 왜냐하면,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곳은 죄가 용납되지 않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를 통하여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더욱 큰 능력으로 나타났고 더 큰 범위로 전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로 영원한 복음을 거절한 교회(개신교회)들은 무너져버린 고대 바벨론의 운명과 동일한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영혼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그런 복음은 이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고, 그런 복음을 듣고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다. 개혁운동의 선구자들에 의하여 설립된 개신교회들은, 오직 복음만을 외치고 복음만을 가르친다고 자랑했지만, 그들이 정작 가르치는 복음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론적으로 해박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을 외치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던 자로다”라는 선고밖에 더 들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자신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에게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인간의 무지를 이용하셨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재림의 시기를 정한 저들의 실수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믿음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당신을 믿는 진실된 백성들을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1844년 10월 22일을 기다리는 진실된 백성들의 생애는 세상의 사물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였다. 어떤 젊은이들은 돌씩 돌씩 손을 잡고 숲속이나 한적한 곳을 찾았고, 잠시 후 그들은 눈물 젖은 눈으로 새 친구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모두는 나쁜 감정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아침까지 갖고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서운 전염병으로 죽는 일도, 젊은이들이 폐결핵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도, 이별도, 슬픔도, 고통도, 이제 3개월 후가 되면 모두가 끝이 날 것이었다. 무서운 혹한 추위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이었기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계획도 미련도 걱정도 그들은 초월할 수 있었다.

1844년 10월 14일 재림기별을 전하던 찰스 핏치(초기문집 17; 화잇 부인의 계시 속에 만난 인물임)는 과로로 인하여 숨졌으나 유족들은 슬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 주일 후면 다시 만날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상인들은 조용히 상점의 문을 닫았고 3개월 후면 만나 뵈올 만왕의 왕을 뵈옵기 위하여 사업을 그만둔다는 안내문을 써 붙였고, 기술자들은 주인과 상사들을 찾아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빚진 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재산들을 정리하였고 채권자들과 부자들은 형제들의 빚들을 탕감해주었으며 빚을 갚을 수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는 형제들의 빚을 대신 갚아 주는 유무상통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다.

농부들은 감자를 추수하는 일을 포기하였고 오히려 토지를 팔아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인쇄물을 제작하고 주의 오심을 전하고 알리는데 헌신하였다. 급기야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으니 가지고 오지 말라는 광고가 나왔으며 뒤늦게 돈을 가지고 왔던 어떤 형제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저축할 수 없어 안타깝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1844년 10월 22일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전도지들은 낙엽과 같이 길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고 인쇄기들은 재림을 알리는 전도지를 인쇄하느라 밤낮을 쉬지 않고 돌아갔다. 재림을 알리는 신문들에는 '나에게 피해를 입은 자

는 저를 찾아 달라’는 기사들이 실렸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다.

드디어 1844년 10월 19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숨 쉴 여유도 없이 밤낮으로 돌아가던 인채기들은 멈추어 섰고 수많은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워졌던 천막도 거두어졌으며 기별자와 청중들은 마지막으로 각자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헤어졌다. 이제 3일 후에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모두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기별은 전해졌고 모든 준비는 끝났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계 22:11)는 선고는 내려졌다.

이와 같은 경험이 바로 1844년 10월 22일 재림을 기다리던 성도들의 경험이었다. 그렇다면, 2018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 재림성도들의 경험들은 어떤가? 오늘날 재림성도들은 참으로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거의 재림성도들보다 못한 경험을 가지고도 하늘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가? 아니다.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혹시 형제들 사이에 나쁜 감정들이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에 남아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대한 애정과 야심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재물을 사랑하여 부당한 방법과 양심을 잠재우는 일은 없는지?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들은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재물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져 있어야 하며 언제 어느 때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주저 없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안식일에도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한 번의 저항도 해보지 않은 채 굴복해 버리는 젊은이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도 한마디의 경고도 하지 못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이 모든 것은 둘째 천사의 경험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현실이 아닌가?

## 세상과 자신을 포기하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 이 말씀보다 더 완전한 자아 포기를 묘사한 말씀은 있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리고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再現)되어야 한다.”(소망, 416, 417).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라. 자아는 죽어야 한다. 육신적 욕망과 거둬나지 못한 마음의 성향은 굴복되어야 한다.’”(1증언, 508).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에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실물, 159).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그들은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막연하게 저희의 결함을 시인하나 그 죄를 낱알이 구별하여 버리지는 않는다.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된다.”(실물, 48).

둘째 천사는 지금도 공중을 날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세상과 자아포기가 없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운명과 같이 되고 말 것이라는 기별이 바로 둘째 천사의 외침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악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이며, 모든 부정한 곳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것이다. 지금도 둘째 천사는 하늘을 날아가면서 기별을 외치고 있다.

##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1844년 당시 재림성도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결과로 큰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려는 그분의 계획에 의한 결과였다. 그 결과로 성취된 것은 저들이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철저한 회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했던, 저들이 속했던 죄와 타락한 교회들로부터 분리됨으로 거룩함의 성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나는 지상에 사는 백성들에게 경고와 기별을 되풀이해서 보내사 그들이 마음을 깊이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여 이교 시대와 법왕 시대를 거쳐 전통적으로 내려온 과오에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 때문임을 보았다.”(초기, 250)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초기, 246)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잘못된 과오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을 시험해 보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언적 기간을 계산하는데 생긴 과오를 당신의 손으로 덮어 두셨다.”고 초기문집 235쪽에 기록하고 있다. 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계획하셨을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1844년 당시 기별자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 것처럼 1844년 성소의 정결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졌겠는가? 그들에게서 것처럼 철저한 회개의 경험과 죄와 죄인에게서 분리되는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정결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믿었기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문집 246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초기, 246)

이리하여 하늘 성소의 정결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 땅에는 마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 한두 명이 아니라 한 백성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인 2,300주야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단 8:14)는 예언의 성취를 보았던 것이다. 그 결과, 드디어 죄와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곳에는 거룩한 법궤와 거룩한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들은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로운 백성이 된 것이다.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끌어올리셨던 것이다.”(초기, 250)

## 지성소의 문을 여심

“그분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셨다.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그리로 들어가셨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던 자들은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실수했으나 하나님 편에서의 실수는 없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 성취되었으나 인간은 이 지구가 예언된 기간이 끝날 때 정결케 될 성소라고 오해했던 것이다. 무너진 것은 인간의 기대였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었다.”(초기, 250-251)

주님께서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아직도 하늘에서 마쳐야 할 사업이 있으셨다.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고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므로 1844년 10월 22일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고 실망하고 있을 때,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이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셨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알려주었던 것처럼,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은 백성들보다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성소의 문은 닫으시고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그곳으로 들어가셨을까? 초기문집 253쪽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록

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초기, 254)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지상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가 어떤 곳 인지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비가 있었으며,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고, 또 두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숭경하는 자세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 등불이 없었으나 죄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쉼키나의 광채가 그곳에 임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는 결코 죄가 용납되지 않는 곳이다. 만약 죄 있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쉼키나의 영광은 죄인을 소멸시켜 버리는 곳이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들어가신 것이다. 문제는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연 지성소의 영광 앞에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며, 엄숙한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한다. 주님께서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이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소멸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 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초기, 254-255)

“셋째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로 향하게 하였으며 과거의 기별들에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리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초기, 256)

하나님께서서는 지성소의 영광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계획하셨다. 이들이 바로 십사만사천인들이다. 지성소의 영광, 곧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을 예언의 신에서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이라고 한 것이다. 이들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들인 것이다(계 14:4). 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재림성도들이 바로 십사만사천인의 후보자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지성소의 영광 앞에 살아남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 곧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인 것이다.

### 3개월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10년 후에 오신다는 기별이었다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3개월 후에 오신다는 기별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1844년 3월 22일에서 10월 22일로 수정되어 7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으나, 예언들을 다시 검토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미 4개월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은 세상, 3개월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면 독자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1844년 당시에는 3개월 후에 세상이 끝이 난다고 믿고 그렇게 생애하였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자세로 생애해야 한다. 참으로 재림성도들이라면, 마치 3개월 후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자들일 것이다.

### 3) 세 번째 불화와 분쟁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두 번 모두 큰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사랑하는 교회와 결별하면서까지 재림운동에 전념했던 신실한 백성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극심한 실망을 경험해야 하였다. 잠시 과거 재림선구자들의 경험들을 되돌아보자.

1844년 10월 22일 자정이 지났으나, 기다리던 주님께서 오시지 않자, 통곡과 눈물로 밤을 지새운 하이람 에드슨은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어 실망한 동료들을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가시지 않은 슬픔을 달래기 위하여 그가 동쪽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하이람 에드슨 형제의 경험은 암담했던 당시의 실망한 형제들의 마음을 반전시켜 희망과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새로운 용감의 발상은 그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보고를 발견하게 해주었다. 언제든지 진리의 전진을 향한 첫걸음에는 항상 이와 같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자들이 있었다. 매 시대마다 이런 자들에 의하여 현대진리는 나타나 공개되었다. 그들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하늘 성소의 진리와 2,300주야의 예언을 접목하여 다시 예언을 연구함으로써, 경이로운 셋째 천사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일반 개신교회들 안에는 성경지식에 해박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지금도 하늘 성소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오늘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것은 이전에 주어졌던 복음의 기별들에만 안주한 채, 때를 따라 새롭게 주시는 진리의 빛을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제 하늘 성소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상에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는 하늘 성소, 곧 첫째 칸의 봉사를 마치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지성소에서 대속죄일의 봉사를 시작하시는 날이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 재림선구자들은 새로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고, 실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으며 과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기쁨이 충만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그 실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큰 슬픔을 안은 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말았다. 두 번 다시 과거와 같은 실망을 당하는 일을 그들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나기까지 왜 불화와 분쟁이 없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극복하지 못한 채, 본래 나왔던 교회들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역사를 보게 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선두에 있었던 윌리엄 밀러까지도 더 이상 실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전진하는 빛에서 물러서고 말았다. 이처럼 새로운 빛이 올 때마다 불화와 분쟁은 일어났고 슬픔과 기쁨은 교차되었다. 그때의 불화와 분쟁의 역사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때 나는 윌리엄 밀러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는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대한 걱정과 번민으로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 1844년 당시에는 사랑으로 연합하였던 무리들이 이제 서로간의 사랑을 잃고 서로 적대시하며 냉담하여져서 배도할 형편에까지 전락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보고 슬픔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혹시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빛에 의지하려 할 때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돌리려는 계획을 세웠다. 인간적인 영향력이 그를 암흑 가운데 붙들어 매어 놓았으므로 그의 영향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에만 국한되었다. 마침내 윌리엄 밀러는 하늘의 빛을 거부하였다. 그는 그의 실망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의 과거를 빛과 영광으로 비춰주며 그의 침체된 용기를 다시 북돋아 주고 밝은 소망을 약속해 주는 동시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줄 기별을 받아들이는 데 실패하였다. 그는 하나님 대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였다. 그러나 주의 사업에 바친 정열적인 노력으로 쇠하여지고 또 늙었으므로 그를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 자들만큼

책임은 그에게 없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죄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초기, 257)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감화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초기, 258)

윌리엄 밀러는 격렬한 불화와 분쟁으로 인하여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미 노쇠하였고 새로운 빛을 반대하는 자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그 육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러므로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연로한 그 종을 쉬게 하셨고(1849년),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아! 얼마나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으신가!

##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관한 진리의 발견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고 또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빛이 되었으며,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운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된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 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 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쟁투, 488)

“성소 문제는 1844년의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줌으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 주었다.”(쟁투, 423)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리뷰, 1883. 11. 27.)

##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단연코 하나님의 율법, 곧 넷째 계명인 제 칠일 안식일에 대한 회복사업이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성경상 가장 큰 진리이다. 이 큰 진리를 위하여 셋째 천사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다. 하늘 성소의 정결, 지성소의 문이 열림 등이 넷째 계명의 회복과 아울러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성만큼이나 셋째 천사가 외치는 경고도 또한 비례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계 14:9-11)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경고 중에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기별을 전하고 있다. 이토록 두렵고 무서운 기별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며 밤낮 쉬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외치면서 셋째 천사는 공중을 날아가고 있다.

## 선과 악의 대쟁투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인가? 이제 이것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서 판가름나야 할 문제이다. 셋째 천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사단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불완전을 전제로 변경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부조, 69)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 기만이 될 것이다.”(소망, 763)

사단은 불법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이 되는 넷째 계명인 제 칠일 안식일 대신에 그 자리에 자신이 만든 첫째 날인 일요일을 세웠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는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고 변경된 하나님의 계명을 공개하면서 안식일 회복의 사명을 가지고 내려왔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사단이 만든 거짓 안식일을 고집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 기별의 핵심

셋째 천사는 경고의 기별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불법의 세력에 의해 짓밟혀온 진리의 회복과 아울러 새로운 진리들을 공개하여 보여주었다. 하늘 성소의 열린 문을 통하여 구속의 경륜과 구원의 진리들이 새롭게 재조명되어 나타났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닫힌 문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 진리로 인해 시험을 받을 때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계가 있는 하늘 지성소 문이 열려져 있을 때임을 보았다. 이 문은 1844년에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친 후에 비로소 열렸다. 그 때 예수께서 일어나사 성소의 문을 닫으신 후 지성소의 문을 여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초기, 42)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 나는 이 기별의 시종(始終)을 다시 살펴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초기, 258, 259)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전의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해력이 둔하여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증보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초기, 260, 261)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와 지성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지성소에서 증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증보의 은택을 입지 못할 것이다.

## 지성소의 믿음

지성소는 죄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하나의 죄라도 그곳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며 지성소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 된다.

지성소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지성소의 백성들의 믿음은 완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믿는 믿음,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나쁜 습관들을 극복할 수 없다는 믿음은 지성소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다. 지성소에 합당한 믿음은 무엇인지 허락의 말씀들을 읽어보자.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교육, 125)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 완전한 생애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정하시고 불신실하시다는 모욕을 그분께 쏟아놓는 사람들이다.”(원고, 147)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소망, 123)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 짓는 일을 그친다는 뜻이다.”(리뷰, 1900. 10. 25.)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총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예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소망, 671)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지성소의 믿음이 요구된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이며 허락이시다.

## 완전한 진리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지성소의 기별이며, 지성소의 핵심은 십계명이며, 십계명의 핵심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2,300주야까지 불법의 세력에 의하여 짓밟힌 율법의 회복에 중심을 두어야 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 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아!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아홉 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리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초기, 255)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1844년 전까지는 닫혀 있었던 거룩한 장소였으나, 이제는 그 문이 열렸으며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언약궤의 뚜껑이 열리고 그 속에 있는 십계명이 공개되고 하나님의 영광(품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닳아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초기, 256)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감추어 놓으신 새로운 기별은 없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이며, 율법과 복음이 지성소에서 모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기란 불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중보의 은택을 받지 못한다면 완전한 품성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는 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될 것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완전한 품성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완전한 품성을 가지고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셋째 천사는 외치고 있는 것이다.

## 예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 그분의 모든 생애에는 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는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믿음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다.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예견하시고 “나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라고 부르짖으셨으나,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 미래를 염려하여 작은 시험들에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은 예수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 거룩하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하였을 때, 그분의 입술에는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고통 중에서 기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이요 품성이셨다.

하늘에는 생명수의 강이 있었으나, 그는 한 잔의 물을 마실 수 없어 인간의 동정을 바라며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쓸개를 탄 포도주만이 주어졌다. 인간들이 베푼 최대의 자비였으나 그분은 그것을 마실

수 없었다. 쓸개 탄 포도주는 갈증과 고통을 제해 줄 수 있었으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였기에 마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정신이 흐려진다면 자칫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구실로 부절제하는 자들이여,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자. 건강을 핑계하며 고기를 탐하는 자들이여,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 피를 물같이 쏟으심으로 기진하시면서도 부정함 음료를 거절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는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초기, 254)

재림성도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싸우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십자가의 군병 들임을 잊지 말자. 머지않아 우리는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해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야 할 것이다.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자.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5증언, 147)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소망, 123)

## 안식일 준수 의 개혁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준수함에 있어서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하며 우리의 마음은 그 날에 대한 숭경심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하고 신성하다. 사단은 바로 이 거룩한 율법 중 넷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들을 시험할 것이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그 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아!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 보았다.”(초기, 255)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초기, 254)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비록 생명과 생계가 위협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계 13:15-17)라는 말씀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은 개인이 아닌 모두가 생계의 방도가 끊어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는 습관과 충성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짓밟힌 안식일의 깃발을 높이 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모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6증언, 352)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일시적 이익을 위하여 감히 전능하신 분과 타협하는 것은 가장 참람된 일이다. 때때로 안식일을 세속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범법이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편의상의 문제로 삼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시나산에서 우레와 같이 울려 나온다. 부분적 순종, 분리된 관심은,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에게 가납될 수 없다.”(4증언, 249)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는 그분의 백성들이 이 난처한 전쟁에 가담할 수 없음을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모든 신앙상 원칙에 반대되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그들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동시에 상관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거기에는 계속적으로 양심을 어기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1증언, 361)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육받도록 허용하고 안식일을 평범한 날로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인이 그들에게 쳐질 수 없다.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피에 대한 책임이 부모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교권, 269)

부분적인 안식일 준수, 군대에서 또는 자녀들을 안식일에 등교시키는 행위 등은 모두 말씀에 의하여 정죄를 받는다. 특히 안식일을 위한 예비일의 준비는 곧 안식일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일에 결정적인 것이 될 것이다. 예비일에 안식일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일과 안식일에 입을 깨끗한 의복을 준비하는 일과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는 일과 일몰시간에 맞추어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을 환영하고 환송하는 시간을 갖는 일은 필수적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섯째 날에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기를 게을리 하는 사람들과 안식일에 요리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자들이다.”(영적 선물 3권, 253)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출 16:23)

“금요일에 안식일 준비가 완료되게 하라. 모든 의복이 준비되고, 모든 요리가 마쳐졌는가 확인하라. 신발은 닦아 놓고, 목욕을 하라.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규칙으로 삼으면 할 수 있다. 안식일에 옷을 수선하거나, 음식을 요리하거나, 쾌락을 구하거나, 기타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 것이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세상 일을 제쳐 놓고, 세속적인 모든 신문, 잡지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라. 부모들이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준비와 그 목적을 설명하고, 그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준비를 하는 데 참여하게 하라.”(6증언, 355)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보다 안식일은 훨씬 더 신성하다. 주님께서는 문자로나 정신으로나 간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지나치게 욕을 당하셨다.”(6증언, 353)

“많은 공언하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식일은 훨씬 더 신성하다. 안식일을 의문이나 정신면에 있어서 계명에 따라 지키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크게 수치를 받아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의 개혁을 요구하신다.”(교권, 263)

“안식일을 주 앞에서 거룩히 지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삼상 2:30)리라.”(6증언, 356)

이처럼 넷째 계명을 문자적으로 순종해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요, 머지않아 우리들이 직면할 선악의 대쟁투에서 이 넷째 계명이 계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는 어찌하겠느냐”(렘 12:5) 그러므로 은혜가 풍성할 때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자.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쟁투, 605)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요구에 지나치게 까다롭지 않으시다는 것과, 것처럼 큰 손실을 당하면서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거나 그들이 국가의 법과 상치되는 곳에 놓이는 것이 그들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요구보다 더욱 존중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하는 시험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과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을 구분해 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충성심을 입증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신 역사는 그분께서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교권, 268)

셋째 천사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보여주고 또한 주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시며 특별히 빛나는 넷째 계명을 보여주신 목적을 모두는 이해해야 한다. 안식일이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궐 속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항아리가 있었다(히 9:3, 4). 만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천사들이 준비한 떡이었다(부조, 297). 인간들에게는 먹는 음식이 항상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그랬고 각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먹는 문제로 실족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셨다(출 16:4, 5).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거두어 항아리에 담아 지성소 법궐 안에 간수하게 하셨다(출 16:33, 34).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금항아리에 넣어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궐 속에 보관하게 하셨을까? 보관하는 이유는 훗날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훈을 주기 위해 기념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금항아리 속에 보관하였던 만나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궐 안에 보관했던 만나항아리와 두 돌비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만나항아리를 하늘 성소에서 보게 된 것이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싣은 언약궐이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히 9:3-4)

그렇다면, 아론을 시켜 만나를 보관토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나항아리가 성소 첫째 칸이 아닌 둘째 칸 지성소에 법궐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자 지성소의 문이 언제 열렸는가? 2,300주야의 끝, 곧 1844년 10월 22일부터이다. 셋째 천사가 지성소의 열린 문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만나항아리를 법궐, 곧 지성소에 보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실제적인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만나항아리는 보관되었던 것이다. 엄숙한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이 먹을 음식들에 관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금식을 해야했다. 만약 그 날 금식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면치 못했다. “그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

성 중에서 끊쳐지리라”(레 23:29). 오늘날 실제적인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음식들에 관한 특별한 기별을 가지고 있다. 곧 절제 기별이다. 만나 향아리가 두 돌비와 함께 있었던 것은 지성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절제 기별이 율법과 같이 중요한 기별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만나인 절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게 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이 만나를 통하여 율법을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였던 것과 같다. 또한 절제 기별은 고대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기별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 그 날에 금식하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졌다.

대속죄일의 엄숙한 날을 살아가는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은 왜 부정한 음식과 육식을 금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금식한 것은 공연히 자신을 괴롭히는 자해행위가 아니요, 금식함으로 정신을 맑게 하여 깊은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우리들의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다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자.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금식은 모든 자극성 음식류를 금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하신 건강에 좋고 단순한 음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음식, 188)

“나는 건강 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일부이며, 마치 팔과 손이 인간의 육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큰 사업에서 전진해야 할 것을 보았다.”(1증언, 486)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가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건강 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일부라는 말씀은 그 절제 기별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을 핑계 삼아 육식을 즐기고 탐식하는 자들의 운명은 무엇인가? 그 영혼에게는 분명히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식욕의 지배적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음이 입증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점에서 승리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사단의 다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할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육천년간에 걸친 인간의 계속적인 범죄는 그 열매로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가져왔다. 우리가 마지막에 접근할수록 식욕의

방종에 대한 사단의 유혹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고, 승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3증언, 491)

“육식하는 문제에 관하여 지금 절반쯤만 개심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갈 것이다.”(음식, 382)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건강 개혁에 대한 큰 빛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요구를 순종하고, 그분의 소유인 우리의 육체와 정신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 없이 설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보았다.”(1증언, 488)

“승천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을 알아야 한다. … 그들은 언제나 식욕을 도덕적 지성적 능력에 굴복시켜야 한다.”(1증언, 486-487)

“건강개혁의 원칙들을 실천함으로 자제력을 길러 정신과 신앙에 도움이 되는 힘을 찾아낼 것이다.”(부모, 293)

“식사 습관이 사람의 건강과 품성, 이 세상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에 참으로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충분히 각성하고 있는 자들은 여전히 별로 없다.”(1증언, 488-489)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살전 5:23).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여 부절제를 용납한다면, 그는 품성 건설에 실패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엄숙한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재림성도들에게 이 건강기별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기별이며 반드시 순종해야 할 기별이다. 만약 불순종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말 것이다.

## 거룩한 설교단

신성하고 거룩한 단 위에 아직도 고기를 먹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만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다음의 말씀을 읽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자. 지금은 엄숙한 대속죄일임을 기억하자.

“일찍이 인간에게 주어진 진리 중에 가장 엄숙한 진리를 선포하는 복음교역자 된 자가 애굽의 고기 가마로 돌아가게 하는 데 모범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오는 십일조의 녹을 먹는 자들이 스스로 자기 방중에 빠져서 저희 혈관을 흐르는 생명의 흐름을 해치게 할 것인가?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빛과 경고를 무시할 것인가? 신체의 건강은 은혜 가운데서 성장과 침착한 기질의 획득에 요긴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일 위장을 적절히 돌보지 아니한다면 정직하고 도덕적인 품성은 방해를 받을 것이다.”(교권, 236)

“우리 목사들 중의 아무 사람도 육식함으로 나쁜 모본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목사들과 그 가족들은 건강 개혁의 빛에 따라서 살도록 하라. 우리 목사들은 자신의 체질과 자녀들의 체질을 동물화 시키지 않도록 하라.”(음식, 399)

“육식이 차려진 식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먹는 목사들을 우리가 신임할 수 있을까? …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 … 을 삼가 지키’(신 6:17)라. 건강 법칙을 범하는 사람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입을 것이다.”(음식, 402)

“절제 문제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앞장을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교육을 받은 교인들과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신 빛을 거의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한다.”(3보감, 358)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건강개혁의 원칙들을 알려 줄 사역자들을 교회에 파송하라.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위한 사업에 참가하도록 모든 사람을 격려하라. 그런 다음에 이 교회들에게 생명의 호흡이 속히 되돌아오지 않는지 보라.”(구호, 124)

## 아론의 싹 난 지팡이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론의 싹 난 지팡이의 내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사건을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 역사를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모세에 대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였다.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칭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였으며,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하여 일어났던 사건이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백성들 앞에 밝히셨다. 각 지파대로 족장들의 지팡이 열둘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소, 곧 지성소 증거궤 앞에 두었다. 그 이튿날 지팡이들을 내어본즉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있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다시금 지성소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던 것이다(민 17:10 참조).

하나님께서 이 반역 사건이 종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이 지팡이를 지성소에 보관토록 하신 것은 분명 목적이 있으셨으므로 우리들의 연구 주제가 되는 것이다.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그 이후 한 번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이 지금까지 그 지팡이는 하늘 지성소에 보관되어 온 것이다. 히브리서 9장 3, 4절을 볼 때 확실하다.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지성소시대 곧 실제적인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지팡이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백성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육제도를 볼 때 그렇다. 형식과 외식, 그리고 학위제도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지도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바벨론(천주교)으로부터 유래된 학위제도와 자격제도에 의해서만이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 철저한 지식과 이론을 중시하는 학위제도로는 결코 올바른 영적 지도자를 만들어 낼 수 없다. 경쟁을 유발하고 남보다 높아져야 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 위주의 학위나 자격제도는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들은 소경처럼 되고 말았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참된 자격은 품성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되어야 하고 모든 학교교육은 세상에 인정받기 위한 교육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성을 배우는 그런 학교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배틀크릭의 대학이 … 지적이고 도덕적인 문화의 높은 표준에 이르기를 계획하신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힘을 배양하는 일의 중요성을 배워야 하며, 그리하여 높은 학문적 성취에만 도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며, 균형 잡힌 품성을 개발함으로써 세상에서의 유용성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불멸의 생을 위한 도덕적 적합성을 얻게 되도록 할 것이다.”(4증언, 425)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참된 영적 지도자를 길러낼 수 없다. 옛날 유대인의 경험은 우리들의 경고가 될 것이다.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행 22:3)고 말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가 받은 신학교육이 자신을 하나님의 참된 영적 지도자로 만들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였다. 형식과 외식으로 치우친 그들의 교육제도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랍비교육을 외면하셨던 것이다.

“유대인 교사들은 의식에 대한 문제들에 그들의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마음은 배우는 자에게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욱 높은 학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그런 요소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어지는 경험은 그 교육 제도에 그 자취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외양적인 것들에 열중한 학생들은 하나님과 조용히 보낼 시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찾는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것이 무시를 당하였다. 율법의 원칙들은 모호해졌다. 탁월한 교육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참된 향상에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소망, 69)

그때의 교육과 오늘날 교회들이 추구하는 교육과는 너무도 흡사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 현재의 교육 방법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지 결코 하늘나라를 위한 품성교육을 시키는 곳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교육이 학위제도와 형식위주로 흘러가는 동안은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다시금 당신의 지성소에 보관하신 아론의 싹 난 지팡이를 통하여 이 시대의 참된 지도자가 누구인지 판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하여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하늘 지성소에 보관된 것이다.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자,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선포될 것이다.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어야 할 때가 오면 주님께서서는 마음이 경비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 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쟁투, 606)

“하나님께서서는 완전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능히 쓸 수 있으시며, 또 그러한 사람을 쓰실 것이다.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며, 전능하신 자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신임치 않는 조바심이 적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능력을 사용치 못하게 하며, 그 길을 막아 성령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못하게 한다.”(복음, 488)

아론의 짝 난 지팡이는 오늘날 잘못된 신학 제도와 학위제도를 예견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보관하여 두신 것이다.

## 영혼의 닳 - 견고한 토대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닳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초기, 256)

오늘날 이 세상에는 사단이 창안한 많은 오류들이 편만해 있다. 진리를 모방하여 만들어진 많은 오류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없고 셋째 천사의 경험 속에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은 육천년 동안 계속되어 온 율법 전쟁의 일부분이다. 다음의 말씀을 보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하였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려 하였다.”(초기, 256)

“대기만자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오류, 곧 그가 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미와 적성에 맞도록 준비한 여러 가지 이단설을 전하는 많은 부하들을 가지고 있다”(쟁투, 520)

“사단은 속임수를 써서 천사들을 유혹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기만을 가지고 그는 각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 중에서 그의 사업을 추진시켜 왔으며, 세상 끝까지 이 정책을 쓸 것이다. 만일 그가 공공연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공언한다면 사람들이 그를 경계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변장하고, 진리에 오류를 뒤섞는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거짓은 진리와 혼합되어 있는 거짓이다. 영혼을 사로잡고 파멸시키는 오류는 이렇게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 방법으로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다.”(부조, 338)

이와 같은 사단의 기만적인 오류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는가?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경험한 자들만이 이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이 기별들은(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닦이 된다고 하였다.”(초기 256).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둘째 천사의 기별로 죄에서 돌이켜 변화된 생애를 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므로 진리의 닦에 굳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미혹하는 기별도 이런 사람들은 미혹하지 못할 것이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은 결코 자만이나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하는 진실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음의 말씀을 보라.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HP, 227(1891).”(사건, 74)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그 기별 자체의 기초 위에서 있으므로 시기가 그것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초기, 75)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시기를 정하는 것보다 더 강한 능력의 기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경험은 우리들의 신앙에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정한 셋째 천사들이다. 과연 나는 이와 같은 경험 속에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견고한 토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 대속죄일은 하루

고대 이스라엘의 표상적 대속죄일은 하루였다. 실제적인 대속죄일도 하루임을 기억해야 한다. 1844년 10월 22일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흐를지 모르나 사실은 하루이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이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하며 내일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라고 믿고 사는 것이 대속죄일의 믿음일 것이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재림의 날은 10년 후였고, 둘째 천사가 전하는 재림의 시기는 3개월 후였으며, 셋째 천사가 전하는 재림의 날은 바로 내일인 것이다.

“주님께 속한 매주 매월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내일은 아직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오늘 하루뿐이다.”(리뷰, 1885. 1. 6.)

“그대는 현재, 오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일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오늘 그대는 자신을 이기는 승리를 유지해야 한다. 오늘 그대는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 오늘 그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오늘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를 축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SDA 선교약사, 142)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와 같이 그들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상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런 준비도 갖추어 놓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직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다.”(5증언, 200)

“우리는 하루 동안만 살고 있다. 오늘 우리의 신조에 충실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오늘 원수의 유혹을 저항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승리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매일을 마치 이 지구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원고 11, 1885년; 하늘에서, 355)

## 4) 네 번째 불화와 분쟁

서두에 이미 언급하였듯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를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넷째와 다섯째 천사로 각각 구별하여 부르기로 약속하였다.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넷째 천사’라는 단어를 볼 수 없지만, 혼란을 피하고 다른 천사들과 구별하기 위해 순번을 붙여 넷째 천사로 부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과 18장에는 여러 천사들이 언급되기 때문이다. 마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으나 세 분의 하나님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에도 본래 순번이 없지만, 편의상 첫째 둘째 등 순번을 매겨 말한다. 것처럼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에 이어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두 천사들 또한 설명하기 위하여 편의상 넷째와 다섯째 천사로 부르게 됨을 이해하기 바란다.

### 넷째 천사의 기별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계 18:2, 3)

넷째 천사가 외치는 경고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과 거의 동일하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계 14:8)고 외치고 있다.

넷째 천사가 둘째 천사와 다른 점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말씀이 더 첨가되어 있

다. 이와 같은 경고의 기별은 처음부터 타락하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배도한 바벨론 교회를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하던 교회들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새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기별이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 더욱이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쟁투, 382)

왜 순수하던 교회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가? 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세속적인 것은 교회 안에 도입되지 말아야 하며, 교회와 결혼하여 하나로 굳게 결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부패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목사, 265)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할 때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에베소교회가 그러하였고 빌라델비아 시대의 교회들도 그랬다. 그러므로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듣게 된 것이다. 오늘날 라오디게아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넷째)의 경고의 기별은 라오디게아교회를 위시한 모든 교회들,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거민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기별과 함께 항상 구원의 기별도 함께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에는 영원한 복음이 동반하였고 넷째 천사에 의한 경고의 기별에도 큰 능력과 영광을 가진 복음이 함께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 넷째 천사가 내려옴

1888년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서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 총회는 재림교회의 신기원이 될 수 있는 총회였다. 왜냐하면, 계시록 18장 천사인 넷째 천사가 라오디게아교회의 사자들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해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네

아폴리스 총회가 여느 총회와 달리 특이했던 점은 E. J. 와그너와 A. T. 존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그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인 화잇 부인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계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1기별, 362 [편집자주])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목사, 91)

1888년 총회에서의 두 기별자인 E. J. 와그너와 A. T. 존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외칠 때,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 [넷째 천사; 편집자주]의 빛의 시작”이라고 선언하심으로 넷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기원의 해로 제시하셨다.

## 1888년 교회의 위험

1844년 이후 재림교회는 일반 개신교회들이 알지 못했던 2,300주야와 성소 정결, 하늘 성소의 실체를 발견함과 동시에 지성소의 문이 열림,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 속에 있는 두 돌판, 돌판에 새겨진 안식일 계명의 발견 등 율법에 관련된 많은 빛을 보게 되었고, 그 중요성에 대하여 크게 심취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크게 높이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한편 율법과 쌍벽을 이루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간과되고 등한시 되고 있었다. 매 안식일 설교의 주제는 단연 율법이었고 신자들에게는 오직 율법의 중요성만 자주 강조되었다.

그 결과, 마치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여하에 달린 것처럼 백성들은 인식하게 되었다. 마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구원)가 아니라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해하게 되었다. 어찌면 이론

적으로는 완벽한 진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다.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믿음과 행함으로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다면 창조주는 피조물에 대하여 의무 아래 놓이게 된다. 여기서 거짓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기회가 주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하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 카톨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원은 품삯처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채무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선한 행위 중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구원은 오로지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받은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완전히 값없는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자신의 선한 행실 안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공로로는 자신을 영생으로 이끌 수 없다는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모든 논쟁은 끝이 난다.**”(믿음, 19)

1888년 당시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믿음보다는 행위를 의존하게 되었다. 십자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는 간과된 채 설교단에서는 율법이 강조되었고 순종을 강요하는 설교와 가르침만을 듣게 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교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 버렸다.”(리뷰, 1889. 8. 13.)

“우리의 현세와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그렇게도 요긴한 이 주제[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사람은 백 명 중에 한 사람도 없다.”(리뷰, 1889. 9. 3. [편집자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참 상태에 관한 사실은 그들의 고백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있으며, 어떤 세력이 영원한 반석에 매달려 있는 닻줄을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은 항해 도표도 나침반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준다.”(리뷰, 1888. 7. 24.)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구원)의 기별은 생명력이 없는 한낱 이론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나 행위로 마쳐야 하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넷째 천사를 통하여 경고의 기별, 곧 바벨론이 될 위험성을 알리

는 경고의 기별을 듣게 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시야에서 잃어버리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길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부패하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목사, 265)라는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 1888년 교회의 상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결코 새로운 기별이 될 수 없다. 이 복음은 태초부터 공개되었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별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새롭게 외쳐져야 할 상황이 되었던 것에는 유의해야 한다.

넷째 천사(계 18:2, 3)가 내려와야 하는 이유는 일곱째 교회의 영적 상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곧 라오디게아교회의 상태를 보게 되면, 넷째 천사(계 18:2, 3)의 필연성을 이해하게 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 3:15, 1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잃어버린 교회, 율법(행위)에 치우쳐 지쳐버린 뜨뜻미지근하게 된 교회, 마침내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의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또 다른 천사, 곧 넷째 천사가 내려와야 하였다. 그 치료제로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이 주어진 것이다. 곧 1888년, E. J. 와그너와 A. T. 존스, 두 젊은 종들을 통하여 보내신 칭의의 기별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 3:18)

“A. T. 존스와 E. 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원고 24, 1892년)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계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1기별, 362 [편집자주])

이처럼 1888년 A. T. 존스와 E. 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시는 참된 증인의 기별이었으며, 그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통하여 라오디게아교회의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

## 기별이 거절당함

1888년, 불행하게도 교회는 넷째 천사를 상징하는 두 기별자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였다. A. T. 존스와 E. J. 와그너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시작이요, 온 땅을 환하게 할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었다. 그러나 당시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다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의해 기별이 거절되었던 슬픈 역사가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 J. 와그너]와 [A. 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한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하였으며**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1기별, 234, 235)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마 23:34).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자들을 취급하는 일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말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신 이들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인가? 이 두려운 예고의 말씀을 그들은 아직 완전히 성취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미네아폴리스 집회

전후로 그들의 행동을 특징지었던 동일한 정신을 품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정죄했던 이들의 행위를 온전히 본받게 될 것이다. 말세의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 ...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해야 할 특별한 기별을 위탁하신 사람들에게 대해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사단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고, 유대인들처럼 미움과 질투, 그리고 악한 추측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책임있는 지위들을 차지해 왔으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모습을 좇아 사업을 끝 지어 왔다.”(목사, 79, 80)

“나는 결코 부드러운 기별을 전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사자들을 거절한다면, **그대는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다.**”(목사, 97)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의 심각성은 총회장과 대표자들의 숙소에서까지 비방과 희롱이 난무하였으며 화잇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풍자화되고 조롱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비방은 화잇 선지자에게까지 미쳤으며 화잇 여사가 약간 망령이 들어 와그너와 존스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화잇 여사는 한 통신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의 증거가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나의 평생에 이와 같은 대우를 받기는 이 총회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다.”(운명의 운동, 프롬저, pp. 249, 250).

이처럼 영감의 붓으로 기록되어 있는 라오디게아교회의 슬픈 역사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이 치욕스런 역사를 하늘 기록책에서 지워져야 하리라고 믿는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 3:19)는 말씀은 아직도 유효하다.

## 불화와 분쟁, 흔들림

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불화와 분쟁, 흔들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증언은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한 백성들(다섯 식구) 사이에 분리가 조장되는 원인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 시대에 마지막 교회 안에서 이처럼 많은 독립단체들이 발생하고 교단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선교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흔들림의 원인을 찾아보면, 하나같이 1888년에 증거된 “믿음

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 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 일으킬 것인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초기, 270)

불화와 분쟁, 흔들림의 원인과 결과가 바로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고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재림교단 안팎에서 1888년 기별(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 증거되는 곳마다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고 흔들림을 감지하게 된다.

모두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다섯 식구에서 셋(계 14장 세 천사)과 둘(계 18장 두 천사)의 분쟁이요 불화인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눅 12:52)라는 예언이 이처럼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는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이 예언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 넷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1888년 이후 재림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행하게도 1888년 총회 당시 E. J. 와그너와 A. T. 존스, 두 형제의 설교들은 기록물로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설교 내용들과 리부지와 시조(영문)에 게재되었던 원고들, 서신들을 뜻있는 사람들이 수집하여 인쇄물과 책들을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더 중요한 사실은 1888년 이후 화잇 선지자가 기록한 증언의 말씀(저서)에서 가장 완벽하고 오류가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발견할 수 있다. 『시대의 소망』, 『실물교훈』, 『정로의 계단』, 『산상보훈』, 『가려뽑은 기별 1권』, 『믿음과 행함』 등에서 주옥과 같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넷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복음)이 처음 듣는 기별이 아니요, 새로운 빛도 아니었다고 선지자께서 증언하셨다.

“E. J. 와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새 빛이 아니다.**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 빛이다.”(3기별, 168)

그렇지만, 마치 생전 처음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처럼 충격적으로 심령에 감동을 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별이었다. 그러나 1888년 당시 기별을 거절하였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벌써부터 이 기별을 깨닫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기별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과소평가하였고 어떤 감명도 받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참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화잇 선지자는 그때의 경험과 간증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와그너 형제가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 개념들을 끌어내었을 때에 그것은 나와 내 남편 사이에 대화를 제외하고는 그 주제에 대하여 내가 들었던 어느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최초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나는 혼자서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제시하여 주셨기 때문이요, 그들(반대하는 형제들)은 나처럼 그것을 제시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제시하였을 때에 나의 심장의 모든 섬유질마다 아멘이라고 말하였다.”(원고 5, 1889년)

화잇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던 기별이었지만, 다른 사자(넷째 천사)들을 통하여 그 기별을 들었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나머지 자신의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 하였다는 엄청난 간증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기별을 거절했던 사람들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잘 알고 있다는 말로 태연자약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선지자처럼 1888년의 기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심장이 뛰고 모든 세포가 아멘 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누구든지 넷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 믿음의 실상

넷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새로운 기별은 아니지만 새롭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아야 한다. 그때에 화잇 선지자처럼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면, 마치 하늘로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으로 다가올 것이다. 1888년 기별자였던 A. T. 존스가 리뷰 앤드 헤랄드지에 게재했던 글을 읽어보면,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또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는 바를 스스로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그 말씀한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그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다. ...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들어 있으므로 그 말씀에서 말씀하는 일을 창조할 수 있으며 믿음은 말씀 자체가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오직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이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리뷰, 1898. 12. 27.)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 만물을 존재하도록 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말씀만을 하시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재창조가 되는 구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워 의의 말씀을 하시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의 말씀은 창조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나 구속하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다.”(리뷰, 1899. 1. 17.)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가져다주는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길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때에 그 의미하는 바’이다.”(리뷰, 1899. 1. 31.)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 말씀이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화잇 선지자도 이와 같은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하신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살전 2:13)으로 받는 자들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우는 자이다. 그는 그 말씀을 인해 떨게 될 것인데 이는 그 말씀이 그에게 생생한 현실(現實)이 되기 때문이다.”(실물, 59)

“그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물, 곧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그대 속에 가지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주린 심령으로 성경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그대의 영혼의 거룩함과 의는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도록 하라.”(영문시조, 1895. 9. 5; 말씀과 능력, 21)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이룰 것이라는 믿음만 배운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할 것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약속하신 바를 말씀이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살전 5:23; 벰전 5:10)는 말씀을 믿는다면, 왜 온전하게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며 어렵다고만 말할 것인가? 말씀하신 분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말씀이 말씀하신 바를 이룬다는 믿음을 배우도록 하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약속[말씀]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번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번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히 6:17, 18 [편집자주])

## 셋째 천사를 돕는 천사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초기, 277)

넷째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는 천사임을 기억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높은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 증언의 말씀에도 최고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만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게 된다. 또한 단호한 결심으로 높은 표준을 향해 매진하라고 권고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이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신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실물, 330)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실물, 331)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확고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앞을 헤치고 나아가게 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의 표준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그 표준에 도달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흑암과 죄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하여 진리의 표준은 너무도 빈번히 낮아졌다.”(1증언, 248)

셋째 천사는 힘센 천사였으나, 그 기별을 받은 백성들이 힘과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넷째 천사의 도움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셋째 천사들로 상징되는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 3:15-16)라고 참된 증인은 증거하고 있다. 마지막 선지자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열성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관심하고 냉담해져 있다는 것은 숙연하고 두려운 일이다. 세속적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과를 구분하는 선은 거의 분별할 수 없다. 한때 열렬했던 많은 재림신자들이 세상과 일치되어 있다. 곧 세상의 습관과 그 풍습과, 그 이기심과 일치되어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세상을 지도하는 대신에 교회가 불법을 통하여 세상과 점점 더 가까이 연합하고 있다. 날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변해 가고 있다.”(8증언, 118)

“하늘의 교사께서는 이렇게 물으셨다: ‘사실상 그대들이 세상의 정책을 따라 많은 일들을 하므로 여호와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그대들이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우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대들의 업적을 받아 주신다고 가장하는 것보다 마음을 속일 수 있는 더 강력한 기만이 있겠는가? 한때 진리를 안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영과 능력으로 오해할 때, 그들이 사실은 모든 것에 궁핍하면서도 부자라 부요하다고 생각할 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아, 큰 기만, 매혹적인 미혹이다.’ … 철저한 회개가 없는 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므로 그들의 마음을 경비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8증언, 249, 250)

넷째 천사는 이처럼 미지근하게 된 백성(셋째 천사)들을 위하여 어찌면 창세전에 이미 준비된 천사라는 심증이 든다. 왜냐하면, 구속의 경륜은 영원 전에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이다. 넷째 천사가 전하는 힘 있는 복음을 겸손하게 연구하여 큰 능력과 힘을 얻도록 하자.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표준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넷째 천사를 통하여 오직 말씀만을 믿고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워야 한다. 그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 5) 다섯 번째 불화와 분쟁

‘다섯째 천사’라는 말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물론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지만,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으며, 이후에 계시록 18장에 또 두 천사가 내려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넷째와 다섯째 천사로 각각 이름을 붙여 부르기로 하였다.

### 다섯째 천사의 음성

계시록 18장에서 두 천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2-3절과 4-5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첫째 음성** :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계 18:2, 3)

**둘째 음성** :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계 18:4, 5)

계시록 18장 2절의 음성과 계시록 18장 4절의 음성이 같은 천사가 말하는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2절과 4절은 서로 다른 천사의 음성이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의 천사들을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로 호칭하는 일을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자. 진실로 심각한 문제는 재림성도들이 계시록 18장 천

사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고 지식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연구해보기로 하자.

## 화잇 선지자의 계시

화잇 선지자도 요한처럼 계시록 18장 천사에 관한 계시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요한의 계시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넷째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이 천사가 발하는 빛이 세상 곳곳을 비쳤으며 동시에 그는 크고 힘센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계18:2절)’라고 외쳤다.”(초기, 277 [편집자주])

이 계시에서 선지자는 다른 힘센 천사(넷째)가 지상으로 내려와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장면을 보았고, 그 천사에 의하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는 음성이 발하여지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 내려온 힘센 천사를 ‘넷째 천사’라고 불렀다. 화잇 선지자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은 계시를 보았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취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넷째]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초기, 277 [편집자주])

화잇 선지자는 계속되는 계시에서 힘센 천사(넷째)를 돕기 위하여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단의 천사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넷째(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온 천사들을 ‘다섯째 천사’** 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다. 그 천사들(다섯째)에 의하여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

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는 음성이 발하여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와 함께 다섯 천사의 기별을 이 마지막 세대의 백성들은 모두 듣게 된다.

## 계시록 18장 천사의 오해

어떤 이들은 깊은 연구도 없이 계시록 18장 천사는 ‘늦은 비’라고 결론지어 버린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천사와 성령은 전혀 다른 개체이며 사명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천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자(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으며, ‘늦은 비’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을 종결짓기 위해 임재하실 성령을 일컫는 비유와 상징이다.

“그분은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다.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 복음을 힘 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화잇주석, 계 14:6-12; 편지 79, 1900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외침은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천사들)의 외침인 것이다. 늦은 비(성령)와 천사를 구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며 천사들에 의하여 시작된 사업은 성령으로 완성되고 마치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늦은 비]으로 되느니라”(속 4:6 [편집자주])

그러므로 첫째에서 다섯째 천사는 이 땅에서 기별을 받고 전하는 백성(천사)들을 상징하고 있으며 다섯째 천사(백성)가 외치는 큰 음성 곧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라는 마지막 큰 외침은 늦은 비를 받은 백성들에 의하여 외쳐지는 음성인 것이다. 그 결과,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는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중보는 끝나고 구속사업은 마쳐진다. 드디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의 추수사업은 종결된다.

“한 천사가 잉크 통(뿔로 만든)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효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하고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던졌다."(초기, 279, 280)

##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

이제 정리해보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명은 셋째 천사와 협력하여 늦은 비를 받기에 합당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명임을 깨닫게 된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이 땅에서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넷째와 다섯째 천사도 역시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현대진리를 전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1888년, E. J. 와그너와 A. T. 존스에 의하여 외쳐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말미암아 이미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확증했다.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1기별, 363; 리뷰, 1892. 11. 22.)

또 이 기별은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고(계 3:18)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며** 그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은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광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화 있을 것이다.”(원고 24, 1892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는 1844년을 전후하여 마지막 때를 알리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전하는 재림성도들의 큰 단체를 말한다. 넷째 천사 곧 힘센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1888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제시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다섯째 천사는 넷째 천사, 곧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로 대표되는 무리들을 상징한다.

## 다섯째 천사

이제 계시록 18장 천사의 두 번째 천사(다섯째)의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넷째 천사의 사명은 화잇 선지자가 생존하셨을 때에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1기별, 363)라고 언급하셨다.

그러나 선지자께서는 다섯째 천사에 관한 사건을 계시로는 보셨으나, 그 예언에 대한 성취에 관련된 말씀은 증언에서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생전에는 아직 그 예언의 시작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천사는 넷째 천사의 기별이 소기의 목적을 이룬 후, 적절한 때에 나타나 넷째 천사와 협력하여 구속사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해 내려온 넷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교회 안에 전해진 이후에 나타날 천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넷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영적 안목이 먼저 요구된다.

“주님께서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넷째 천사]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목사, 91, 92 [편집자주])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었고, 셋째와 넷째 천사에 의하여 역시 복음이 전해졌다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일까?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사실이다. 하늘에서 죄인들에게 전할 기별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라는 복음 외에 다른 기별은 없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 천사도 모두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다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천사들마다 각각 다를 뿐 핵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복음이라는 말이다.

2,300주야가 마쳐지는 때를 즈음하여 재림 때까지 다섯 천사를 통하여 복음사업을 마치시려는 우리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된다. 1844년을 기점으로 세 천사(계 14장)를, 1888년부터는 두 천사(계 18장)를 보내시고자 계획하셨음을 깨닫게 된다. 화잇 선지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자이셨으나, 와그너와 존스의 넷째 천사의 기별을 듣고서 다음과 같이 간증하셨다.

“와그너 형제가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 개념들을 끌어내었을 때에 그것은 나와 내 남편 사이에 대화를 제외하고는 그 주제에 대하여 내가 들었던 어느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최초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이 그것(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을 제시 하였을 때에 나의 심장의 모든 **섬유질마다 아멘이라고** 말하였다.”(원고 5, 1889년; 1설교, 117)

왜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이 1888년 기별자들에 의하여 전해졌을 때, 그녀의 심장이 뛰고 세포들이 아멘으로 경탄했을까? 그것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으며 당대에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복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던 것이다. 마치 메시야의 초림을 고대하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눅 2:29, 30)라고 기뻐했던 경험과 비교된다. 왜 시므온은 평범하게 보이는 아기 예수를 보고 구원을 보았다고 했으며, 화잇 선지자는 이미 알고 있던 복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였다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언에 기초된 믿음, 곧 복음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첫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은 예언에 기초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 다섯째 천사의 복음은 이 세상에 전해질 마지막 복음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첫째에서 다섯째 천사까지는 모두 복음을 받았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에서 셋째 천사까지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던 일반 개신교회들에게 전해졌으며,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복음을 새롭게 전할 때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인 영혼들에게는 큰 기쁨과 희열이 있었고 생애에 큰 변화를 가져온 반면에, 이미 나는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별을 거절한 영혼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버려진 역사를 볼 수 있었다.

이제 다섯째 천사의 존재와 그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무리들이 나타난 것은 다섯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미 다섯째 천사의 발견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희열로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경험을 하는 자들이 있을는지 모른다. 만약 우리가 연구하는 예언이 확실하다면 기쁨과 희열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비의 천사가 내려올 때에 그 기별을 등한히 여기고 경솔하게 취급한다면 처음보다 더 큰 어두움에 처하게 된다. 늦은 비를 받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내려오는 다섯째 천사의 존재를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더 깊은 샘에서 마시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그 때에 비로소 늦은 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다섯째 천사의 등장과 기별로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드린다.

## 복음의 반복

과거에 우리는 안식일의 중요성과 변경된 넷째 계명의 회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사단은 잠자고 있지 않았으며, 한 백성을 율법주의의 함정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외쳐 왔으나 결국 우리는 이슬도 비도 없는 길보아 산과 같이 말라 버리게 되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외쳐야 한다. ...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공로에 의지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야 한다.”**(리뷰, 1890. 3. 11.)

우리 모두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음을 시인해야 한다. 이

런 위험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1888년 이후 우리에게 전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은 구원은 물론이요 성화와 온전함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셋째 천사의 기별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었다는 사실은 물론이요,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도 역시 동일한 복음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 시의적절(時宜適切)한 때

약 30여년전(1982-1983년) 다섯째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깨달음을 말하는 형제들이 나타났다. 그 후 10여년이 지날 즈음 용기있는 형제들이 과감하게 다섯째 천사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인쇄물(1997년)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러나 세상에 공개하기에는 확신이 부족했었다.

그러나 수년전(2013-2014년) 특별한 계기가 생겨 혼란한 중에 이 주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과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드디어 확신으로 굳어지게 되면서 이처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고민과 기도로서 검증의 시간을 보내면서, 드디어 다섯째 천사의 사명과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명감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이 무리들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개혁운동교회에 몸담았던 형제들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또 이 진리를 깨달은 다수의 재림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 일찍이 개혁운동은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그 기별을 토대로 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물론 개혁운동 외에도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 곧 1888년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많은 독립선교단체들이 함께하였고, 이들도 역시 넷째 천사를 상징하는 무리들이라고 믿는다. 이처럼 재림교단 안팎에 존재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전하는 넷째 천사들에 의하여 재림성도들 대부분은 1888년 기별(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론상으로는 대부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동의하게 되었고, 율법과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시점까지 왔다. 그러나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상과 능력은 보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넷째 천사로 자인하던 개혁운동과 1888년 복음을 전하던 교회 안팎의 독립선교단체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처해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1888복음기별을 중심으로 전했던 개혁운동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내홍(內訌)을 겪고 있으며, 형식과 외적 경건에 치우치고 있을 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독립선교단체들은 어떠한가?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넷째 천사의 기별)를 전하던 거의 대부분의 독립선교단체들이 지금은 와해되거나 아니면 뜨뜻미지근하게 되든지 아니면 각종 미혹을 받아 오류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다.

이때야말로 넷째 천사를 돕는 천사들(다섯째; 계 18:4)이 나타나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다섯째 천사가 내려와야 할 시의적절(時宜適切)한 때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계시 가운데는 다섯째 천사가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섯째 천사의 사명은 넷째 천사에 의하여 시작된 큰 외침을 이제 그 절정으로 향하여 계속 전진시켜 나가는 것이다. 물론 큰 외침의 절정은 낮은 비(성령)를 받음으로써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다섯째 천사의 존재의 발견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깨닫는 백성이 나타났다면, 이미 다섯째 천사의 사업은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반드시 연구되어야 한다. 누가 이 다섯째 천사의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누가 이 특권을 누릴 것인가?

## 다섯 천사의 연합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계 18:1)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계 18:1) 빛과 영광과 권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며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이 기별이 전하여지는 곳

마다 개심이 뒤따를 것이다. 이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형제들 중에 누가 어떻게 이것을 알 것인가? … 이 빛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뜻뜻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쫓긴 것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리뷰, 1890. 4. 1.)

1888년의 역사적인 사건을 계시록 18장 천사의 예언의 성취로 믿는 자들은 많지 않다. 계시록 18장 천사들에게는 그의 영광, 곧 하나님의 품성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할 의무와 사명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품성은 그의 율법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실물 326)

그러므로 이 땅에 보내어진 마지막 천사들, 곧 계시록 18장 천사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완전한 율법과 복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기별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능력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그때에 비로소 셋째 천사의 완전한 기별에서 하나님의 영광, 품성이 온 땅을 환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셋과 둘은 연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셋과 둘, 둘과 셋이 불화한다면, 어찌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겠는가? 다섯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모두 이해되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구속의 경륜이 마쳐질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째에서 넷째 천사까지 기별이 전해질 때마다 교단적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했던 역사를 보아 왔다. 그러므로 교단(조직)적인 연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참된 연합은 이제 교단적인 조직으로서의 연합이 아니라 현대진리 자체로 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진다. 어느 교회(조직) 어느 단체에 몸을 담고 있든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다면 한 집안 다섯 식구의 구성원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섯 천사의 기별, 현대진리를 깨닫고 화목한 가족을 이루는 자들만이 결국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요, 거절한다면 결국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분쟁하는 식구들이 되어 미련한 처녀들처럼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 현대진리

현대진리가 무엇인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는 이 시대에 전해져야 할 현대진리들이다. 우리는 그의 영광(품성)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기 위하여 첫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독자들이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이야 말로 매 시대마다 현대진리로 전해졌으며 이 시대에도 현대진리로 전해져야 한다.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복음이시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계 14:12)이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의(품성)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품성)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천사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섯째 천사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곧 품성을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깨닫고 있는 모든 영혼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이제 품성의 변화, 곧 그의 영광,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품성변화의 중요성은 어느 시대에나 관심의 주제였으나, 특별히 오늘날 이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과 함께 마지막 재림운동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대변하는 한 백성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사 40:9)는 음성을 발해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은 ...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실물, 415) 만약 우리들이 원하는 멋진 과부처럼(눅 18:3) 그분의 영광, 품성을 닮기를 소망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 실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히 11:1)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하는 멋진 과부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지성소로 올라갈 때, 드디어 하늘에서는 늦은 비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때에 이 땅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계 18:4)라는 큰 외침이 일어날 것이며, 이와 같은 큰 외침에 의하여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구속 사업은 성취될 것이다. 이것은 다섯째 천사들이 경험할 영광스런 특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늦은 비는 준비된 자들에게만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 늦은 비를 위한 준비

늦은 비를 받기에 합당한 품성은 어떤 품성일까? 다섯째 천사의 존재를 이해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품성)에 대한 남다른 깨달음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할 때에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랑(품성)은 시련을 통하여 증명되어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늦은 비는 일요일법령이 내린 이후에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일요일법령으로 증명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늦은 비로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선지자의 글을 참조하여 보자.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어떤 사람도 형제에 대하여 이타적인 사랑을 갖지 않는 한, 그가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 … 특별한 친구들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서로를 칭찬하는 것들은 시련의 시험에 견디지 못할 것인데, 이는 그것이 거룩한 품성이 아니기 때문이다.”(리뷰, 1895. 1. 8.)

“그 때에 땅 위에는 대 환난[일요일법령]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 때에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힘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여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초기, 85 [편집자주])

이제 모든 것은 확실해졌다. 다섯째 천사의 사업과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섯째 천사들로 상징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큰 시련(충성심)을 통과함으로써 증명되어야 하며, 그 때에 늦은 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금홍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실물, 415)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품성(영광)의 중요성은 강조되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다섯째 천사의 소명의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요, 의무로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증거되어야 할 기별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빛, 곧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뜻이기에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낮은 비**] 부어 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실물, 419 [편집자주])

## 예비하신 큰 선물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일은 다섯째 천사들의 가장 큰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 기별을 깨닫는 영혼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의 썩을 육체 속에는 악한 본성들이 숨어있어, 기회만 있으면 각양 탐심을 이루려는 악의 세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아! 나는 언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라고 근심하고 있는 양심적인 영혼들이 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다.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칭의[**구원**]와 우리의 의[**품성**]가 있다.”(부조, 431 [편집자주])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영문시조 1902. 12. 17.)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과 의로움(품성)이 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를 선물로 …”(소망, 565) 주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요 4:10)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또한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큰 선물을 예비하셨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비된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 매우 소중한 기별

우리에게는 온 땅을 그의 영광(품성)으로 환하게 하는 큰 능력과 권세 있는 복음이 주어졌다. 그 복음은 계시록 18장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계 18:1) 1888년, 이 능력 있는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품성]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품성]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 이 기별은 큰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늦은 비]이 수반될 것이다.”(목사, 91-92 [편집자주])

매우 소중한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의, 곧 품성을 받도록 초청하시면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의(품성)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고 제의하셨다. 곧 자신이 계발하신 완전한 품성을 칭의(구원)의 방법으로, 선물(칭의)로 주시겠다는 말씀이

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며 소중한 기별인가!

늦은 비를 반기에 합당한 품성을 선물로 받는다는 복음, 이 기별이야 말로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전파되어야 할 복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말씀이 이해 되기까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말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이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라.

완전한 품성은 우리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라. 구원(영생)과 함께 완전한 품성도 칭의로 얻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인가?

## 값없는 선물

아직도 확신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보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계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롬 3:26)실 수 있으시다.”(소망, 762)

인간 스스로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준비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결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품성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한 품성도 얻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계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여! 어린아이와 같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자! ‘할렐루야!’ ‘아멘!’ 이라고 입으로 시인하자!

완전한 품성,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발하신 품성뿐이며, 이 품성을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 늦은 비가 내려질 것이다. 이 기별이 큰 소리로 전파되면,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늦은 비)이 성취될 것이다.

## 예복은 준비되어 있음

아직도 확신이 부족하다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마 22:1-4)

이 비유에는 두 무리가 구별되어 나타난다. 첫째 무리는 초청장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초청을 보냈으나, 그들은 오기를 거절하고 각자 자신의 일을 보려고 나갔다.

둘째 무리는 초청을 받고 잔치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종들을 만나 그들의 강권함에 의하여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혼인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다. 이제 주인이 나와 혼인자리를 살펴보는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상태로 앉아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 어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마 22:12-14)

그 사람이 왜 유구무언이었는지 의아스런 생각이 든다. 그는 본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었고 잔치에 참여할 목적으로 집을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길을 가다가 종들의 간청에 마지못해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인에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구무언으로 할 말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예복은 주인이 예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실물, 309)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혼인으로써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 되었으며 예복은 혼인 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실물, 307)

이 예복은 무엇인가? 이 예복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을 표상한다. 곧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의 품성(예복)은 손님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예비하였다는 사실이다. 곧 완전한 품성은 우리가 만든 예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진리를 입증해주는 비유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유이며 예증인가? 이 복음이 다섯째 천사가 외쳐야 할 기별이며 복음이다. 이 복음을 받는 자들만이 낮은 비를 받게 될 것이다.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믿음의 도를 더 연구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히 11:1)라는 믿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처럼 연구하고 깨달아야 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삿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롬 4:3-5)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지만, 삿을 주고 의롭다 하시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믿음 자체를 의롭다고 보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도

우편 강도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곧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우편 강도가 무엇을 바라고 믿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실 것과 구원을 바라고 죽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그렇다. 우편 강도의 믿음을 실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실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구원 얻기를 원하는가? 그분이 실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품성이 선물임을 믿는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실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 자체를 실상으로 보신다. 왜냐하면, 믿음을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실 일이기 때문이다. 확실하지 않은가! 다시 한 번 소망의 말씀을 읽어보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계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이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롬 3:26)실 수 있으시다.”(소망, 762)

“그분의 생명이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는 말씀과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는 말씀과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은 허락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반드시 실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계발하신 완전한 품성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 자체를 실상으로 보신다는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믿음(선물)으로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을 보시고 완전하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실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다.

## 친히 이루심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시작되었고, 마침도 그 선물로 마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히 받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친히 실상이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의 도를 깨닫게 되면, 사단의 능력은 무력해질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품성)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하여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복음, 161)

“구속의 계획은 선물로 시작되어 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5증언, 730)

독자들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자. 우리의 믿음을 실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 있는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품성을 계발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 않은가? 그가 친히 시작하셨고 그가 친히 이루실 것이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빌 1:6)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살전 5:23-24)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

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벧전 5:10)

약속의 말씀은 확실하다.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눅 8:50)는 예수의 음성을 기억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빌 4:6) 순종하기만 하라.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결코 인간 편에서의 노력과 행위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분의 하시는 일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순종)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결코 강제로 무엇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요, 우리를 자유의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 순종은 절대적이요 필수적이다. 그러나 품성의 변화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원한 생명과 품성이 모두 값없는 선물이라는 복음이야말로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완전한 복음이다. 다섯째 천사들은 이처럼 복음을 능력 있고 확실하게 영혼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런 사랑의 복음을 깨닫는 심령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때에 풍성한 봄비, 유쾌하게 되는 늦은 비가 준비된 백성들에게 임하여 영광스럽게 구속사업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 후에야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첫째 천사에서 다섯째 천사까지 예언된 복음의 역사와 실상, 경험을 요약하여 보았다. 이 다섯 천사의 기별과 복음에는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을 내포하고 있다. 살아서 승천하기를 고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할 기별임을 기억하자.

## 다섯(셋과 둘) 천사의 기별에 관한 연구

구분	성경 본문	기별자와 핵심 사업	현대 기별	성도들의 경험	참조말씀
<b>첫째 천사</b>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b>그에게 영광을 돌리라</b>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계 14:6, 7)	윌리엄 밀러 (1844.3.22.)  (재림운동)	첫째 천사의 기별  2,300주야  영원한 복음	<b>회개와 자복</b>  <b>교회에 불화와 분쟁 일어남</b>	초기, 232, 233 쟁투, 369
<b>둘째 천사</b>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b>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b>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계 14:8)	윌리엄 밀러 (1844.10.22.)  (재림운동)	둘째 천사의 기별  2,300주야, 무너지는 바벨론 선고	<b>죄와 타락한 교회에서의 분리</b>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밤중소리 경험 <b>불화 분쟁, 흔들림</b>	초기, 249 쟁투, 373 쟁투, 400, 401
<b>셋째 천사</b>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b>집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b>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계 14:9, 10)	엘렌 지 화이트 열린문과 닫힌문 하늘성소 공개 (지성소). 법계, 십계명, 안식일 전파. 조사심판 선포.	셋째 천사의 기별 완전한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안식일) 144,000인 인침 시작됨	<b>믿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b>  율법과 복음의 완전한 진리의 조화  <b>불화 분쟁, 흔들림</b>	초기, 254 쟁투, 433, 435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깨달음 (6증언, 17)  시간 : 대속죄일 장소 : 지성소
<b>넷째 천사</b>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b>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b> …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계 18:1-3)	E. J. 와그너, A. T. 존스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의의 교사  큰 외침의 시작	힘센(넷째) 천사 칭의의 기별  셋째 천사에게 능력과 힘을 주어 돕는 천사  부흥과 개혁 (예수 믿음)	율법주의의 위험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지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함  초기, 277  <b>불화 분쟁, 흔들림</b>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들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목사, 91)
<b>다섯째 천사들</b>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야, 거기서 나와 <b>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b>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지라”(계 18:4, 5)	다른(다섯째) 천사의 음성  내 백성이 거기서 나오라!  그의 영광(품성) 낮은 비  큰 외침의 절정	힘센(넷째) 천사를 돕는 천사  144,000인과 재림과의 연관성  144,000인 구속의 처음 익은 열매 추수(재림)	하나님의 영광(품성) 재현됨 다섯째 천사의 발견과 재림의 임박함을 전파  포도원의 11시 일꾼들. 그리스도의 재림은 1시간 남음.  낮은 비 받음  환란을 통과할 준비 <b>최후 분리와 연합</b>	“세상에 비칠 마지막 …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실물, 415)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실물, 419)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려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라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마 25:5-10)

#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 1) 열 처녀의 비유와 비상사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암 4:12)

다섯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이 천사들이 전하는 기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섯 천사들을 암시하는 예언의 말씀을 비유와 표상 속에 기록해 두신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 예언을 찾아보기로 하자.

열 처녀의 비유만큼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성도들에게 밀접하고 직접적인 비유는 없다.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이다. 그러므로 다섯 천사의 기별과도 무관하지 않다. 셋과 둘 다섯 천사의 기별을 열 처녀의 비유와 접목하여 연구해보기로 하자. 열 처녀의 비유는 저물어가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재림성도들을 열 처녀로 비유하였다. 그런데 그 중 다섯은 준비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마 25:12)는 슬픈 대답을 들었다.

이 비유는 밤에 혼례식을 행하는 당시의 유대풍습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신부의 집 앞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모습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어떤 재림성도들의 애뜻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1844년 이후 많은 재림성도들이 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했으나, 주님의 재림은 처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연되었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처녀들은 기다리다 피곤에 지쳐 모두 잠이 들어버렸는데, 마치 차지도 덥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교회의 상태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비유 중에는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는데, 밤중 소리에 놀란 처녀들, 당황하여 깨어보니 등잔의 기름은 떨어지고 불은 꺼져가고 있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때까지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 똑같이 등불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비상사태가 왔을 때, 비로소 두 무리 사이에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작은 기름병을 갖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여분으로 준비한 기름병에서 기름을 등에 부어 꺼져가던 등불을 다시 밝혔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 부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기름 파는 자들에게 기름을 사러가야 하였다. 비록 비유이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안타깝게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채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마 25:12)는 선고를 듣게 된다.

## 미련한 처녀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 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실물, 406)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두 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이다.”(실물, 406)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 순결한 신앙을 하는 처녀들,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처녀들이라면 순결한 진리를 소유한 백성들이 아니겠는가?

“비유 가운데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실물, 408)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실물, 411)

“열 처녀는 이 세상 역사의 저녁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 모두 다 초청을 받고 기름과 등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 다섯은 준비되지 않았다. 그 다섯은 놀라고 당황하면서 연회장 밖에 있게 될 것이다.”(실물, 412)

독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움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누구인가? 미련한 처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요, 진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옹호하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뜻뜻미지근하지만 외형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요, 등과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있는 열성적인 신자들인 것 같다.

그런데 다섯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였고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재림을 기다리는 처녀들이여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병)을 준비하고 있는가? 혹시 여분의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방법은 알고 있는가? 왜 다섯은 준비하고 다섯은 준비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혹시 구원의 확률이 50대 50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로 비유된다. 그러므로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있는 일요일 개신교인들은 제외된다. 이들은 이미 바벨론이 되었다는 선고를 받았기에 순결한 처녀로 비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실물, 411)된 부류의 사

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 처녀의 비유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재림성도들이 비유의 대상임은 틀림이 없다. 이들은 비유 가운데 등과 불을 가진 처녀들(셋째 천사)로 비유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제 중요한 문제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된다. 왜냐하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미련한 처녀가 되기 때문이다. 비유 중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는 조언을 해준다.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마 25:9)

## 기름 파는 자들

재림성도들이여! 비유 중에 나오는 기름을 파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는가? 어디서 기름을 파는지 알고 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세 천사의 기별(계 14장)로 말미암아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였다면, 이제는 여분의 기름과 기름병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말을 참조한다면, 여분의 기름을 파는 곳은 계시록 14장이 아니라 다른 곳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했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기억할 것이다. 계시록 18장 천사,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바로 여분의 기름을 파는 자들로 표상된 것이다. 이 천사는 셋째 천사들을 돕기 위하여 내려온 천사라는 사실을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계시록 18장 천사가 여분의 기름을 파는 자들이 확실하다. 증언의 말씀을 참조해보자.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쁘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계 18장]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

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초기, 277 [편집자주])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들은 처녀들에게 여분의 기름을 공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들임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등한이 여기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고 부주의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그 결과로 흔들림이 일어나고 분리의 현상이 나타난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계 18장 천사]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 주었다.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진리에 매달리도록 이끌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바른 증거를 저버릴 것이며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초기, 270 [편집자주])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 그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한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초기, 271)

1888년부터 여분의 기름을 파는 천사들의 사업은 시작되었으나, 다수의 사람들은 그 중요성과 필연성에 대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유에서처럼 등잔의 기름이 충분하고 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것처럼 1888년 당시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에 많은 이들은 더 이상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무엇인지 몰라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하여 더 깊이 확실하게 연구해야 하였다.

## 비상사태를 위하여

선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듣고 심장의 세포들이 아멘으로 감동된 것처럼 새롭게 의의 기별로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이다. 여분의 기름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가 아니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복음은 평상시가 아닌 비상사태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당시(1888년)나 지금이나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채 등한시 여기기는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 18장 천사에 대하여 언급하면, 도대체 그 기별은 어떤 기별인가?’ 라고 성급한 질문을 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대답을 들을 때마다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별이라고 응수하면서 더 이상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 등잔 안의 기름과 여분의 기름은 똑같은 기름이다. 그런데 왜 다른 기름(복음)을 찾을 것인가? 독자들이여! 다른 기름을 찾지 말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자.

그러나 똑같은 기별(복음)이지만, 계시록 18장 천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기름을 나누어주기 위하여 내려온 예언된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예언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연구한 다섯 천사의 복음은 어찌면 태초부터 전해진 기별이요, 마르틴 루터가 제창한 복음과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복음이다. 그러나 매시대마다 복음은 예언에 기초하였을 때 큰 능력으로 역사하였다.

세 천사의 복음이 그랬으며 넷째 천사의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치 1888년 당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전해졌을 때, “나의 심장의 모든 섬유질마다 아멘이라고 말하였다.”(원고 5, 1889년) 라고 화잇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다. 이 기별이 선지자에게 새롭게 들린 것은 그 복음이 예언의 토대 위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다. 그 기별은 라오디게아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고였고, 또한 계시록 18장 천사의 큰 외침의 시작이 되는 놀라운 예언적 기별이었기 때문이다.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복음이 이 땅에 주어질 마지막 복음이라고 생각하여 보라. 어찌 중요하지 않으며 등한히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비상사태를 위하여, 여분의 기름을 공급하기 위하여 내려온 마지막 천사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비상사태가 가까이 옴

재림성도들이여! 우리 앞에는 일요일법령이라는 비상사태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자. 이것은 재림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위기의 때요 비상사태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잔의 기름은 비상사태(일요일법령) 이전까지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나, 비상사태를 견디기에는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비상사태를 위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만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될 것이다. 장차 재림성도들이 직면할 두 종류의 큰 비상사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일요일 강제 휴업령과 야곱의 환란을 말한다. 이 두 시련은 모든 재림성도들에게 비상사태이며 위기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시련을 대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낮은 비를** 예비하신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일요일법령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 천사(여분의 기름)를 예비해주셨고,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낮은 비를 각각 예비해 두신 것이다. 증언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천사[계 18장 천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 마지막 큰 사업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외침과 동시에 행해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일요일법령]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초기, 277 [편집자주])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증거되고 큰 능력과 영광이 마지막 사업에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환란의 때[야곱의 환란]를 통과하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은 낮은 비이다.**”(1증언, 353 [편집자주])

“그 때에 **낮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일곱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초기, 85, 86)

지금은 여분의 기름(계 18장 천사의 기별)을 준비할 때이다. 머지않아 우리들에게는 일요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내릴 것이며,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 영혼들만이 이 시련을 무사히 통과하게 될 것이다.

재림성도들이여! 지금이야말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함으로 슬기로운 처녀들로 준비되는 때임을 기억하자. 다섯째 천사의 발견은 이제 여분의 기름을 준

비할 수 있는 시기가 매우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누가 슬기로운 처녀들이 될 것인가? 누가 첫째에서 다섯째 천사까지가 전하는 기별(복음)을 감사히 받아들일 것인가? 다섯 천사가 전하는 기별, 이 기별을 감사히 받는 자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속할 것이요, 등한시하거나 경솔하게 취급한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남게 될 것이다. 넷째와 다섯째 천사는 여분의 기름을 파는 천사임을 기억하자.

혹시 열 처녀의 비유를 다섯 천사의 예언과 접목시키는 일이 합당한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화잇 선지자는 열 처녀의 비유를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계하여 1844년 슬기로운 처녀들은 지성소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을 어두움에 처하게 된 역사를 말씀하셨다(쟁투 426-427; 초기 54-55 참조). 그러나 이 예언은 재림 때 다시 한 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도록 계시록 18장 천사들의 예언을 열 처녀의 비유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열 처녀 비유와 관련된 비유들

열 처녀 비유 (마 25:1-13)	순금등대, 감람나무 (속 4:1-6)	두 증인, 감람나무, 촛대 (계 11:3-6)	계 14장 세 천사들 계 18장 두 천사들
등 = 말씀	두 감람나무 (신, 구약)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신, 구약)	성경, 예언의 신 (현대진리)
	두 금관, 두 가지 두 기름 발리운 자 (기별자들)	엘리야, 모세 (기별자)	넷째: 와그너, 존스 다섯째: 기별자들
말씀+기름(성령)=품성	말씀+기별자+기름(성령)	말씀+기별자+기름(성령)	말씀+기름(성령)=품성 늦은 비 (오직 나의 신)

**말씀(감람나무) + 기별자들(두 금관, 두 가지) = 백성들(개인)**

**슬기로운 처녀 = 등(말씀) + 기름(성령) = 품성(등불, 빛)**

**세 천사 + 다른 천사(계 18장, 두 천사) = 슬기로운 다섯 처녀(셋+둘=다섯)**

※ 주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는 모두 단수로 표현되었으나, 다섯째 천사는 천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초기문집에서는 그 음성을 ‘천사들’(복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말씀을 보건대, 첫째에서 넷째 천사까지는 기별자들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나(윌리엄 밀러, 화잇 선지자 및 재림선주자, 와그너, 존스), 다섯째는 특정한 기별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그 음성만을 듣게 될 런지 모른다.

계시록 18장 천사가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의 영광’은 곧 그분의 품성의 영광이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받은 자들에 의하여 그 영광(품성)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은 참으로 임박하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보내어질 마지막 천사의 음성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천사의 사명 =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의 도, 칭의의 기별)**

**다섯째 천사의 사명 = 그의 영광(품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열매(품성)로 증거되어야 함**

**넷째와 다섯째 천사는 (셋째 천사를 돕는 천사) =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게 함(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됨)**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 십사만사천인**

※ 주 :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있는 재림성도들(라오디게아교회)에게 비상사태가 없다면 기름이 부족하여 미련한 처녀가 될 위험은 없다. 그러나 비상사태(일요일법령)는 올 것이며,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기름의 부족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계시록 18장 천사(넷째, 다섯째)의 기별이 중요한 것은 이 위기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 기별들은 임박한 비상사태(일요일법령)의 때를 위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자비의 천사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비상사태(일요일법령) 뿐만 아니라, 또 야곱의 환란(칠 재앙)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환란은 늦은 비를 받은 자들만이 통과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1증언, 353; 초기, 85, 86).

이제 정리해보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일요일법령을 통과하고 늦은 비를 받을 준비(품성)를 위해 예비된 천사이며, 늦은 비 성령을 부여주심은 야곱의 환란을 대비하여서 예비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에 언급된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발견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새롭게 복음의 능력과 품성의 중요성을 깨닫는 일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만약 계시록 18장 천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일요일법령이 내릴 때 미련한 처녀로 발견될 것이요 늦은 비를 받는 일에 실패할 것이며, 늦은 비를 받지 못한다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1888년 이 기별을 듣고 화잇 선지자는 자신의 심장의 세포들이 감격하여 아멘 하였다고 간증하셨다. 이와 같은 신앙 간증이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

## 2) 다섯 번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심

이번에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의 비유를 다섯 천사의 기별과 접목하여 놀라운 현대진리,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새롭게 연구해보고자 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이 나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삼 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놓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육 시와 제 구 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십일 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마 20:1-6)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공의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비유가 이른 아침에 나가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부르는 집주인의 비유이다. 이 비유는 일반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전개된다. 하루에 다섯 차례나 품꾼을 불러오는 일, 품삯을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지불하는 일, 한 시간 일한 사람과 온 종일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불한 사실 등이 그렇다.

주인은 아침 일찍(6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을 불러온 다음, 이어서 오전 9시와 12시, 또 오후 3시와 5시에 일꾼들을 데려온다. 하루에 다섯 차례 일꾼들을 데려온 셈이다. 왜 이처럼 하루에 다섯 차례나 일꾼들을 데려와야 했는지 성경에는 어떤 이유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하루 동안에 다섯 번이나 품꾼들을 데려와야 했다면, 그 날에 마쳐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아마 주인이 계획한 어떤 중요한 일을 마치기 위해서 이처럼 다섯 차례나 일꾼을 데려왔을 것이다. 제 십일시(오후 5시)에 불러온 품꾼들은 단 1시간만 일하고 일을 마쳤다는 것은 그

일의 중요성과 시간의 긴박성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대개의 경우 하루에 계획했던 일을 마치기가 벅차면 반나절 일꾼을 더 불러 사용하는 일은 종종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하루에 다섯 차례나 일꾼을 데려와야 했다면, 분명 그 날은 특별한 날이었을 것이며 중요한 사업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비유 중에 주인은 다섯 시에 온 일꾼들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그 날에 계획된 일을 무사히 마쳤음을 보게 된다. 드디어 품삯을 지불하는데, 정상적인 사고로는 아침 일찍 온 품꾼에게 먼저 품삯을 지불하여 보내는 것이 원칙이요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주인은 맨 나중에 온 자들에게 품삯을 먼저 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1시간 일한 품꾼에게 온 종일 일한 품삯(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더라도 맨 나중에 주었더라면 문제는 없었을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먼저 품삯을 준 것이다. 그러므로 온 종일 일한 품꾼들은 당연히 생각하기를 그들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은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의 품삯만을 지불하였다. 이들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마 20:11, 12)라고 항의하였다.

독자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자들이 그날 온 종일 일한 품꾼이었다면 항의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만일 독자들이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졌다면, 분명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는 의도되었다.

## 주인의 품성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한 말을 들어보자. 비유 중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마 20:14, 15)

온 종일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것은 하나님

의 뜻(품성)이라는 말씀이다. 독자들은 이해가 가는가? 하나님의 품성이 어찌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가? 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비유에 의하면 분명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 9)**

그러나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떤 점에서도 주인은 불공평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일을 시켰으며 1시간 일한 일꾼들은 내가 알아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약속한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다 지불하였기에 주인에겐 전혀 잘못이 없었다. 1시간 일한 자들에게 종일 일한 품삯을 주는 일로 온 종일 일한 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끼쳐지지 않았기에 그들이 주인에게 항의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1시간 일한 사람들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 하루 품삯을 주었을 뿐이다. 이것은 주인의 선하심과 자비(사랑)하심 때문이었다. 주인이 1시간 일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그분의 품성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가 많은 분이시라는 사실이 나타났을 뿐이다.

만약 온 종일 일한 자들에게 하늘의 정신(사랑)이 있었다라면, 1시간 일한 자들에게 하루의 품삯이 지불되었을 때, 주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칭찬하고 감사했어야 했다. 이 정신이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이기 때문이다. 하늘에 살 사람들의 품성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는 가르치고 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받을 때, 마치 자신이 유익을 받는 것처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이다. 독자들이여!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 이런 품성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러나 비유에 나오는 온 종일 일한 품꾼들에게는 이런 품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을 때에 주인을 원망하고 투기했던 것이다. 만약 온 종일 일한 사람들처럼 원망하는 정신이 생긴다면, 하늘에 살기에는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 다시 배워야 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이 비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구원)를 가르치고자 의도하신 비유이기도 하다. 구원은 오직 은혜요 선물임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보수[구원]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엡 3:11)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딤후 3:5) 하신다.”(실물, 397 [편집자주])

“하늘 베틀로 짠 이 두루마기에는 사람이 만든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았다.”(실물, 311)

이 비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곧 복음의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흰 옷에는 사람이 만든 실(행위, 공로)은 한 올도 섞이지 않아야 한다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에 의해서이다.

독자들이여! 포도원의 비유가 마음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만약 비유에 나오는 일꾼들처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정직하게 말해서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깨달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원은 일한 분량(행위)이 아닌 하늘의 정신(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자들은 열한 시에 온 일꾼들처럼 보수가 일한 분량보다 많아서라기보다는 품꾼으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실물, 396)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열 한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 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실물, 397)

독자들은 어떤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가? 온 종일 일했으므로 당연히 품삯(영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열한 시에 온 일꾼들처럼 주인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온 종일 일했으므로 열한 시에 온 일꾼들보다 당연히 품삯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금 믿음을 배워야 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 9)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선한 행실을 전혀 의존해서는 안 된다. …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공로를 전적으로 믿고 당신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받으실 것이다. 저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용솟음칠 것이다. 거기에는 환상적인 감각이 없을 것이며 다만 영속적이며 평화스러운 신뢰심이 있을 따름이다.”(믿음, 38)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면 자기의 힘이 무력하여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복음, 161)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마음)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요일 4:16)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 119:172)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롬 13:10)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보훈, 18)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며 영이요 생명이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예수와 같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생애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의를 얻은 증거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런 믿음과 율법의 원칙을 배우기를 원하신다. 은혜의 시간은 매우 짧다. 겸손히 믿음을 배우도록 하자.

## 이 비유의 핵심 - 다섯 번의 일꾼을 부르심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비유이다. 열 처녀의 비유와 함께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재림성도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비유에서 특이한 점은 하루에 다섯 차례에 걸쳐 일꾼들이 불러왔다는 사실이다. 하루에 다섯 차례의 일꾼을 부르심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는 1844년을 기점으로 하여 대속죄일이라는 특별한 하루를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는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표상적으로 하루임을 기억하자. 대속죄일은 하루이기 때문이다.

하루 동안에 다섯 번의 일꾼들을 부르신 포도원의 비유와 1844년을 기점으로 세 천사(계시록 14장)와 두 천사(계시록 18장), 다섯 천사가 실제적인 대속죄일인 오늘날 주의 포도원에 투입된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비유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를 대속죄일인 하루, 곧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 다섯 천사를 당신의 추수사업장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이 비유에서 보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마지막 때, 구속사업을 마치시기 위해 셋과 둘, 다섯 천사를 당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들일 것이다.

또 이 비유에서 말해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다섯 번째 일꾼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곧 주님의 재림이 참으로 임박함을 깨닫게 해준다. 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비유인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레 25:55)

## 열한 시의 추수꾼들

우리가 지금 다섯째 천사에 대한 발견과 이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우연의 일일까? 바야흐로 주의 포도원에 마지막 다섯 번째의 일꾼들이 열 한

시에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가깝다는 심증이 생기지 않는가? 1시간 남았다. 주님의 재림이 딱 1시간밖에는 남지 않았다. 그 1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주님께서서는 이 하루 동안에 마쳐야 할 어떤 중요한 사업이 있었기에 다섯 차례나, 그것도 일할 시간이 채 1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음에도 일꾼들을 부르셨을까? 왜 다음날로 미룰 수 없으셨는가? 왜 한 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온 종일 품삯을 지불하면서까지 일을 시키셨는가? 그 중요한 사업이 무엇임을 열한 시에 온 품꾼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1844년부터 분명 이 땅에는 추수사업이 시작되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계 14:4) 들을 추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십사만사천인들의 열매를 추수하는 사업은 다음날로 미룰 수 없는 사업이요, 반드시 대속죄일 하루 동안에 마쳐야 할 사업이기에 그렇다.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추수사업은 시작되었으나, 그 사업이 지연되었기에, 1시간이라도 일할 일꾼(다섯째 천사)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감사할 일은 다섯 번째 부름을 받은 열한 시 일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계획된 사업이 하루 동안에 무사히 마쳐졌다는 사실이다.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채워졌다는 말이다. 다음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 통(뿔로 만든)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하고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던졌다.”(초기, 279, 280)

십사만사천인의 수가 채워질 때 추수사업이 마치게 된다. 이 사업은 다음날로 미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며, 반드시 하루 동안(대속죄일)에 마쳐져야 할 사업이다. 그 때에 비로소 다음날(재림)의 동이 터올 것이다. 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은 마쳐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연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이 비유의 진의를 깨닫는다면, 참으로 여호와와 날은 심히 가깝고도 가깝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독자들이여! 이제 다섯째 천사들 곧 열한 시의 일꾼들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는가?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을 끝마치기 위해서 말이다. 불원간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는 차고 주님의 중보는 끝날 것이다. 다섯째 천사의 추수사업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은 참으로 임박하다.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할 매우 긴박한 시간이요,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하자.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되지 말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눅 5:5-7)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 21:11)

#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천사들

## 1) 죄악의 잔은 얼마나 찼을까?

인간의 죄악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의 바늘은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인간들의 죄악의 잔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주님의 재림의 시기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상의 거민들이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우기 까지 시간은 좀 더 지체될 것이다.”(1증언, 363)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제 3 장에서는 지상의 거민들의 죄악의 잔이 얼마나 찼는지를 측정해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우리들의 대비책이 무엇인지 연구해보려고 한다.

### 거룩한 제도들

결혼 제도와 안식일 제도는 인류가 범죄하기 전 에덴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룩한 제도이다. 그런데 남녀 간의 신성한 결혼 제도를 사단은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이성이 아닌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해괴망측한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

다. 이후 동성애의 악은 인간들의 도덕적 타락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들을 “... 가증한 일이니라”(레 18:22) 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인간들의 죄악의 잔이 채워진 증거로 동성애의 범죄를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1:7)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물로 홍수를 겪게 했으며, 소돔을 불로 멸망시켰던 남색적인 행습들이 신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종말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리뷰, 1884. 11. 10.)

이처럼 인간들의 도덕적 타락의 척도는 바로 가증한 사랑, 동성 간의 사랑(결혼)으로 측정되어 왔다. 노아의 때, 롯의 때도 바로 이 바로미터에 의하여 죄악의 잔이 찼다고 말한 것이다. 사단은 인간들을 이처럼 가증한 악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였던 것이다.

## 죄악을 측정함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특별한 법이 제정되었음을 뉴스를 통하여 알고 있다. 동성(同性)결혼에 대한 법령이 미국연방정부에서 합헌으로 선포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예상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제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선언하신 동성 간의 결혼을 인간들이 합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을 제정함으로 미국은 좀 더 완벽해졌으며 동성 결혼 합법화가 미국의 승리라고 선언하였다. 아! 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큰 도전인가?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짓밟고 동성애법을 합헌으로 선언하였으니,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이미 그런 죄악이 창궐했다면, 지금에 와서 동성애의 죄악을 왜 새삼스럽게 말하는가 라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작금

(昨今)의 상황은 그 때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어떤 비류들에 의하여 이런 가증한 죄들이 자행되었으나, 지금은 세상을 대표하는 국가인 미국이 이런 법을 만들고 더 나아가 대통령이 이 법을 일컬어 미국의 승리라고 선언하였으니 말이다. 이것은 지상에 살고 있는 거민들의 죄악의 잔이 채워졌음을 보여주는 징조이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사단의 정책을 입법화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들을 짓밟을 때, 이것은 죄악의 잔이 채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끼 양과 같았던 미국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결혼 제도를 짓밟고 사단의 정책인 가증한 동성애법을 합법화한 것은 이 지상의 거민들의 죄악의 잔이 찼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단의 대리자인 미국이 드디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결혼 제도(법)를 변경시킨 것이다. 세상의 죄악의 잔은 찼다. 이와 같이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보고도 한낱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때야말로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시 119:126)라는 위급한 사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제정할 일요일법령에만 예언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이미 미국이 국가적 배도를 시작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다. 안식일과 함께 결혼 제도는 에덴에서부터 가져온 제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법들이다. 결혼 제도야말로 인간들의 도덕적 기준이 되는 법이며 악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로 사용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으로 인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동물적인 정욕(동성애)에 빠져버렸을 때, 죄악의 잔이 찬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노아의 때와 룻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창 15:16)라고 하신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님의 재림 직전 세상은 죄악의 잔이 차고 넘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죄악의 잔이 찼다는 증거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개신교국인 미국이, 그것도 대법원과 대통령에 의하여 동성애법을 찬양하면서 미국의 승리라고 선언하였으니 말이다. 이처럼 미국의 국가적인 배도는 죄악의 잔이 찼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제 세상의 죄악의 잔을 채울 또 하나의 어떤 예언이 남아있는가? 사단의 마지막 정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변경하고자신의 안식일로 대체하려는 정책이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단 7:25)

이것은 일찍이 다니엘이 말한바 놀라운 예언의 성취가 될 것이다. 이제 사단은 짐승의 표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일요일법령을 제정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할 때에 세상은 그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법령이 내릴 어떤 징후가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아니면 교황청에서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면 어김없이 일요일법령과 관련시켜 곧장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소란을 피웠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만성이 되어 웬만한 뉴스에는 미동조차 하지 않지만, 다음의 말씀은 의미가 심장하다.

“국가의 통치자들이 사단의 정책을 시행하며 저들 스스로 죄악의 사람의 편에 가담하는 국가적인 배도[동성애 법]의 때, 바로 그 때가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이다.”(2기별, 372 [편집자주])

“죄악의 잔이 차서 그 한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재림]은 지체된다.”(원고 58, 1900년 [편집자주])

현 시대를 일컬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들의 목전에서 미국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어 가증한 동성애법을 제정하는 모습을 보는 재림성도들에게는 가슴으로 느끼는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과거에는 어른들의 세계에서나 알고 있었던 남녀의 은밀한 일들이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어린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여과 없이 가르쳐지고 있으며, 과학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들이 들리어져 있다. 그것은 생활의 유익과 편리를 제공한다는 구실 하에 각종 죄의 지식과 가증한 악의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해주고 있다. 모든 악의 방벽은 무너지고 죄악은 홍수처럼 범람하여 죄악의 물결이 세상에 넘실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어떤 비류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제 늙어서 돌아가셨다. 만약 살아계시다

면,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하고 가증한 법들이 만들어지고 더 큰 죄악들이 성행하는 이 세상을 그냥 두실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고 조소한다. 그러므로 마음대로 쾌락을 누리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없을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재림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의 재림은 왜 이처럼 지체되고 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재림성도들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을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막연한 말로 답변을 대신한다. 그러나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 이후 주님의 선지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였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오셨을 것이며 성도들은 곧 뒤이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되었을 것이다(연합회 총회 기록<호주>, 1898년 10월 15일).”(1기별, 82)

“나는 존스와 와그너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처지에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돌로 그 정탐꾼들에게 돌질하였던 것처럼 그대들은 비꿈과 조롱의 돌로 이들 형제들에게 돌을 던졌다. 나는 그대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계획적으로 거절하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그대들의 존엄성에 너무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대들 장막 속에서 이들 두 형제들을 조롱하며 모든 방법으로 놀려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만일 그대들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더라면 우리는 그날로부터 2년 후에 하늘 왕국에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광야로 돌아가서 사십년 동안 거해야만 한다.”(대총회 회보, 1892. 5. 9. 호주 멜보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비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목적을 수행했다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셨을 것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1888년경이라면, 아직 아시아 지역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복음)이 전해지기 전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그러나 교회가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갔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직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는 대답은 설득력이 없다. 이미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골 1:23)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진실로 재림이 지체되는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6천년 동안 복음의 씨를 뿌려 오셨다. 진리의 씨를 뿌리고 그 이랑에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자라나게 하셨고 드디어 때(2,300주야)가 되매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 열매(알곡)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계 14:4)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계 14:1)

십사만사천인들이 바로 땅에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열매들이 아닌가? 주님께서서는 이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다. 재림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목적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추수할 열매들의 수확량이 채워질 때 추수하러 오시겠다는 계획을 이미 당신의 종을 통하여 알려주셨다. 증거의 말씀을 보도록 하자.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 통(빨로 만 든)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을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 들고 ‘다 이루었다’하고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던졌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 간에 결정되었다.”(초기, 279, 280)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살아, 402)

그리스도의 재림과 십사만사천인의 인치는 사업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십사만사천인의 인치는 사업의 종결, 곧 수효가 차면 주님께서서는 중보를 끝내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의 종을 통하여 계시로 보

여주신 것이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인치는 사업, 곧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악이 창궐하고 죄의 잔은 넘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십사만사천인의 인치는 사업이 지연되고 수효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모든 말세의 징조가 성취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십사만사천인의 인치는 사업과 그 수효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채워지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물론이요, 일요일 법령도 사방의 바람을 잡는 천사들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본 백성(재림성도)들에 의하여 십사만사천인의 대부분의 수효가 채워져야 한다. 나머지 부족한 수효는 일요일법령이후 큰 외침에 의하여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는 무리들에 의하여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채워질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는 증보의 향로를 던지시고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 되게 하라”(계 22:11)는 선고를 내리실 수 있다. 이 모든 예언의 단초(緞綯)가 바로 십사만사천인의 수효와 관련이 있음을 기억하자.

## 선교방향을 올바르게 잡자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쟁투, 640)이요, 셋째 천사는 “...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 ...”(초기, 118)라는 사실과 셋째 천사는 이미 1844년부터 이 땅에 내려와 그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림성도들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채워지지 않고 있을까?

현재 재림교인의 수는 이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바벨론에서 나올 예언된 신실한 백성들까지 합쳐질 것을 계산하면, 이 수효는 벌써 채워졌어야 했다.

독자들은 혹시 과거 논쟁의 주제였던 십사만사천인의 주제를 언급함으로써 마음이 불편해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불가피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바로 이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재림성도라면,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편집자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재림교회의 선교사업의 포커스(Focus), 아니 목표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재림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맞이 위해 준비하고 세상에 경고하도록 바벨론으로부터 특별히 불러내신 현대 이스라엘이 아닌가?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과 필수적인 관계가 있는 십사만사천인의 인치는 사업에 선교의 초점(Focus)이 맞추어져야 하였다. 만약 십사만사천인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중요성을 깨닫고 가르쳤더라면, 이미 주님께서 오셨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초기, 279, 280)고 하셨기 때문이다.

재림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선교사업에는 항상 십사만사천인의 인치는 사업에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였다. 단순한 구원의 복음이 아닌 십사만사천인의 열매를 위한 복음, 셀 수 없는 무리들만이 아닌 십사만사천인의 구속의 열매들, 곧 인침을 받는 백성들을 얻기 위하여 선교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일요일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사만사천인의 인침을 받을 구속의 열매를 얻기 위해 그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였다. 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전도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와 같은 구속의 섭리를 외면한 채 일요일개신교회들에게 선교하였기에 그들에게는 마치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의 복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재림교회는 믿음이 아닌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 이단교회라는 비난을 받아야 하였다. 그들에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를 채우는 복음,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취시키는 복음을 재림교회는 전해야 한다. 재림교회가 이런 선교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다라면 주님께서서는 이미 오셨을 것이라는 말이다.

## 십사만사천인의 복음

허다한 무리의 구원과 십사만사천인들의 구원이 다른 것이 아니다.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다만 시기(추수 때)와 관련이 있으며, 각 시대마다 주어진 빛의 밝기가 다를 뿐이다. 추수 때, 곧 1844년 이후부터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는 지성소의 빛과 자신의 믿음이 일치되면, 십사만사천인의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조건은 넷째 계명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이다. 또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만일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다면, 비록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특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이다. 소망이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닌 전심을 말한다. 오늘날 재림교회가 전하는 복음 속에 과연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고취(鼓吹)시키고 있으며, 두 마음이 아닌 오직 전심으로 그 수효에 들어가기를 노력하도록 가르치고 있는가? 말이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는 진정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영혼들로 하여금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때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그 믿음을 실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 사단의 계략

사단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은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멸망이 확정되었다는 말이다. 이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것이 그의 최대의 목적이 되고 있다.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다. 구원의 복음은 이미 태양처럼 온 땅을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 복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사단은 특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의 꺾박

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십사만사천인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였다.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체된다는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십사만사천인의 인치는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모든 계락을 총동원하여 훼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락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쓰실 덮개(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초기, 43)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간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초기, 44)

사단은 인치는 사업, 곧 현대진리에 대하여 온갖 계락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해 주셨다. 오늘날 십사만사천인은 상징적인 수효라는 말을 많이 한다. 만약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상징이라면, 그리스도의 재림도 상징이란 말인가?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찰 때, 주님께서서는 중보를 끝내시고 재림하실 터인데, 그 수효를 상징이라고 가르쳐버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 아니고 무엇인가?

## 확실한 진리

요한계시록은 구속의 경륜을 완성시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것처럼 중요한 책에서 7장과 14장이 빠진다면, 그 책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계 7:2-4)

십사만사천인의 인치는 사업과 함께 그 수효가 십사만사천인이라는 사실을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그리고 어떻게 십사만사천인이 되는지를, 열두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을 정확하게 정산(定算)하여 그 수효가 정확함을 증명하셨다(계 7:5-9). 그리고 계시록 14장에는 십사만사천인의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셨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 14:1, 3)

이들이 시온 산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노래는 십사만사천인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라고 그 수효를 단정지어 말했고, 이들을 일컬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열매들이라고 말했다(계 14:1-4).

왜 이처럼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시고, 수식으로 확정해 주신 수효를 상징이라고 해야 하는가? 어떤 진리보다도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만큼은 사람들의 설명이 필요 없도록 확실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상징이라고 말하는가? 사단의 계략에 빠진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계시록 22장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 19)

이처럼 성경은 십사만사천인의 수효에 관하여 인간들의 설명이나 다른 해석을 하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다. 이제 예언의 신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자.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효는 찼다.**”(쟁투, 613)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 통(뿔로 만

든)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초기, 279)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초기, 280)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차면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나고 이어서 영광스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구속의 경륜을 선지자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다.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만큼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은 없다.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요, 셋째 천사의 사업은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하겠는가?

“나는 그 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초기, 118)

과연 우리는 이 인치는 사업,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다 기울였는가? 자문자답하여 보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첫 번째 계시로 십사만사천인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셨다. 누가 이 첫 번째의 계시를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것인가? 또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4,000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리뷰 1905. 3. 9)”(화이트주석, 계 7:4-17)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144,000인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힘쓰도록 가르치고 전했더라면, 왜 이 수효가 차지 않았겠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참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 신속한 예언의 성취

성경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다. 요한의 계시를 주목해 보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셋째 천사)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계 7:1-4)

셋째 천사에 의하여 십사만사천인들이 인침을 받고 그 수효가 채워질 즈음, 땅 사면의 네 천사들은 사방의 바람(일요일법령)을 놓기 시작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를 부어 인간의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여 추수사업을 마치실 것이다.

이때부터 사건들은 신속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중보와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이 땅에는 야곱의 환란과 함께 칠 재앙이 시작될 것이며, 그 후에 영광스런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의 단초(緞絙)가 바로 십사만사천인의 수효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직접적인 원인은 교회가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큰 외침이 있기 전까지는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 안에서는 십사만사천인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일요일 개신교회의 신실한 무리들은 일요일 법령이 반포되고 늦은 비가 내려 큰 외침이 일어날 때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인침을 받고 십사만사천인의 마지막 부족한 수효를 채울 것이다. 그러나 일요일법령이 내리기전인 오늘날은 십사만사천인의 열매는 오직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있는 재림성도들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왜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며 그 무리에 들도록 독려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 주님의 재림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다.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

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이 급히 가라'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 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현대진리, 1849. 9. 1.)

십사만사천인의 인치는 진리는 현대진리임을 기억하자. 죄악의 잔은 찼다. 사방의 바람을 잡은 천사들이 바람(일요일법령)을 놓을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재림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4,000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특권이 재림성도들에게 있다.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는 느리지만 채워지고 있다.

이제 과거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를 연구해야 한다. 비유와 상징, 표적과 표상, 역사와 예언을 이 주제와 연계하여 연구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극히 일반적인 비유와 표적에서 십사만사천인의 진리가 관련되어 나타날 때, 어떤 이들에게는 당혹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주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말씀으로 이 주제를 말한다면 누가 관심을 갖겠는가? 이 주제가 오늘날처럼 무관심과 도외시된 때가 언제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한 유일한 주제인 십사만사천인의 연구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4,000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화잇주석, 계 7:4-17)

## 2) 베드로가 그물로 잡은 153마리의 큰 진리

예수님의 이적 중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셨던 두 번의 이적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으나, 베드로는 어떤 실망스런 일들로 인하여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 그때마다 밤을 새워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잡기도 하였고, 또 큰 고기만으로 153마리를 잡기도 하였다. 이 두 번의 큰 표적에서 현대진리인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를 탐구해보려고 한다. 이 역시도 참으로 영똥한 생각의 발상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나, 어쩌면 이와 같은 생각의 발상으로 감추었던 큰 보화를 발견할는지 누가 알겠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연구해보기로 하자.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의 사명과 다르지 않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베드로를 통하여 두 번이나 큰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마지막 교회와 예수님의 두 번의 표적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때를 따라 장소에 따라 어떤 고기들을 잡아야 하고, 또 어떤 고기가 잡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교회의 사명도 고기를 잡는 어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번의 표적을 통하여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3년 전에 베드로를 통하여 셀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는 표적을 행하셨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밝은 대낮에 그물을 던져 두 배에 가득 차게 수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모두 그분께서 의도하신 표적이었다.

이제 삼년이 지난 두 번째의 표적은 그 시기와 함께 더욱 의미가 심장하다. 두 번째의 표적을 행하신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불과

며칠 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삼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이제 몇 날 후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주님께서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고기 잡는 표적을 행하신 것이다. 이 표적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표적이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단순히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신 것만은 아니다. 분명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의도된 표적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된다. 3년 전에는 수많은 고기를 두 배 가득히 잡게 하였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는 큰 물고기들로만 153마리를 잡게 하셨다. 이 두 표적은 분명 주님께서 어떤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의도된 표적이었음이 분명하다. 세상의 추수 때를 알려주는 1844년을 기산점으로 하여 두 무리의 구원, 곧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십사만사천인들로 구분되는 것을 재림성도들이라면 이해하리라 믿는다. 베드로가 잡은 두 번의 표적에서 이 현대진리를 적용하여 연구해보자.

## 첫 번째 경험(이른 비에 대한 계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눅 5:4-7)

첫 번째 표적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초기에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셨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고기가 잡힐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으나 체면상 던진 것이다. 그러나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어부의 직감으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졌고, 그는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의 발아래 무릎을 꿇었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

다”(눅 5:8) 베드로는 자신의 불신을 생각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불신을 꾸짖지 않으셨다. 그는 장래에 많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표적으로, 두 배를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셨던 것이다.

## 두 번째 경험(늦은 비에 대한 계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은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요 21:3-6, 11)

두 번째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하여 행하신 마지막 표적에서였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배은망덕한 행동으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고, 더 이상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였다.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그는 또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요 21:5, 6)고 하셨다.

제자들은 불현듯 3년 전의 일을 회상하며 그물을 던졌다. 노련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고기들이 잡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왔으나, 자신의 배은망덕함의 행동

으로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할 말을 잊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말을 걸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요 21:15)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지위를 재신임하셨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최종적으로 내 양들을 너희들에게 위탁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 지금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셨다. 이때 베드로는 잡은 고기를 세어보니 큰 고기로 153마리나 되었다.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요 21:11)

## 큰 진리를 나타내심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서는 베드로의 두 번의 불신과 실망을 통하여,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제자(교회)들에게 큰 진리를 가르치고자 계획하셨다고 믿는다.

독자들이여! 생각해보라. 어찌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가 두 번이나 밤이 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던졌을 때, 두 배를 가득 채운 셀 수 없는 물고기를 잡은 일과 큰 물고기로 153마리를 잡은 두 번의 경험은 모두가 주님께서 의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베드로의 불신의 행위를 이용하여 주님께서서는 큰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 날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었는데,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요 21:25)라고 하였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 모두 기록한다면 보관할 장소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그 날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고기에는 관심이 없어졌고 고기도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께로 뛰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한가로이 베드로가 고기를 세어보았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은가? “...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요 21:11)

## 일백 쉰 세 마리의 암호를 풀어라

베드로는 그 날 얼마나 잡았는지 궁금하여 고기를 세어볼 정도로 한가로운 날이 아니었다. 성령께서는 요한을 감동하게 하셔서 귀중한 지면을 할애하여 그 수효를 상세히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자.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두 기록한다면 보관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던 요한이, 153마리의 수효를 이 표적의 말미에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다. 성경에는 숫자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다.

‘3’과 ‘7’, ‘12’ 등 숫자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독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성경에는 ‘666’과 같은 의미 있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53’이라는 숫자의 조합은 참으로 생소하고 그 진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수효는 숫자 자체로는 어떤 의미가 없는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153’이란 수효는 숫자 자체의 의미가 아닌 어떤 특별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암호와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두 번의 큰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할는지 모른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암호를 풀어보자.

## 구원받은 두 무리

주님께서서는 복음사업의 시초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를 잡도록 하셨고, 복음사업을 마칠 즈음에는 큰 고기만으로 153마리를 잡게 하셨다. 이 두 번의 표적은 당신의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표적인 것 같다. 바로 계시록 7장에 언급되어 있는 구원받은 두 무리, 곧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그 수효가 한정되어 있는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를 가르치기에 합당한 표적이다. 계시록 7장에는 분명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 계수된 ‘십사만사천인’의 두 무리가 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리들이며, 십사만사천인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만 나온 무리들임을 알 수 있다. 분명 두 무리가 같은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의 출신성분을 통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십사만사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내려온 셋째 천사(1844년부터)에 의하여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일반 개신교인들은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과 증언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무리가 두 무리로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두 번의 표적에서 이와 같은 큰 현대진리를 배울 수 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 두 배를 가득 채운 수많은 고기를 잡은 표적은, 아담과 하와가 어린 양의 가족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이래 1844년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허다한 무리들을 상징하기에 너무도 합당하다. 이들의 수효는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될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베드로를 통하여 큰 고기들로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신 표적은 바로 구속사업이 지상에서 마쳐지기 직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하늘 창고에 들일 구속의 열매들, 십사만사천인들을 상징하기에 너무나 합당한 표적이 아닌가? 베드로를 통한 두 번의 표적은 바로 이와 같은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의도된 표적이었음이 확실하다. 십사만사천인, 이들이 바로 153마리의 큰 고기들인 것이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큰 고기를 잡도록 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물고기)는 이미 두 배에 가득 찼음을 기억하자. 아담이후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구약시대) 믿음으로 구원받은 무리들로 한 배가 가득 채워졌고 또 십자가이후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까지(신약시대) 구원받은 무리들로 한 배를 가득 채울 것이다. 이

리하여 헤일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은 두 배를 가득 채운 것이다. 이제 153마리의 큰 고기(십사만사천인)들의 수효만 차면, 주님께서서는 중보를 마치시고, 구속사업을 끝내시겠다는 큰 진리를 보여주신 표적이다. 오늘날 제자들은 어디서 어떤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고 있는가?

이제 큰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재림교회는 큰 고기인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를 채우기 위하여 분투노력해야 하며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153마리의 큰 고기의 수효가 차면 주님께서서는 지체 없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재림성도들이여! 우리의 사명은 큰 고기를 잡는 일이다. 이 일만이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자.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원해진다. 증언의 말씀이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 통(빨로 만든)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 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던졌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 간에 결정되었다.”(초기, 279, 280)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살아, 402)

확실하지 않은가? 왜 작은 고기,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은 큰 고기,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며, 큰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 기별이야말로 참으로 현대진리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이다.

“주님께서서는 나에게 귀중한 영혼들이 **현대진리 곧 인치는 진리와 때에 적당한 식물의 부족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음과 또한 신속한 사자들이 저들의 길을 달려가서**

현대진리로 양떼를 먹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는 한 천사가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 '빠른 사자들아 급히 가라'고 말하는 것과 모든 영혼의 운명은 생사간에 각각 신속히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현대진리, 1849. 9. 1.)

"나는 그 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초기, 118)

## '153'의 수효가 가리키는 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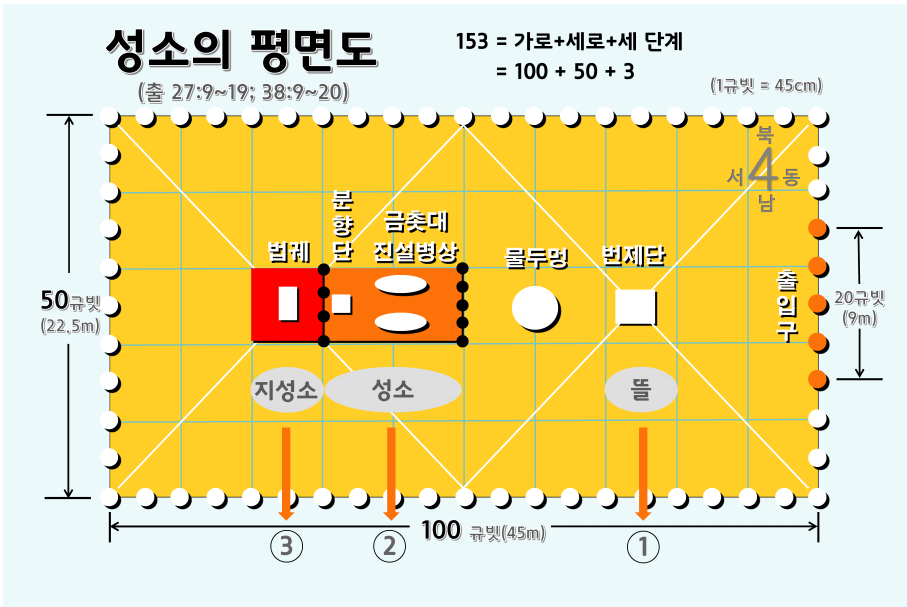
독자들은 하늘 성소의 모습을 따라 모세가 세운 지상 성소의 구조와 평면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재림교회와 하늘 성소의 진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진리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실망의 이유를 설명하고 나아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추적인 진리가 되었으며, 2,300주야의 최장 예언을 설명해주는 귀한 진리가 되고 있다. 드디어 1844년 10월 22일 하늘 성소 중 지성소의 문이 열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들어가 마지막 구속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중보를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는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지성소로 향하게 하고 있으며,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외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지성소로 향하게 되었다. ...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초기, 254-255)

하늘 성소는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모세가 세운 지상 성소는 바로 하늘 성소의 모형이며, 이 모형을 통하여 우리는 현대진리를 배울 수 있다. 이와 같은 현대진리의 확실성을 굳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잡은 큰 고기 153마리의 표적을 적용해보려고 한다. 베드로가 잡은 '153'이라는 고기는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중요한 성소진리에 관심을 갖도록 의도된 표적처럼 느껴진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셀 때 대략 150여 마리라고 기록하지 않았고, '153'이라는 마지막 한 자리

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또 주님께서서는 155마리를 잡게 하실 수도 있었고 160마리를 잡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도하신 표적에서 153마리의 고기만을 잡게 하셨다. 그러므로 ‘153’이라는 수효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제 지상 성소의 구조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상 성소의 평면도를 보면 성막 뜰(울타리)의 가로가 100규빗, 세로의 길이가 50규빗임을 보게 된다. 이처럼 가로와 세로 150규빗에 의하여 성막 뜰의 한계가 책정되었고 그 안에 성막 곧 회막이 세워졌다.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는 뜰과 성소, 지성소라는 세 단계의 거룩한 장소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리하여 성막의 구조에서 ‘153’이라는 수효의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



성막의 뜰을 책정하는 가로 세로의 규격인 150규빗과 뜰과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이르는 세 단계의 ‘3’을 생각할 때, ‘153’이라는 수효가 형성되고 그 거룩한 성소의 마지막 위치인 지성소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게 한다. 증거의 말씀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지상 성소의 구조를 생각하여 볼 때 확실하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잡은 큰 물고기, '153'의 수효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하늘 성소 중 지성소를 바라보도록 의도된 표적임을 알게 된다. 폐일언(蔽一言)하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차대한 일들을 명상해보자.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리뷰, 1883. 11. 27.)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는 공중에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사업을 표상한다. … 사단은 이 기별들의 주변에 그림자를 던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별의 의미와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6증언, 17)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업을 위한 마지막 중보를 하고 계신다. 이때를 즈음하여 사단의 계략은 무엇인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와 그 기별이 가리키는 장소와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천사가 가리키는 장소는 하늘 지성소이며, 시간은 대속죄일이며, 그 기별의 가장 큰 의미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인을 치는 천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천사에 의하여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십사만 사천인들이다.

베드로를 통하여 잡은 큰 고기들, '153'이라는 수효는 이처럼 귀중한 현대 진리, 하늘 지성소의 거룩한 장소와 대속죄일의 엄숙한 시간과 십사만사천인의 인침과 같은 큰 진리의 주제들을 확증하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의도하신 표적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라

이 소책자의 의도하는 바도 여기에 있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귀중한 현대진리의 주제들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 끝에는 많은 미혹자들이 있을 것에 대하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 24:4)고 여러 번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그때를 대비하여 진리

의 파수꾼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렇지 못하고 상식화된 성경 한두 구절만을 알고 있다가 어떤 유혹자들의 날카로운 불신의 화살을 맞게 되면, 그만 증거의 말씀의 부족으로 압도당하고 만다. 실례를 들면, 십사만사천인의 진리에 관하여 옛날 화잇 부인 당시에는 선지자를 위시한 모든 재림선구자들은 당연히 실수효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를 실제적인 수효로 믿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혹시 믿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현대진리의 원수들이 인치는 사업과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이 진리를 무력화시키는 많은 논리와 이론들을 창출(創出)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는 동안 시온의 파수꾼들은 잠자고 있었고, 진리의 파수꾼들은 현대진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더 이상의 말씀연구와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에 비하여 증거의 말씀의 부족으로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는 상징이 되고 연구할 가치가 별로 없는 주제로 전락되어 관심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다만 극단자들과 이단자들이 좋아하는 연구주제인양 치부되고 말았다. 이 모두는 사단의 계략에 빠졌음을 깨닫게 된다.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돌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덮어씌울 덮개(인)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초기, 43)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간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초기, 44)

주님께서 이때를 즈음하여 이처럼 귀중한 현대진리들이 감추인 보화처럼 비유와 표적, 역사와 예언, 표상과 상징 속에서 발견되도록 역사하셨다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큰 고기의 표적을 십사만사천인에 적용하는 일을 끼워 맞추어라고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미 서문과 셋과 둘의 비유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날 세상은 상식을 뛰어넘는 비약적인 생각(영감)과 정교한 기술(끼워 맞추어; 융합)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얼마나

놀라운 기술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하물며, 영이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융합시키고 접목하여 귀한 현대진리를 증거하기 위한 연구가 왜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와 그분께서 친히 계시하신 요한계시록을 융합하고 접목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현대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일을 왜 끼워 맞추어라고 냉소할 것인가? 정교한 끼워 맞추, 합성기술로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서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사 28:10) 하시지 않았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사 34:16)라고 하셨다. 이것 역시 끼워 맞추이 아닌가? 진리를 증거하고 현대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끼워 맞추이라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감동의 말씀을 모아 현대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증거의 말씀을 확보하느냐에 비례하여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열성과 노력으로 말씀을 연구하여 미혹에 대비해야 한다.

## 천연계를 통한 진리의 연상법(聯想法)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시 19:1-4)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뽀족뽀족 돌아나는 풀싯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喬木)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있고 자부적(慈父的)인 권고(眷顧)와 그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정로, 10)

천연계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증거하고 있다고 성경과 예언의 신은 말하고 있다. 이 소책자가 의도하는 바도 모든 천연계와 사물들이 현대진리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으면 한다.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들은 중요한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연상법(聯想法)을 이용한다. 이 방법으로 학생들은 수많은 영어 단어들을 암기하고 지식들을 습득한다. 성경도 중요한 진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비유와 표상들을 이용했는데, 일종의 연상법(聯想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고기 잡는 비유들은 참으로 중요한 진리들을 연상하도록 해준다.

우리는 이미 셋과 둘, 둘과 셋의 다섯 식구의 비유를 통하여 다섯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섯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분쟁하는 다섯 식구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다섯이라는 숫자를 가진 많은 비유와 표상을 발견하게 된다. 보리떡 다섯 개, 참새 다섯 마리의 비유, 성소진리의 많은 표상과 기구들에서 나타나는 다섯이라는 숫자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준비한 다섯 개의 돌, 다윗이 도망할 때 성소에 진설된 12덩어리의 떡 중에서 다섯 개를 제사장에게 요구한 역사 등, 수많은 곳에서 다섯이라는 숫자는 다섯 천사의 복음, 곧 기별을 연상케 하는 의미심장한 숫자임을 깨닫게 해준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다시 한 번 읽어 보라. 수많은 곳에서 다섯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때마다 옛 진리들이 순식간에 현대진리로 전환되어 능력 있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새로운 방법으로 현대진리를 깨닫고 확증하게 된다면, 어떤 원수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연계의 수많은 초목들에서, 피어나는 온갖 종류의 꽃들에서 현대진리를 연상하는 의미 있는 숫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편집자는 어느 날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왜냐하면, 다섯 천사의 현대진리를 보았기 때문이다.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아름다움을 감상하는데 다섯 개의 꽃 잎사귀들이 조화를 이루어 나에게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다섯 천사의 현대진리들이 모두 연상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른 봄 피어나는 살구꽃, 매화꽃을 필두로 피어나는 꽃들을 감상하여보라. 수많은 꽃들이 잎사귀가 다섯 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다섯

이라는 숫자에 다섯 천사의 현대진리를 입력하여 연상하는 습관을 가져보라. 순간 모든 진리가 연상되어 나타날 것이다.

물론 모든 꽃들이 모두 다섯 개의 꽃잎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양한 숫자의 잎사귀와 수많은 꽃잎을 가진 국화와 같은 꽃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모두 현대진리의 의미를 부여하여 읽을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땅속에서 돌아나는 새싹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잎사귀로 시작한 새싹들은 돌, 셋, 넷, 순차적으로 잎사귀들을 내면서 식물들은 자라난다. 이때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 등 의미를 부여하여 현대진리를 회상하고 연상해보라. 그렇다면, 모든 천연계가 또 하나의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는 것처럼 활용될 것이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에서,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모래와 별들을 보면서도 현대진리를 읽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북쪽 밤하늘을 쳐다보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연상시키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과 영어의 W자 모양의 다섯 개의 별을 가진 카시오페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일곱 개의 별을 가진 북두칠성을 보는 순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는 말씀을 연상하게 되며, 다섯 개의 별을 가진 카시오페아 별자리를 보면서, 다섯 천사의 기별을 곧 현대진리를 연상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쪽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성을 재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섯 천사의 기별(복음)을 보내셨다는 구속의 경륜을 연상하게 된다. 이처럼 천연계 속에서 현대진리를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면 환난날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우리 앞에는 일요일법령과 야곱의 환란이라는 가공스런 환란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과 예언의 신 책가방을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올는지 모른다. 그때 천연계의 사물 속에서 모든 현대진리를 읽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다면, 환난 날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꽃을 보고 풀잎사귀를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모든 진리를 순간적으로 연상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는 다섯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런 지혜를 배우게 되었다. 독자들에게도 이번 기회에 모든 천연계 속에서 현대진리를 읽고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진리의 큰 보고(寶庫)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천연계의 책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다. 이들 보고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가 들어 있다.”(실물, 125)



## 다섯 천사의 기별과 무관치 않은 표상, 비유, 역사 연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예언의 신
모세가 지은 성막의 기구들, 기둥, 양장, 널판 등 성소복음의 기구들에서 다섯이라는 수효와 치수들이 많이 언급됨 출 26:3, 26, 27, 37 출 36:10, 31, 32, 38	눅 12:50~53 한 집안의 셋과 둘의 불화의 비유 (계14장의 세 천사와 계18장의 두 천사의 기별들에 의한 분쟁)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떤 중요한 사건을 위해 준비하느라고 하늘과 땅 사이를 바 뻐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다. <b>그                      때 나는 다른 힘센 천사(셋째)가                      명령을 받고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기 위하                      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                      다.</b> 큰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주어졌으니 그가 내려올 때 세상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초기, 277; [편집자주])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로 다섯 마리의 제물들이 드려짐 (양, 염소 다섯) 민 7:17, 23, 29, 35, 41, 47, 53, 59, 65, 71, 77, 83.	눅 12:6 참새 다섯이 앓사리온 돌에 팔림 다섯 천사의 기별들이 경솔하게 취급당함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 쬐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 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b>천사                      들(다섯째)이 그 힘센 천사(넷째)                      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                      으며</b>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 리를 들었다.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 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 지라.’”(초기, 277; [편집자주])
대상 2:3, 4 예수님의 조상 유다의 아들이 다섯임. 본처에게서 셋, 다말에게서 쌍둥이, 둘, (셋과 둘 = 다섯) (넷째와 다섯째는 쌍둥이 천사?) 창 38:29, 30 참조	눅 9:16; 요 6:13; 마 14:17 보리떡 다섯 개의 표적 말씀-생명의 떡(복음) 다섯 천사의 기별 (말씀-복음) 물고기 두 마리 계14장 계18장 천사들의 두 국면	
대하 4:6~8 모세의 성막에서 한 개의 물두멍, 떡상, 촛대가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다섯 개로 증대되었음.	마 20:1~7 포도원 일꾼을 다섯 번 부르심의 비유 다섯 천사의 기별	
삼상 17:39, 40; 21:1~6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다섯 개의 돌을 취함 다윗이 도망할 때에 제사장에게 다섯 덩어리의 성소의 떡을 요구함	마 25:1~13 열 처녀 비유 다섯 천사의 기별 슬기로운 처녀들은 받아들임 미련한 처녀들은 거절함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와 셋째 천사를 돕는 계시록 18장의 두 천사, 곧 다섯 번의 자비의 천사들에 의하여 이 땅의 복음사업이 종결된다. 계 18:4절의 “다른 음성”을 화잇 선지자는 “천사들”(초기 277)로 표현하심
사 19:18 여호와를 가리키는 다섯 성읍 사 30:17 다섯의 꾸짖는 자	계 14:6~9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계 18:1-2, 4 계18장 천사의 두 음성(천사) 넷째, 다섯째 천사	
성소제도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스도(복음)에 관련된 역사와 예언 가운데 다섯의 수효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고 말세에 나타날 다섯 천사의 예언(현대진리)과 조화시켜 연구해 보자.	예수님의 비유와 표적에서 나타난 다섯과 관련된 수효의 말씀을 계14장, 계18장 천사와 관련하여 연구해 보자.	

### 3) 다섯째 인의 비밀

주님의 재림과 연계하여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증거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계시록 5장과 6장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를 얻게 되었다. 함께 연구해보기로 하겠다.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일곱 교회가 나오고 4장에서 7장까지는 일곱 인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다. 요한은 일곱 인으로 봉함된 책의 계시를 보고 난 후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온다. 왜냐하면, 그 인을 떼고 책을 펴서 읽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일곱 인의 중요성과 그 속에 나타난 진리들이 심히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계시이다. 계시록의 모든 진리들이 중요하지만, 일곱 인으로 봉함된 진리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였기 때문에, 함부로 원수들에 의하여 진리가 훼손되지 못하도록 일곱 인으로 봉함되어 보관되었다. 그 일곱 인 속에 봉함되었던 진리들이 어떤 진리인지 연구해보자.

#### 중요한 진리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어나 땅 위어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계 5:1-4)

비록 계시 중이지만, 요한은 일곱 인으로 봉함된 책의 인을 떼자 없으므로 큰 소리로 울었다. 다행스럽게도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어린 양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말을 듣고 요한은 울음을 그친다. 드디어 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 인을 떼는 모습이 나오고,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들이 달려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첫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마치 교회가 흰 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는 것처럼 통쾌한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뒤이어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색상으로 변모하는 말들처럼 교회는 핍박과 회유를 받아 거의 죽음의 상태로 변모하는 모습으로 보여주었다. 뒤이어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그리고 계시록 7장을 거쳐 계시록 8장에는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보게 된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교회의 상태와 관련된 예언이요,

여섯째 인은 재림의 징조요,

일곱째 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의 내용이 매우 애매모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본문을 읽어 보도록 하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계 6:9-11)

중세기 교회가 핍박을 받아 시련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자신들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다섯째 인의 배경을 이룬다.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이 하늘의 대주재이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원을 풀어달라는 호소와 함께 답변을 달라는 내용이다.

그때 하늘의 대주재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너희 동무들(죽임을 받은 자)의 수효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주신다. 마치 죽은 영혼들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처럼 의인(擬人)화되어 기록되어 있는 계시이다. 분명 이들의 호소에는 중요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들의 신원(伸冤)이 풀어지는 사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만 성취될 사건이기 때문이다. 재림과 함께 첫째 부활이 있으며, 이때 이들은 부활하여 영광스런 하늘나라를 드디어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지체되고 있는 중요한 예언

이들은 중세기 작은 뿔에 의하여 생명을 잃었던 영혼들로서 역사가들은 이들의 수효가 수천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티끌 속에서 잠들어 있다. 언제까지 이들은 억울함(신원)을 풀지 못한 채 땅속에 잠자고 있어야 하는가? 다섯째 인은 이들 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 믿음으로 구원 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언제까지 티끌 가운데서 잠자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그 구원을 눈으로 보지 못한 채 땅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 이들이 말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조사심판, 실물, 294 참조)을 끝내고 자신들의 신원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주재 되시는 분의 대답은, 너희 동무들의 수효가 차야지만, 너희들의 소원(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대답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의 동무는 누구이며, 그 수효는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닌가?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수효에 대하여 언급하신 곳은 오직 계시록 7장에서만 발견된다. 그러므로 다섯째 인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계시록 7장을 제외하고서는 그 의미와 값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일곱 인의 계시의 구조를 보면, 계시록 6장에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공개되고 계시록 7장에서 십사만사천인의 한정된 수효를 언급한 이후 계시록 8장에 일곱째 인,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순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계시의 구조상으로 볼 때, 다섯째 인에서 말하는 죽임을 받은 자들의 수효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십사만사천인들의 수효와 관련시키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십사만사천인들의 수효가 차면 계시록 8장에 기록된 주님의 재림, 곧 일곱째 인과 연결된다. 이것은 증언의 말씀으로 증명이 된다.

다시 다섯째 인으로 돌아가 보자. 다섯째 인은 죽은 영혼들(순교자)의 호소와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을 통하여 마지막 사건, 중요한 두 사건(예언)을 말하고 있다. 즉 조사심판의 진리와 죽임을 받은 자, 곧 144,000인의 큰 진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큰 예언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심판, 144,000인의 수효가 채워짐, 그리스도의 재림은, 고리와 고리로 연결되어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언이다. 이와 같은 구속의 계획이 다섯째 인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다섯째 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론적으로, 죽임을 받은 자들의 수효(144,000인)가 차기까지 순교자들의 신원은 지연되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섯째 인에서 말하는 “죽임을 받은 자들”이 144,000인이 확실한가? 라는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 과연 “죽임을 받은 자들”이 144,000인이 확실한지, 왜 144,000인들이 죽임을 받은 자들로 묘사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 죽임을 당한 영혼들 / 죽임을 받은 영혼들

많은 재림성도들이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를 다섯째 인에 적용하기를 거부한다. 십사만사천인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은 당하지만 순교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섯째 인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얼핏 타당하게 여겨지지만, 좀 더 깊이 이 주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인 가운데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9절)이 있고, 또 죽임을 받은 자들(11절)이 있음을 기억하자.

“**다섯째 인을 때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계 6:9)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계 6:11)

이 두 문장을 구분하는 이유는 두 문장의 의미하는 바, 뜻이 성경 원어에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9절에서 말하는 ‘죽임을 당한’ 자들은, 정말 죽임을 당한 자(순교자)들을 의미하는 단어, 스파조 (σφάζω - sphazo)이다.

그러나 11절에서 말하는 “죽임을 받아”는 순교자도 물론 포함되지만, 사형연도(죽음이 확정된 자)를 받은 자들도 포함하는 아포크테이노 (ἀποκτείνω - apokteino)라는 단어이다(요 11:53; 행 23:12-14 참조). 이 두 문장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독자들은 십사만사천인들이 모두 사형연도

(아포크테이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계시록 13장 15절에 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언의 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계 13:15)

“드디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학살하라는 법령이 공포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성도들은 밤낮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이다. 그 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과연 144,000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초기, 36, 37)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밀어닥쳤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켜든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초기, 282, 284)

그러므로 다섯째 인에서 말하는 죽임을 받은 자들의 수요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하신 그 수요는 바로 계시록 7장에 언급된 십사만사천인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모두 확인되는 정확한 해석이 된다. 초기문집 279쪽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자.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 통(뿔로 만든)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 들고 ‘다 이루었다’하고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던졌다.”(초기, 279, 280)

십사만사천인의 인치는 사업이 마치면(수요가 차면), 그리스도의 중보사업도 끝이 나고 드디어 영광스런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 깊은 말씀이다.

## 다섯째 인의 비밀이 풀어짐

요한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울었던 이유가 다름이 아닌 바로 다섯째 인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독자들이여! 생각해보라. 만약 다섯째 인의 성취를 보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담 이후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나(흰 옷을 받고)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땅속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 이들이 언제까지 티끌 가운데서 잠자고 있어야 하는가?

또한 중세기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신원이 어떻게 풀려질 수가 있겠는가?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계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곱 인의 핵심은 바로 다섯째 인의 성취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된다. 그런데 그 재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채워져야 한다는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대주재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섯째 인을 통하여 계시해 주신 것이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경륜이며 비밀의 계시인가!

이제야말로 모든 교회는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를 채우는 선교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 일이 모든 재림성도들의 사명이요 소명임을 기억하자. 왜 우리들은 이방인들이 아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개신교회 영혼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전도하는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개신교회 영혼들은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144,000인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도하여 십사만사천인이 되도록 해야 하며 그 수효를 채워야 한다. 이 수효가 찰 때, 그제야 끝(재림)이 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는 직결된 사건임을 기억하자.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소망(신원)이 성취되는 날이 될 것이다. 이것이 소위 다섯째 천사들의 사명이며, 열한 시에 부름을 받은 다섯째 품꾼(천사)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자. 십사만사천인의 빈 자리를 채우는 일,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를 채우는 일,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교회에게 위임된 가장 신성

한 의무요 사업임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4,000인 가운데 들도록 힘  
써 노력하자!”(화잇주석, 계 7:4-17)

## 4) 십사만사천인의 소명(召命)

성경은 십사만사천인들을 하늘 성전의 봉사자(계 7:15)로 말씀하셨다. 성소 진리로 말한다면, 레위 지파의 사명과 동일한 직분이다.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마지막 때인 지성소 시대에 레위 자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같이 앞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말 3:1, 3)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는 시기는 2,300주야가 마치고 주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실 때를 가리켜 예언하신 말씀이다(쟁투, 424 참조). 주님께서 성소가 아닌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때, 곧 1844년부터를 말한다. 그때에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날 실제적(혈통적) 레위인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레위 자손들은 누구를 가리켜 말함인가?

1844년 이후 지성소 시대(열린 문), 대속죄일임을 알고 있는 백성들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홀연히 그 전(하늘 지성소)에 임하신 대제사장의 중보를 받는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셋째 천사에 의하여 인침을 받은 십사만사천인을 일컬어 레위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들이 하늘 성전에서 밤낮으로 봉사할 실제적인 레위인들임이 확실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계 7:15)

바로 십사만사천인들은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오늘날 모으고 계시며, 그 후보자들을 마치 금과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듯이 연단하시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로운 제물(품성, 열매)을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는 예언이다.

## 제사장(레위) 직분의 근원

성소봉사의 직분을 맡은 레위 직분의 유래는 장자들의 특권에서 찾을 수 있다. 옛날 레위 족속이 있기 전에는 장자들이 제사장 직분의 특권을 가졌었다. 이것은 매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였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특권의 중요성과 고귀함을 깨닫지 못한 장자들이 이 특권을 경솔하게 여김으로 잃어버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삭의 아들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에게서 그 슬픈 역사를 보게 된다.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나게 되었다.

장자의 특권, 곧 제사장의 직분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은 장자에게 있었다.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이 특권에 대하여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 특권을 얻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팔족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강탈하였다. 이와 같은 야곱의 행위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께로부터 기만으로 얻은 장자권을 인정받게 된다. 야곱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의 동기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그는 물질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적 축복을 갈망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열망은 결국 장자권을 쟁취하게 된다.

## 레위인이 장자권을 얻음

레위인은 장자가 아니었으나 장자의 특권을 얻게 되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에 처음 난 자[장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민 3:12 [편집자주])

독자들이 알고 있듯이 레위는 장자가 아닌 셋째 아들이었고 품성 역시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다(창 49:5-7 참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당신의 성소에서 봉사할 특권을 주었는가? 장자도 아니요 성격도 포악했던 레위였으나, 이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소에서 봉사할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출 32:26)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민 8:14, 15)**

이리하여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 직분은 장자에게서 레위인에게로 영구히 옮겨지게 되었다.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의 질서는 아브라함의 생전에 깨어지고 말았다.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장자권이 주어졌고, 이삭도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옮겨졌고, 또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아닌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 옮겨진 것이다. 야곱의 경우에는 그가 장자권을 너무나 열망한 나머지 우여곡절을 통하여 얻게 되었으나, 레위인은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인 이 두 경우를 볼 때에 제사장 직분은 간절히 원하는 자들(야곱)과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고 지키는 자들(레위인)이 누릴 특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십사만사천인의 특권은 원하지도 열망하지도 않는 자들이 우연히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지만, 하나님의 소명도 알지 못한 채, 십사만사천인이 아니라 셀 수 없는 무리에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불신에 가까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직분(레위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되는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아니요, 첫째 날인 일요일을 지키는 무리들, 율법을 경시하는 무리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레위인의 실체, 십사만사천인

장자들이 가졌던 특권이요 레위인이 누렸던 그 특권은 이제 십사만사천인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계 7:15)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야곱의 환란에서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레위 자손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했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은 야곱과 같이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가기로 소원하고 분투노력했던 자들임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 특권(성전봉사)은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만이 얻게 될 특권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지키는 자들만이 얻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 야곱과 같이 간절히 소원하는 영혼들과 레위 자손들처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율법을 고수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십사만사천인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 직분(십사만사천인)은 이제는 혈통(레위)도 아니요, 장자의 계보도 아니다. 십사만사천인의 특권은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 율법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이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십사만사천인)을 부르고 계신다. 이 봉사자들의 수효가 차면 구속사업을 마치려고 하신다. 누가 십사만사천인에 자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4,000인 가운데 들(소원)도 록 힘써 노력하자!”(화이트주석, 계 7:4-17)

## 5) 십사만사천인의 사명(使命)

성소제도에 있어서 레위인의 사명(직분)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민 1:53)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민 8:19)**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신 이유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함.
- ②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
- ③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함.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여 성소 4면에 진을 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계획하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의 일을 하게 하셨다. 레위인에게 부여된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과 동일한 사명임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독자들이여! 생각해 보라. 죄인들을 구속하는 사업은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일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홀로 모든 속죄의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렇다면, 한낱 구속함을 받아야 할 대상자들인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위하

여 하는 속죄는 어떤 의미의 속죄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는 레위인의 역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실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될 위기에 처했다. 그때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었는가? 레위 자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출 32:9, 10)

“누구든지 여호와와 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느니라”(출 32:26)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 레위 자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구원을 받았다. 만약 그 날에 레위 자손인 모세와 레위 자손들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모두 진멸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준 것은 다름 아닌 레위 자손들 때문이었다. 또 다른 실례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가나안 변경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들은 발람의 미혹을 받아 백성 대부분이 바알브올에 부속되었을 때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변경 “...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민 25:1)

백성 모두가 발람의 유혹에 빠져 “바알브올에게 부속되니라”(민 25:3)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두령들은 목을 메달아 죽이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여 열병으로 죽어갔다. 그때에 레위 자손인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가장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중죄인을 처단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멈추게 했던 기록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 역시 레위 자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그치게 된 것이다.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

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민 25:7-11)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차례나 레위 자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던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에 의하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중보의 은택(속죄)을 누렸다. 이것은 레위 자손의 사명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 역사의 거울은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십사만사천인(레위인)의 사명과 그들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담당할 역할이 무엇임을 깨닫게 해주는 표상이 되고 있다.

##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선악의 대쟁투(전쟁)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율법 전쟁이라는 것을 재림 성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가 없으며, 그러므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사단이 하늘 법정에서 제소(提訴)한 내용의 요지이다.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부조, 69)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소망, 761)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부조, 41)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소망, 308)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소망, 762)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단의 참조가 거짓이라는 것 곧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같은 희생을 하신 것이다.”  
(화이트석, 요 1:1-3, 14)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타락한 인성의 몸으로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율법을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였으나, 인간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사단의 계속되는 주장이다. 이런 연유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주제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주제는 진리와 오류가 혼합되어 여러 이론과 학설로 가르쳐지고 있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연약한 영혼들이 이 진리를 분별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기란 참으로 어렵게 되고 말았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은 결함이 있어 순종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단의 속임수가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은 구속사업을 마침에 있어서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선악의 대쟁투인 율법 전쟁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죄 없는 하늘 거민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생애(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나, 이 땅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의 대다수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사단이 더 이상 참조할 수 없는 완전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셨다. 곧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사단에게 제시하여 더 이상 사단이 참조할 수 없도록 계획하셨다. 성경은 이미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나, 사단은 이 증거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실례를 욱의 생애에서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욱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욕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욱 1:8-10)

사단은 욱의 진실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승리했으나, 사단은 그들의 생애

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순종한 율법은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단의 논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었다. 세상의 사악함을 경고하며 인간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기 위해 이 거룩한 사람이 선택되었다.”(리뷰, 1909. 4. 15.)

하나님께서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인들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사단의 항의와 참소는 끝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항의를 잠재우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 거룩한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이들이 바로 십사만사천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십사만사천인]을 깨끗케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말 3:3 [편집자주]) 이 되게 하신 후,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도움도 거두신 채 사단에게 내어 주어 시험하도록 허락하신다. 이 시험을 일컬어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한다.

사단은 악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만, 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을 죽이려고 칼로 찌를 때에 드디어 하늘에서는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발하여지고, 하나님께서는 인류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완벽한 증거를 얻게 된다. 요한은 십사만사천인들이 부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가운데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계 15:2-4)

십사만사천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증거)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에 비로소 구속사업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6천년 동안 계속되어온 율법 전쟁의 종지

부를 찍을 증인들이 바로 십사만사천인들이다. 구속의 경륜은 이처럼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다.

## 재앙이 미치지 않음

하늘에서는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사단은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소를 하고 있다. 우편 강도에 대한 사단의 항소가 어찌 없겠는가? 그가 만약 생명이 지속되었다면, 나는 그를 타락시켰을 것이라고 말이다. 사단은 천사장 미가엘(예수)이 모세를 부활시키려 할 때에도 참소하며 항의하지 않았던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유 9)

“사단은 하나님의 종이 그의 포로가 되었다고 자랑하였다. 그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으며** 모세는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한 죄, 즉 여호와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취한 범죄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왔다고 선언하였다.**”(화잇주석, 신 34:1-8)

모세와 같은 의인의 부활을 사단이 항의했다면, 아담 이래 땅속에서 잠들어 있는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의 구원에 대하여 어찌 항의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참소와 항의를 받으시면서도 물리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영혼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지는 않으실 것이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는 사단 까지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게 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최종적으로 나타낼 사람들,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십사만사천인들에게서 나타날 승리의 생애야말로 사단의 참소를 영원히 침묵시킬 것이다. 믿음의 실상(열매)들, 십사만사천인의 생애는 우편 강도나 기타 어떤 영혼들도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 생존한다면 모두는 십사만사천인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사만사천인의 승리는 모든 믿는 자들의 승리요, 이들의 생애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참조는 없을 것이며, 비로소 사단은 유구무언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편 강도와 같은 흉악범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은 미치지 않을 것이며, 모두는 영광스럽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마치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십사만사천인(레위인)에 의하여 우편 강도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구속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하여 모세에게 분부하여 레위인을 구별하셨고, 성막이 세워졌을 때 레위인들로 그 사면에 진을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분부하신 것이다. 이처럼 레위인을 택하시고 구별하신 목적은 바로 십사만사천인의 사명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민 1:53)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서 …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민 8:19)

## 사단의 기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경륜과 계획에 있어서 십사만사천인들의 역할은 중차대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 이처럼 중요한 진리, 십사만사천인의 진리가 외면당하고 있는가? 사단의 계략에 빠진 것이 아닌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거듭거듭 수효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사만사천인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해버리는가? 계시록이 상징이요 표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상징이라고 해석한다면, 어쩌면 그리스도의 재림도 상징이 되어버리지 않겠는가?(이미 그런 무리들이 있음)

왜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를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진리라고 도외시해 버리는가? 그 말씀의 진의를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었

는가? 언제까지 이 말씀을 왜곡하여 말할 것인가?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들, 이를테면 ‘누가 144,000인이 될 것인가?’와 같은 질문들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알려고 그대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분명하게 그 답이 주어져 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었느냐?’(원고 26, 1901).”(화인주석, 계 14:1-4)

이 말씀의 진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 상상력을 동원해야 하는 것들”을 주제로 논쟁하는 일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이를테면, 누가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갈 것인가? 성경에 확실하게 언급되지 않는 것들, 곧 여자들은 계수되지 못한다. 미국인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실제 유대인들일 것이다. 등등 당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십사만사천인의 주제를 두고 논쟁을 일삼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다. 십사만사천인들의 수효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불가능함을 구속의 경륜에서 연구하지 않았는가? 제 칠일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요, 오직 십사만사천인만이 인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진리가 왜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인가?

사단의 계약에 빠지지 말자. 사단은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미련함을 비웃고 있다.

“그는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한다.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빛,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목사, 409)

독자들이여! 주님의 재림은 심히 가까워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4,000인 가운데 들도록[소  
원] 힘써 노력하자!”(화잇주석, 계 7:4-17 [편집자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계 22:20, 21) 아  
멘! 아멘!

# 부록

## 십사만사천인에 관련된 질의응답

십사만사천인에 관한 많은 견해와 이론들이 범람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대개 이 주제는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 영적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결코 그렇지 않다. 사단의 계략에 의하여 참으로 혼란스러워졌지만, 인간들의 이론과 논증이 아닌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결코 논쟁의 주제로서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찾기를 원하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해보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마 7:7; 요 7:17)는 허락의 약속을 믿고 연구한다면 분명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질문 1 :**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며, 어떤 천사가 인을 치는가?

**참조 :**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계 7:2, 3)

“그 때 한 천사가 예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자기 일을 하러 지상으로 가고 있는

네 천사에게로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그것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큰소리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붙잡으라! 붙잡으라! 붙잡으라!'고 외쳤다. ... 그리하여 또 다른 천사를 보내서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지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는 명령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신속히 날아간 것이라고 하였다."(초기, 38; 1849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찍힌다(리뷰 1897. 7. 13)."(화잇주석, 계 14:9-12)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나 늦게 깨닫는다."(쟁투, 639, 640)

"나는 그 때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를 수행하는 천사가 말했다. '그의 사업과 사명은 두렵고 놀라운 것이다. 그는 곡식을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인을 치고 묶어서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이다. 이 일에 온 마음과 주의력을 기울여야 한다.'"(초기, 118)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뭇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초기, 88, 89)

**해설 :** 계시록 7장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는 곧 셋째 천사와 동일한 천사이다. 셋째 천사는 1844년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그때부터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은 시작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넷째 계명 안식일에서 발견된다.

## **질문 2 :** 성령의 인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은 어떻게 다른가?

**참조 :**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 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

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출 31:12, 13).

“열 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6증언, 350)

“이 넷째 계명은 열 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것은 또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부조, 307)

**해설 :** 성령의 인은 아담과 하와가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이래 우편 강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십사만사천인들은 1844년 이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반드시 넷째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이며,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중보의 은택을 입어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은 구속의 열매들에게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십사만사천인들도 물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생애에는 흠과 점이 없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계 14:13)는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다.

### **질문 3 :** 십사만사천인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무리인가?

**참조 :**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계 7:4, 5)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계 7:9)

**해설 :** 계시록 7장은 십사만사천인들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동일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보여주었다.

첫째, 두 무리는 출신지가 이미 다르다. 십사만사천인들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나온 무리들이며,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이방인들, 곧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

둘째, 시기가 다르다. 셀 수 없는 무리는 시기와 관계없이 아담 이후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다. 그러나 십사만사천인은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넷째 계명을 준수한 자들에게만 처진다.

셋째, 십사만사천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대속죄일의 절기를 지켜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계수될 것이다. 그러나 허다한 무리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개신교인들과 흑시라도 양심 심판을 받고 구원 얻을 이방인들은 모두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에 속할 것이다.

### 십사만사천인과 셀 수 없는 무리의 비교

	십사만사천인	셀 수 없는 무리
<b>출신지</b>	이스라엘 (12지파)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b>시기</b>	1844년부터	아담 이후
<b>인(印)</b>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
<b>특징</b>	정확한 수효인 144000명 큰 환란에서 나옴 주리고, 목마르고, 야곱의 환란을 경험함 흰 옷을 입음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많은 무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음 흰 옷을 입음
<b>부활</b>	특별부활에 일어남(잠든 자)	첫째 부활에 일어남
<b>부활의 음성</b>	아버지(하나님)의 음성	아들(예수님)의 음성

## 질문 4 : 십사만사천인의 숫자는 상징수인가 실제수인가?

**참조 :**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계 7:4)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 14:1, 3)

“생사간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주님의 백성의 수효는 찻다.”(쟁투, 613, 614)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 통(빨로 만든)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초기, 279)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끝난 후 그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 모든 상황은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은 헤아려졌다.”(초기, 280)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 허리에 기록자의 먹그릇을 찬 한 천사가 땅으로부터 돌아와 성도들을 계수하고 인치는 자기의 사명을 마쳤다고 예수께 보고하였다. 그 다음에 나는 십계명을 넣은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시던 예수께서 그 향로를 내려놓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손을 드시고 큰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살아, 402)

**해설 :**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하여 인간들의 어떤 설명도 거부하고 있다.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사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 14:3)라고 말한다. 요한은 계시 가운데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를 음성으로 들었고(계 7:4), 또한 보았고(계 14:1), 계산으로(계 7:5-8) 정산하여 확인까지 하여 증거하셨다. 이와 같은 확실한 말씀을 보면서도 인간적인 해석을 더하거나 제하고 싶다면 다음의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 22:18, 19)

**부가적인 질문 :**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상징이니 열두 지파에서 나오는 십사만사천인도 상징으로 보아야 맞지 않는가?

**해설 :** 성경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을 이용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상징, 비유, 표상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적인 사실, 곧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으로 하여 어떤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다. 곧 십사만사천인들의 귀중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표상으로 사용하셨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irony)하게 예수님께서서는 중요한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표상으로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를 상징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만약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상징이기 때문에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상징이라고 말해버린다면, 혹시 그리스도의 재림도 상징이라고 말할까 걱정이 된다.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찰 때, 구속사업이 마쳐지고(중보의 향로를 던짐), 드디어 예수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상징이라면, 재림도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렇게 그리스도는 1914년 상징적으로 재림하셨다고 가르치는 교회 단체가 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표상으로 하여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약 1:1)

야고보가 서신을 보낼 당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북방왕국의 열 지파는 B.C. 722년에 앗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없어

졌고(왕하 17:6, 23), 유다 지파의 남방왕국도 로마에 의하여 정복당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편지를 쓴 것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소아시아 전역에 흠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

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표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저희에게[이스라엘 백성] 당한 이런 일이 거울[표상]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고전 10:11 [편집자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상징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교회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있는 재림성도들을 참 이스라엘(열두 지파)로 해석해야 한다. 그들(열두 지파/재림성도) 중에서 십사만사천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늘 성전, 곧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계 7:15 참조)자들로 선택받는 것이다.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교회)의 구성원들은 24장로(계 4:4)와 십사만사천인들의 봉사자(계 7:4; 레위인/집사)들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교인)들(계 7:9 참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봉사자(집사)들의 수효가 십사만사천인이라는 말이다. 결코 상징이 아니다.

또 구속의 경륜(계획)에서는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결코 상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는 서로 연결되고 묶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차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요원해진다.

“한 천사가 잉크 통(뿔로 만든)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초기, 279)

그러므로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는 결코 상징이 될 수 없다. 이미 24장로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교인들은 수효가 차고 준비가 되었다. 이제 십사만사천인의 성전 봉사자들의 수효만 차면, 향로를 던지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킬 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참조 :** “사단은 이 인치는 시기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현대진리에서 돌 이켜 그들이 흔들리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초기, 43)

“나는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시키고 속이고 유혹하는 일을 바로 지금 곧 인치는 시기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현대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았다. … 사단은 인치는 시기가 마치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분의 백성에게서 거두어지기까지 온갖 간계를 다 써서 그들을 그러한 처지에 붙들어 놓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초기, 44)

“그는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한다.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빛,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목사, 409)

## **질문 5 :** 십사만사천인의 수효에는 죽은 자들도 포함되는가?

**참조 :**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1844년] 이 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교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계 14:13 [편집자주])

“지구상에는 90세를 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 하나님의 인은 저들 위에 있으며 저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수효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화이트주석 7권, 982; 편지 207, 1899년)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 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네가 신실히 행하면 십사만 사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해 주었다.”(초기, 39)

“나는 그대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의 아내가 세상을 떠

났다는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안식일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그녀[하스팅 부인]가 인침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4,000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2기별, 263 [편집자주])

**해설 :**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이 셋째 천사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면, 인침을 받은 자들 중에는 육체의 수한이 다하여 죽은 자들이 당연히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침을 받았기에 일곱째 재앙 초기, 특별 부활(쟁투 636, 637 참조)에 일어나 십사만사천인들과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재림의 영광을 목도하게 된다(그때 허다한 무리들은 아직 무덤 속에 있을 때이다). 그들이 죽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품성의 온전함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품성은 죽는다고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정되어 버릴 뿐이다.

이미 화잇 선지자는 신실히 행하면 십사만사천인과 함께 특권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십사만사천인의 특권을 약속받은 것은 그녀의 신실함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조건으로 십사만사천인의 특권을 약속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녀는 신실하셨기에 분명 십사만사천인의 특권을 함께 누릴 것이다.

또한 하스팅 부인도 죽었으나, 십사만사천인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은 인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윌리엄 밀러는 구원은 받지만,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강화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첫째 부활)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초기, 258)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사건은 오직 영원히 변할 수 없도록 품성을 고정시킬 뿐이다.”(5증언, 466)

**질문 6 :** 십사만사천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이 아닌가? 왜 죽은 자들이 포함된다고 말하는가?

**참조 :** “엘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 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 세상 역사의 종말에 썩은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할 엘리아가 서 있었다.”(선지, 227)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도록 순결하게 해주시는 특별한 백성들은 선한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쳐서는 안 된다.”(1증언, 487)

“그 노래는 십사만 사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 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쟁투, 648)

**해설 :** 죽음을 맛본 자들은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선지자와 왕 227쪽(1증언, 487)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라는 문구를 오해함으로 생겨난 견해이다.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요일법령으로 인해 칠 재앙 동안에 십사만사천인이 당할 경험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언을 기억해야만 한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십사만사천인)은 “...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몹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계 13:15)라는 예언을 상기할 것이다. 또 예언의 신에서도 다음과 같이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나는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 아주 쓸쓸한 곳에서 서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 그 때 나는 지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있는 것과 … 나는 한 문서가 여러 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 어떤 곳에서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도 전에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밀어닥쳤다. 그러나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웠다. 사단은 지존자의 성도들을 실망시키려 했으나 예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

하셨습니다. ... 신실한 자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됨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초기, 282)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켜든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  
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초기, 284)

이처럼 십사만사천인은 모두 죽음의 위협(계 13:15)에 처하게 될 것이나 십사  
만사천인은 위기일발의 순간에 죽음을 맞보지 않고 살아서 변화 승천할 자들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죽음을 맞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때의 위급한 상황을  
표현하신 말씀이지 죽으면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다.

이러한 예언적 상황을 무시한 채, 죽은 자들은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가지 못  
한다고 해석한다면 많은 모순과 혼란에 빠지게 된다.

엘리아 때의 시대적 상황을 기억해 보라. 엘리아는 이세벨과 아합 왕에 의  
해 3년 동안 사망의 위협을 피하여 숨어 있어야 했고, 급기야는 이세벨에 의  
하여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왕상 19:2)라는 최후통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엘리아는 죽음을 맞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다.

그와 같이 십사만사천인들도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죽음을  
맞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것이기에 화잇 선지자는 엘리아의 경험을 십사  
만사천인에게 적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와 왕 227쪽 말씀의 진의는 죽은 자들은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천사들의 도움으로 죽  
음을 맞보지 않고 살아서 재림을 맞이하게 될 십사만사천인의 경험을 예언하  
신 말씀이다.

그러나 만약 문자만을 인용하여 죽음을 맞본 자는 십사만사천인에서 제외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1844년부터 인치는 천사, 곧 셋째 천사의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말 자체부터 모순이 생긴다. 셋째 천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  
하여 인을 치는 천사로서 1844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침을 받은 자들 중에는 재림이 지체되므로 이미 잠든  
자들도 있다. 그런데 죽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소멸되는가?

그렇다면, 어찌 그들의 항의가 없겠는가? 십사만사천인의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재림이 지체되므로 죽었고, 그 결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특권)이 없어진다면, 그 책임은 죽은 영혼들에게 있지 않고 재림을 지체하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특별부활에 일어나 십사만사천인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 참으로 공의로운 일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1844년]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계 14:13 [편집자주])

**질문 7 :** 십사만사천인들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야곱의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가?

**참조 :**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뉘을 얻으리로다”(렘 30:7)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란을 건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종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쟁투, 649)

**해설 :** 특별부활이라는 사건(예언)을 상기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죽은 자들은 특별부활에 일어나 짧은 기간이지만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일곱째 재앙의 때에 십사만사천인들은 모두 죽음의 위기일발의 순간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되었다’라는 음성을 발하신다. 그 음성에 의하여 이 땅에는 큰 지진과 ‘한 덩어리가 백근 쪼름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쟁투, 636) 이때에 셋째 천

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이 (특별)부활한다(쟁투 637 참조).

이때의 상황은 일곱 가지 모든 재앙이 누적되어 있는 일곱째 재앙 초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부활에 일어난 십사만사천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재앙들을 모두 목도하며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특별부활에서 재림의 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음; 쟁투, 636-641 참조).

### **질문 8 :** 십사만사천인에 대한 문제에 관하여는 침묵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가?

**참조 :** “사람들이 이 이론 혹은 저 이론을 선택하며 저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분의 백성들이 상상의 힘을 빌어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십사만 사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1기별, 174; 원고 26, 1901년)

**해설 :** 십사만사천인에 대하여 침묵하라는 증언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한다. 1890년대에는 십사만사천인에 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곧 상상과 추측, 호기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의 주제들이 있었다. 당시 논쟁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144,000인들은 미국 사람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144,000인들은 여자들은 계수되지 않을 것이다.

144,000인들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144,000인들은 유대인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144,000인들은 다른 교파에는 소속하지 않았던 순수한 재림교인들로 구성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제들은 당시 B. E. 풀머 박사와 그 외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이 주제들이 쟁점화되었고 혼란을 가져왔다. 그때에 화잇 선지자는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상상력과 추측에 의해서만 가능한 논제들을 가지고 누가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갈 것이라는 논쟁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덮어두고 한 문맥만을 이용하는 것은 올바른 적용이 될 수 없다.

성경은 십사만사천인에 관한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가 십사만사천인에게 인을 치는 기별이요, 화잇 선지자의 첫 계시가 십사만사천인에 관한 계시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전체가 십사만사천인에 관한 계시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만이 십사만사천인이 될 것이라고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어린 양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오직 십사만사천인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바로 십사만사천인들이다. 어찌 이 무리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지 않을 것인가? 어찌 이처럼 중요한 주제를 연구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무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십사만사천인에 관하여 연구하고 십사만사천인이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

**질문 9 :**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은 썩지 않을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그들에게 야곱의 환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참조 :**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

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5-17)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고전 15:51)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 있는 의인들은 변화된다.**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 다’(고전 15:51-53)고 말한다.”(쟁투, 322)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했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쟁투, 645)

**해설 :** 불멸의 몸으로 변화함을 받는 것은 특별부활에 일어난 자들이나, 재림 당시 살아있는 자들이나, 그 누구도 첫째 부활에 일어날 의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의인들을 무덤에서 불러일으키시는 때, 비로소 모두는 동시에 홀연히 불멸의 몸을 입을 것이다. 마치 나사로가 부활하였으나 불멸의 몸이 아닌 다만 건강한 육체로 부활하였듯이 특별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동일할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된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37쪽에 있는 말씀에 기인하고 있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단 12:2)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영적 상태]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를 찌른 자’(계 1:7)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쟁투, 637 [편집자주])

특별부활에 일어난 영혼들이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왔다는 표현 때문이다. “영화롭게 된 몸”이라고 번역되어 마치 육신이 변화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원문에서는 몸(육체)이 변화되었다는 문구를 찾을 수 없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완전한 번역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되어 무덤에서 나와” 라는 표현이 정확한 번역이 될 것이다. 특별부활에 일어난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3단계, 즉 칭의, 성화, 영화로 구분되는 최고의 영적 수준을 가르치는 말이다. 다음의 원문을 참조하여 보라.

“Graves are opened, and ‘many of them that sleep in the dust of the earth. … awake, some to everlasting life, and some to shame and everlasting contempt.’(Daniel 12:2) All who have died in the faith of the third angel’s message come forth from the tomb glorified, to hear God’s covenant of peace with those who have kept His law. ‘They also which pierced Him’(Revelation 1:7), those that mocked and derided Christ’s dying agonies, and the most violent opposers of His truth and His people, are raised to behold Him in His glory and to see the honor placed upon the loyal and obedient.”(GC 637)

**질문 10 :** 1844년 이후 짐승의 표가 되는 일요일을 지키는 백성들 중에는 구원 얻을 무리는 없는가?

**참조 :**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이 될 때가 오겠지만 그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원고 118, 1899).”(화잇주석, 계 13:16, 17)

“그러나 지난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믿고 일요일을 지켰다. 그리고 오늘날도 로마 천주교를 포함한 각 교회에는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인 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또한 당신 앞에 나타내는 그들의 성실성을 인정하신다.”(쟁투, 449)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령이 반포되고 세째 천사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될 때에 거짓 것과 참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그 때까지도 계속해서 넷째 계명을 범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 복음전도, 232(1899).”(사건, 225-226)

“아직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없다. 시험하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모든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고 넷째 계명에 대한 의무를 깨닫기까지는 아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전도, 234)

**해설 :** 오늘날은 넷째 계명인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알지 못하고 일요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무지한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받은 바 빛에 신실하다면, 분명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십사만사천이 아닌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일요일법령 이후에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는 더 이상 탄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섯째 천사들이 늦은 비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안식일을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안식일)과 짐승의 표(일요일)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이때에 일요일을 고집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질문 11 :** 죽은 자들도 십사만사천인에 포함된다는 직접적인 증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해설 :** 많은 증거의 말씀을 보면서도 문맥적으로 더 확실하게 죽은 자들도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증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역사 속에서 화잇 선지자의 말씀을 찾을 수 있었다.

J. N. 라포보로우 목사가 편집한 소책자에서 그런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다.

재림교회 최초의 목사이셨던 J. N. 라포보로우 목사는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화잇 부인의 공개적인 계시를 30여 차례 이상 목격하신 분이로서 그 누구보다도 화잇 부인의 선지성과 예언들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과 경험을 소유했던 분이셨다.

그는 십사만사천인에 관한 예언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다. 그는 1890년대 당시 누가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논쟁 속에서 이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셨다. 특히, 1894년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시기를 정하는 무리들(새 빛 주창자들)에 의하여 죽은 자는 십사만사천인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만이 그 수효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별이 전해졌다. 마치 화잇 선지자도 자신들의 기별에 동조하는 것처럼 증언의 말씀을 인용하였기에,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이런 잘못된 기별의 영향력을 막기 위하여 J. N. 라포보로우 목사는 화잇 부인이 돌아가신(1915년) 이듬해인 1916년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십사만사천인에 관한 올바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노력했다.

J. N. 라포보로우 목사의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이라는 소책자의 내용은 인치는 기별에 관한 3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그 3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재림성도들은 언제 인치는 기별에 대한 빛을 받았는가?

둘째 : 인치는 기별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셋째 : 1848년 이래 이 기별을 믿고 잠든 백성들 중에 십사만사천명에 포함될 자가 있는가?

세 질문 중에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문과 함께 소개하려고 한다 (다음 쪽의 원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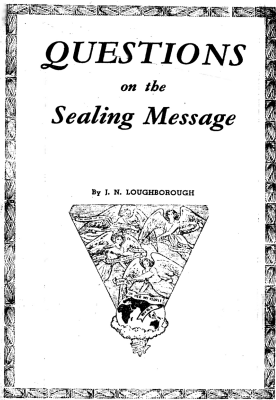
**참조 :** “만일 1848-1850년에 사람들이 인침을 받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이 특별부활에 일어나 십사만사천인과 함께 있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부활에 대하여 ‘초기문집’ 초판의 ‘영적 선물’ 292쪽을 읽어보도록 하자.”(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 라포보로우 저, 12)

“만일 부활한[특별부활] 안식일 준수자들이 십사만사천인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아직도 의심이 있다면, 1909년에 화잇 자매께서 주신 다음의 대답을 고려해 보자. 1909년 대총회에서 어윈(Irwin) 목사[대총회장 역임]는 속기사를 대동하고 화잇 부인과 면담하였다. 그는 그녀에게 약간의 질문을 하고자 했으며 질문과 답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그 질문들 중 하나이다.

화잇  
증언

‘이 기별을 믿고 잠든 자들이 십사만사천인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화잇 부인은 ‘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십사만사천인 가운데 속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의심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  
책 표지



THE SEALING MESSAGE

17

death and the grave! O death where is thy sting? O grave, where is thy victory? Then the living saints and the resurrected ones raised their voices in a long, transporting shout of victory. Those bodies that had gone down into the grave bearing the marks of disease and death, came up in immortal health and vigor. The living saints are changed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nd caught up with the resurrected ones, and together they meet their Lord in the air. Oh, what a glorious meeting! Friends whom death had separated, were united, never more to part."

If there is still a doubt of the 'resurrected Sabbath keepers' being numbered with the 144,000, consider the following from Sister White's words in 1909. At the General Conference in 1909, Elder Irwin had a stenographer accompany him in a call upon Sister White. He wished to ask her some questions, and have an exact copy of the words of the questions, and the exact words of the replies. Among other questions was this one:—

"Will those who have died in the message be among the 144,000?" In reply, Sister White said: "Oh, yes, those who have died in the faith will be among the 144,000. I am clear on that matter."

These were the exact words of question and answer, as Brother Irwin permitted me to copy from his stenographer's report.

화잇  
증언

THE NUMBER OF THE SEALED

The query may now arise: "If the sealing message is to go to all the world with a pentecostal power, and the earth to be lighted with its glory, and if, as recently stated by Brother Daniells, it is to result in 'millions' being prepared for Christ's second coming, is not 144,000 a small number to be sealed? It is only a fraction of one million." In His word, the Lord has spoken of those to be saved at His coming as a "little flock." Luke 12:32. They are also a people who have been subject to a very rigid test. The prophet Daniel speaks of them: "Many shall be purified, and made white, and tried." Dan. 12:10. Some translate this "thoroughly tested". It may be true in this case, "Many are called, but

이것은 그들의 질문과 답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며, 어윈(Irwin) 목사가 나에게 [라포보로우] 그의 속기사의 기록에서 복사하도록 허락해준 내용 그대로이다.”(인치는 기별에 관한 질문들, 라포보로우 저, 17 [편집자주])

우리는 이 작은 책 속에서 화잇 선지자의 확신에 찬 답변을 들을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한다.

**질문 12 :**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중에서는 십사만사천인 외에는 구원 받을 자가 없을 것인가?

**해설 :** 구원문제는 하나님의 고유권한에 속한 문제이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구원에 대하여 영혼들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요 3:16)으로 말미암아서이다.

그러므로 십사만사천인의 진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될 것이 아니라,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별로 제시되어야 한다. 또 중요한 사실은 받은 빛의 분량에 의하여 각자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 가운데는 십사만사천인 외에 구원받을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례를 들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지만,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중에도 양심(선한 행위) 심판으로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말씀을 성경과 증언에서 찾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깨달은 빛의 분량에 따라 어떤 이들은 십사만사천인이 아닌 허다한 무리의 구원을 받을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한 영혼들은 정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많은 영혼들은 선행된 지도자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과 참된 진리를 배울

기회를 방해받아 십사만사천인의 특권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지도자들에게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겔 3:17-18) 라는 말씀이 적용될 것이다.

**참조 :**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른바 빛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리뷰 1898. 9. 13).

“현대진리의 빛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진정한 권위 그대로 분명하게 저들 앞에 증거되어야 한다.”(전도, 563)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소망, 638)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부조, 55)

**결론 :** 하나님께서는 받은 빛에 따라 심판하신다. 빛에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허다한 무리로 어떤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십사만사천인의 구성원이 된다.

십사만사천인은 셋째 천사의 완전한 진리에 의하여 인침을 받을 무리들이며 구속의 경륜에 의하여 특별히 구별된 무리들이다. 이들의 수효가 차면 이 땅에서의 구속사업을 마치시고 끝내시겠다는 구속의 경륜을 당신의 교회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자들은 모두 십사만사천인의 후보자들이다. 어떤 이들은 에서와 같이 이 특권을 경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릴 자들이 있을 것이며 어떤 영혼들은 야곱과 같이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여 십사만사천인의 특권을 누릴 것이다. 모두는 자신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될 것이다.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보냈다.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기별을 외치면서 그는 산 위에서 한 척의 방주를 지었다. 그런데 당시의 인류가 오늘날 인구보다 적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인류를 위하여 오직 한 척의 배만을 준비하셨다.

그렇다면, 이런 가정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노아 할아버지에게 몰려와 배를 타게 해달라고 부탁함으로 산 위는 난리법석이고, 결국 노아 할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방주를 더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벧전 3:20). 하나님께서는 그 한 척의 배에 채울 승객도 찾지 못하시고 겨우 노아의 여덟 식구만을 태웠을 뿐이었다.

당시 홍수로 죽은 영혼들 중에는 이런 항의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많은 배를 만들지 않고 한척의 배만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한 척의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노아 할아버지를 조롱하고 욕박지르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한 척의 배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에 의하여 그들의 항의와 논리는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오늘날도 같은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왜? 겨우 십사만사천인만 택함을 받는다는 말인가? 오늘날 재림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왜 십사만사천인으로 인원에 제한을 두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일찌감치 구원을 포기하고 말겠다는 협박성 질문에 의하여 많은 목회자들은 기가 죽는다.

재림성도들이여, 십사만사천인의 수효가 너무 적어서, 자리가 없어 구원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생각하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자. 주님께서는 1844년 이후 아직까지 십사만사천인의 수효를 채우지 못하여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손을 들고 중보하고 계신다. 수효만 차면 향로를 내려놓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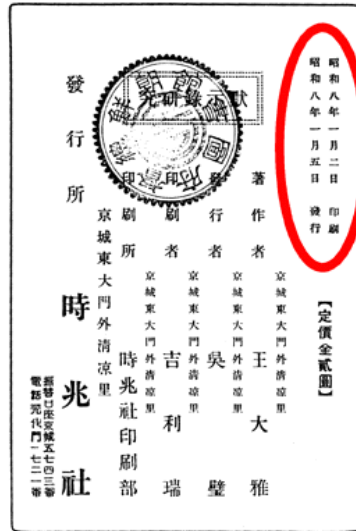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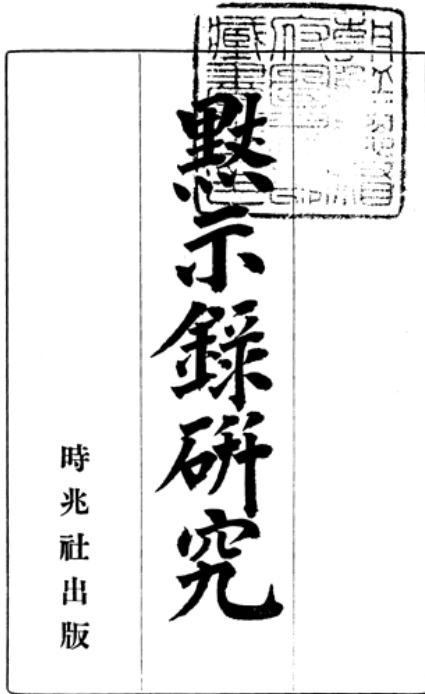
십사만사천인의 특권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을 특권이요 축복임을 기억하라.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하셨다. “여기에 침노한다는 말은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말한다.”(화이트주석, 창

32:26) 온 마음과 전심을 다 바치는 자들은 넉넉히 얻을 축복이다. 지금도 독자들을 위하여 십사만사천인의 자리가 남아 있음을 감사하자. 머지않아 한 천사는 마지막 십사만사천인에게 인을 치고 주님께 돌아와 인 맞은 자의 수효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하게 될 것이다. 끝은 매우 가깝다. 다섯째 천사가 일할 시간은 1시간뿐임을 기억하자.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 통(빨로 만든)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 있는 법계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치켜 들고 ‘다 이루었다’하고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던졌다.”(초기, 279, 28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4,000인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화이트주석, 계 7:4-17)

- 아멘! -



昭和八年一月二日 印刷  
 昭和八年一月五日 發行

“묵시록연구”는 시조사에서 1933년 1월 5일에 발행한 책자이다.

저자인 왕대아(1888-1978) 여사는 한국명이며,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본명은 데오도라 샤펜버그 뎡거린(Theodora Scharffenberg Wangerin)이며, 43년(1909-1952) 동안 한국에서 주로 출판사업에 봉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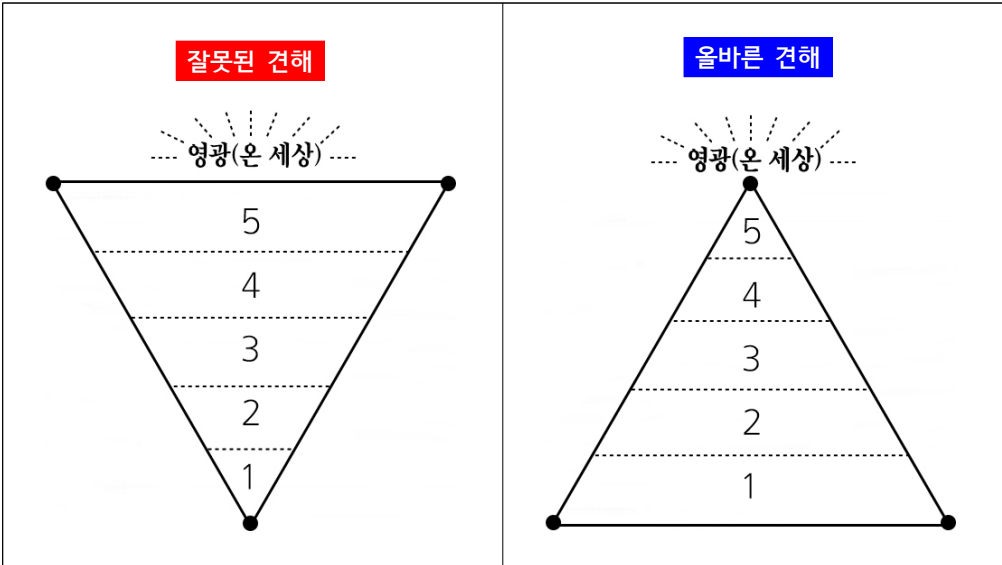
세세에 돌릴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중에 하나이 응답하야 내게 이르대 이 흰옷  
 입은자들이 누구며 또 어대서 왔나뇨 하기로 내가 가르대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  
 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대 이는 큰 환난가운데서 온자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지라 <sup>十五</sup>그런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압헤 있고 또 그 성  
 전에서 밤낮 섬기매 보좌에 안지신이가 장막으로 그 우를 <sup>十六</sup>덥흐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 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모 쓰거운귀운이 상하지못할지라  
<sup>十七</sup>이는 보좌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  
 나님께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심이라

인치는일이 마친다음에 『요한』은 헬수업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  
 을 찬송하는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리는 각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지방에서 온  
 자라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써 보건대 인치는일이 마치는때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수잇는바이다. 그 헬수업는 무리는 곳 각시대의 여러나라와 족속가운데  
 서 구원을 바를자들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때에 죽은가운데서 부활하야 그리스도로 더  
 부러 승천할자이다.

그후에 『요한』이 한 다른 무리가 씻는것을 보았는데 장로중에 하나이 『요한』에게 이르  
 대 「이 흰옷입은자들이 누구며 또 어대서 왔나뇨」 하니 『요한』은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야 자기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지못하는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면 이 흰옷입  
 은 무리는 九절에 말한 흰옷입은 무리와는 가지아니한 무리인것을 알수잇으니 九절에 말

한 무리는 『요한』이 이미 어대서 온 무리인것을 아는리이다。 그러면 이 무리는 헬수업  
 는 무리와는 구별된 특별한 무리인것을 알수잇는바 장로가 나르대 「큰 환난가운대서 온  
 자라」 하엿다。 이 무리는 본장하두에 말한바 十四만四천명이니 곳 하나님의 계명과 예  
 수의 도리를 지키는 그의 남은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마진자요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한자들이다。 과연 그들은 세상 마지막에 잇을 「개국  
 이래로 업는 고난」가운대서 을자들이니 (단十二〇一) 곳 『야콥』의 환난을 맛볼자들이오  
 (렘三十〇四一七) 마지막 날콥 재앙이 나릴때에 대언자업시 실자들이다。 그러나 十六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콥 재앙가운대서도 구원함을 바들것을 알수잇는바이다。 그리고 하  
 나님의 인마진자가운대서 이미 잠든자들도 잇으나 그들이 예수재림하시기 조곰전에 새  
 어이러나 (단十二〇二, 三) 큰 환난을 맛볼것이오 살아서 구원함을 바들것이다。 그새에는  
 하늘보좌에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교 하나님이 또  
 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실것이다。

## 다섯 천사의 기별에 의한 사업의 범위와 큰 외침의 실상



\* 두 개의 삼각형 도형은 1-5천사의 기별에 의한 사업의 범위와 파급적인 확산의 규모를 표현한다.

1-5째까지 천사들 각자의 사업(운동)이 점점 더 큰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고 발전되리라는 견해(역삼각형)가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정삼각형) 상황으로 진행되어 나타날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재림운동이 가장 컸고 그 범위는 거의 세계적이었다.

셋째 천사의 사업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의 실패로 재림의 열기는 거의 사라지고 적은 무리들에 의하여 미국에서 조용히 발전되기 시작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그 파급효과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천사의 사업은 개신교회와 세상은 알지 못한 채, 1888년 재림교회 안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으며, 지금도 다만 재림교회 내에서만 확산 파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업이다.

다섯째 천사의 운동은 넷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는 일반적인 재림성도들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며, 넷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무리들 중에서도 극히 적은 무리들에 의하여 일어날 운동이다. 그러므로 1-5째 천사의 사업의 확산은 바로 정삼각형의 도형과 동일하다. (화잇 선지자의 첫 계시에서 하늘 가는 백성들의 여정과도 일치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극소수의 무리들로 줄어들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의 능력과 영광은 반대의 도형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경험에서 더 높고 더 넓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적과 표적은 품성의 변화라는 원칙을 적용할 때에 그렇다. 궁극적으로 온 땅(세상)을 환하게 하는 일은 '오직 나의 신(늦은 비)'으로만 가능하다.



셋과 둘, 둘과 셋

## 힘 있는 천사들

---

발행일 : 2018. 3. 26.

발행처 : 현대진리연합운동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2길 19

충북 보은군 내북면 이원곰골 2길 140 (이원리120-2)

전 화 : 010-5297-4810, 010-5456-2247, 010-4979-1844

홈페이지 : [www.PTUM.ORG](http://www.PTUM.ORG)

e-mail : [waldenses@naver.com](mailto:waldenses@naver.com)

가격 : 비매품

---

※ 이 책을 친구들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책자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위에 기록된 전화나 이메일로 문자(주소)주시면 됩니다.